

# 건축사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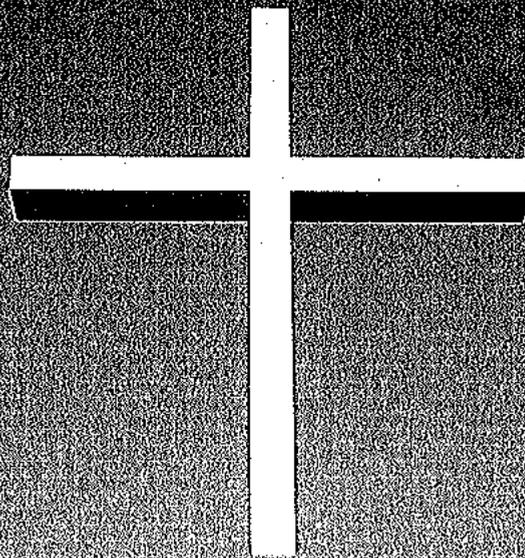
2000 **09** vol. 377

칼럼 \_\_\_\_\_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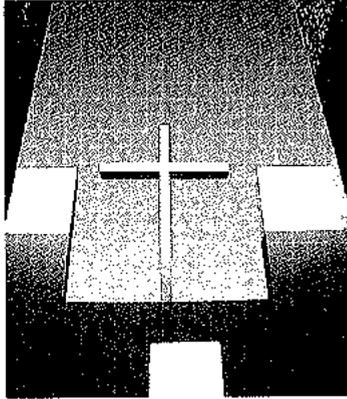
작품리뷰 \_\_\_\_\_ 제일영광교회

작품노트 \_\_\_\_\_ 현암사

법정 \_\_\_\_\_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2)



차례 2000 09 377호



제일영광교회 (곽재환작)



발행인: 이대규  
 편집인: 서천식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현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mailto:hkjo@kira.or.kr) [hsjung@kira.or.kr](mailto:hsj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천풍전산인쇄  
 광고: (주)이두컴 (02)58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ae, Kim Heung-Soo, Yoo Won-Jai,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칼럼	만남	김성우	12
작품리뷰 / 제일영광교회		곽재환	16
	대담후기: 고요한 열정과 꿈꾸는 자의 눈	함성호	28
	비평: 생성의 건축, 그리고 되어지는 건축	김승귀	32
회원작품	일산주택 II	임재용	38
	금정문화회관	이용흠	42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부대진·김무현	46
	부천시민종합복지관	이상현	50
	이화여대 교회 및 국제교육관	김정식	54
	정도실업사옥	우시용	58
작품노트	현암사	권문성	60
기고	건축구조 안전과 향간의 소문들	이창남	64
	사랑의 집짓기 운동 참관기	이정수	69
건축만평		유원재	74
건축마당	협회소식		75
	건축계소식		77
	해외잡지동향		81
	법령(도시계획법시행령)		87
	현상설계		97
	통계(2000년도 7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0
	회원현황		102

Column

Meeting		Kim Sung-woo	12
Review / Jeil Yeongkwang Church		Kwak J-hwan	16
interview	Silent Passion and a Dreamer's eyes	Ham Sung-Ho	28
critique	Becoming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Became	Kim Sung-Guy	32

Works

Ilsan Residence II		Lim Jae-Yong	38
Keumjung Cultural Center		Lee Yong-Heum	42
Geonyang University Hospital		Bou Dae-Jin & Kim Moo-Hyeon	46
Bucheon Welfare Center		Lee Sang-Hyun	50
Ewha Womans University Church & International Education Building		Kim Jung-Sik	54
Jungdo Bldg.		WooH Si-Yong	58

Design Note

Hyun-am-sa		Kwon Moon-Sung	60
------------	--	----------------	----

Feature

Rumors Surrounding the Safety of Architectural Structures		Lee Chang-Nam	64
An Essay on the 'HaBITAT' in Kwang-Yang		Lee Jeong-Soo	69

Cartoon

		Yoo Won-Jai	74
--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75
Archi-Net			77
Overseas Journal			81
Laws & Ordinances			87
Competition			97
Statistics			100
Members			10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3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86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5-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8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시흥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3 · 양천구건축사회/664-6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6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3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802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1)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A. 용지역건축사회/(031)604-4121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화성부지역건축사회/(031)866-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82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9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8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8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856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0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1)256-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9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831-423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6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2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36
- 전라남도건축사회/(061)385-9944 · 38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8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4)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4)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0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천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3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0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6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2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 만남 Meeting

김성우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ung-Woo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나 자신과 사물 모두를 하나하나의 대상물(對象物) 또는 대상체(對象體)로서 보는 경향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 사물 모두를 독립적 대상으로 보지않고, 서로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상황으로 보는 경향이다. 앞의 관점은 물리적 존재성을 중요하게 보았고, 뒤의 관점은 상호적 관계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앞의 경향을 대상적(對象的) 관점, 그리고 뒤의 경향을 관계적(關係的) 관점이라고 이름붙여 볼때에 두가지는 결국 같은 내용을 파악하는 다른 생각습관의 차이에서 온다. 하나는 개체, 개체의 사물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사물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대상자체의 어퍼함에 신경쓰고 또 하나는 대상사이의 관계의 어퍼함에 신경쓴다. 그러나 두가지 경향은 각각 흑(黑)과 백(白)으로 나뉘듯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관계의 함수관계에서 어느 쪽에 얼마나 더 비중을 두는가하는 정도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문화는 대상적 사고가 발달했었고 동양문화는 관계적 사고를 발달시켜왔다. 사람과 자아를 인식할 때에 서양사람들은 독립적이고 개체중심적으로 파악하고 동양사람들은 더 관계적이고 집단적으로 파악한다. 건축을 생각할때도 서양사람들은 독립적 건물중심적으로 건축을 생각하고 동양사람들은 관계적 상황연출로서 건축을 생각한다. 서구적 사고와 건축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건물중심적 경향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그것이 본래적으로 서구문화의 대상적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건축이 얼마나 철저히 관계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가를 관찰해보면 서양건축의 대상적 입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동서양의 건축을 비교해 볼 때 하나는 대상주의적 관점에서 또 하나는 관계중심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관찰하지 않는다면 두가지 경향의 본질적 구조를 놓칠 수밖에 없다.

대상과 관계의 두가지 입장이 모두 "만남"의 문제를 건드린다. 대상적 경향은 대상들의 만남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고 관계적 경향 또한 "만남"사이의 상호성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 만남이란 사람과 사물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물과 사물의 만남 모두를 포함한다. 대상적 만남은 독립적 대상체들이 서로 이웃해 있음으로써 만나게되는 물리적 종류의 만남이다. 즉 물리적인 "옆에있음"의 의미에 가까워진다. 여기서의 만나는 대상체가 만나는 상대 때문에 또는 그 상호성에 의해서 자신을 변형시켜야할 이유까지는 없다. 나는 나, 너는 너로서 존재하되 그 나와 너가 만나게 되어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관계적 만남은 대상적 만남과 같지 않다. 관계적 만남의 대상들은 만나는 대상들이 만남으로 하여 생기는 관계성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고 맞추고 조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만나는 대상이 자기 스스로를 완성하려하기보다 만나는 대상사이의 관계를 완성하려한다. 개체를 관계에 예속시키지 그 반대를 거부한다. 그래서 부분보다 전체를 지향하고 개체성보다 조직성을 중요시한다.

대상적 만남과 관계적 만남은 문화의 성격을 다르게 하고 사람을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게하고 건축

의 성격을 다르게 만든다. 대상적 만남은 대상적 문화를 만들고 사람을 대상적 사람으로 만들고 건축을 대상적 건축이 되게 한다. 관계적 만남은 문화, 사람, 건축을 모두 관계적인 것으로 만든다. 서구문화는 대상적 문화이고 서구인은 대상적 인간이며 서구건축은 대상적 건축이다. 이러한 서구의 대상성에 비교할 때 동양의 문화와 사람과 건축은 관계적이다. 그 동서양의 차이는 "만남"을 어떻게 다르게 취급했는지의 차이이다.

건축은 만남이다. 건축은 우선 사람과 건물의 만남이고 건물과 자연의 만남이고 건물과 건물의 만남이다. 건물과 건물의 만남은 도시의 문제를 만들고 건물과 자연의 만남은 환경의 문제를 만들고 사람과 건물의 만남은 건축의 문제를 만든다. 건축은 이 세가지 만남 모두를 다루어야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건축을 건물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건축을 건물만들기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설계는 건물 하나하나의 독립적 대상건물의 설계로서 취급하고 구조계산과 시공 역시 건물 하나하나의 독립적 실현을 문제 삼는다. 그것은 대상적인 접근방법이다. 그것은 대상적 관점에서의 사람과 건축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전통은 그러한 대상적 인식에 익숙한 것이 아니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건축의 사고습관에 익숙해지면서 대상적 건축을 자기화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래서 건축과 사람의 관계가 대상적 관계가 되고 건물과 건물, 건물과 자연의 관계도 대상적 관계가 되어버렸다. 모든 만남의 대상이 자기자신의 어떠함을 관심하고 상호적으로 있어야하는 관계의 어떠함에 무관심했었다.

건축, 인간, 자연은 각각 자기중심적 개체로 취급되어 그 사이에 있어야하는 적당한 관계가 손상된 것이다. 근대 도시의 문제와 환경문제는 바로 그 관계의 손상에서 온다. 관계의 부적절함이다. 대상이 관계의 소리를 듣고 그 요구에 따라 자신을 조절, 조화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 생긴 관계의 손상이다. 그래서 대상의 개체적 요구만 만족시키면 대상이 원하는대로 완성되니까 좋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대상사이의 관계가 손상되고 관계가 손상되면 대상이 손상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관계의 손상은 개체의 건강을 손상시킨다. 즉 적절치 못한 관계는 개체를 병들게 한다. 근대사회는 그 속의 인간, 건축, 자연 모두를 병들게 했다. 도시속의 예쁜 건물, 화려한 사람은 모두 속으로 중병을 앓고 있으며 도시속의 자연은 더 먼저 병들어야만 했다. 인간과 자연과 건축이 서로간에 만남으로하여 생겨져야하는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가 살아있었어야 했으나 그 모두가 단절적 대상적으로만 만나려 했기에 그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를 살려내지를 못했다. 관계가 살지 못하면 만남의 대상은 건강치 못하다. 대상이란 본래 관계속에서만 생성되는 관계적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대상은 본래 관계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대상적 만남은 다시 관계적 만남으로 돌아켜져야 한다. 인간과 건물, 그리고 건물과 건물, 또 건물과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고,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궁극적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만남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또 자기만족적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 같은 사물인식은 하나의 착각이었다. 모든 사물을 분석하고 분해하여 관계를 찢라내고도 개체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또 하나의 착각이었다. 모든 관계

를 끊고 독자적으로 대상화시키기를 계속하였을 때 발전이 가능하고, 이상적 사회가 성취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이었고, 허황된 꿈이었다.

건축에서부터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건물과 자연사이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그리고 건물과 인간 사이에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건축에서의 모든 대상적 만남을 관계적 만남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관계의 회복이 건강의 회복이고, 건강의 회복이란 바로 생명의 회복이다. 건강한 생명은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관계는 단절적이고 자기 만족적 대상은 궁극적으로 그 대상자체의 죽음을 초래한다. 대상사이의 관계단절은 대상의 죽음이다.

건축행위를 대상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현시킨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건축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근대 도시와 환경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죽음에 도달하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뿐이다. 대상적 만남은 관계를 약화시킨다. 관계적 만남이 또한 상대적으로 대상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도 물론 사실이다. 그래서 양쪽의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맞는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근대사회는 대상적 만남과 대상적 입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서 앓고 있는 증병의 증세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에게는 대상적 만남을 관계적 만남으로 전환시켜야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상과 관계의 조화를 찾는 것은 조화를 찾을 대상들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T.V에서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울었다.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만남을 보고, 그 만남의 기쁨과 마음속에 쌓였던 슬픔을 느끼며 모두가 울었다. 그 울음은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질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만 하고, 이어져 있어야만하는 관계의 단절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은 사람을 처절하게 기쁘게한다. 단절된 관계가 잠시 이어졌다가, 또 다시 헤어짐으로 단절되어야만 할 때 당사자들은 또다시 오열한다.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한다. 한국인 모두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기뻐하며 울었고, 다시 헤어지는 그들을 보고 슬퍼서 또 울었다.

그것이 관계이다. 인간은 대상적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관계사이에서 태어났고, 상호관계를 먹고 살게 되어있으며, 상호관계속에서만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인간은 대상적 인간이기 이전에 관계적 인간이다. 인간은 관계맺어진 인간과 합하여 하나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관계와 그 사랑이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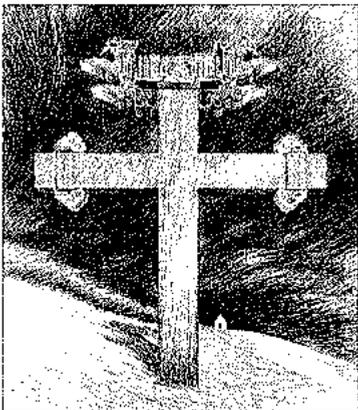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건축은 대상적이기 이전에 관계적인 것이다. 한국의 건축인은 건축에서의 관계단절을 아파하고 있는지 물어야한다. 인간, 건축, 자연 사이에 있어야하는 관계단절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물어야한다. 이산가족이 되어 만나기를 갈구하고 있고, 잠시 만나게 되었다가 다시 나뉘어야 하는 아픔을 우리의 건축도 겪고 있는지 물어야한다. 아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 건축에서 단절된 관계는 회복될 희망이 없다. 건축에서도 우리는 이산가족이다. 모든 이산가족은 만남을 갈구한다. ㉞

## Jeil Yeongkwang Church

박재환 / (주)맥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wak J-hwan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90-1
지역지구	일반주거
대지면적	1,370.00m <sup>2</sup>
건축면적	기존 - 204.34m <sup>2</sup> / 증축 - 447.26m <sup>2</sup>
연면적	기존 - 449.98m <sup>2</sup> / 증축 - 1737.28m <sup>2</sup>
건폐율	47.56%
용적률	89.40%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시멘트블럭,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남동판
내부마감	비탁 - 후동석, 비닐쉬트 벽 - 적벽돌치장쌓기, 수성페인트 천장 - 목재루버, 수성페인트, 홀음텍스
설계담당	권오진, 민홍기, 이명주, 김성진, 강명숙, 정승우, 윤진, 정재일, 안희석, 최용준
현장감리	유성열, 정재일
사진	김동원
인테리어	(주)맥건축
기계설비	(주)한국설비
전기설비	(주)우덕전기
시공자	(주)우영토건
건축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영광교회
설계기간	1996.6 - 1998.4
공사기간	1998.12 - 2000.3



토착화된 쫓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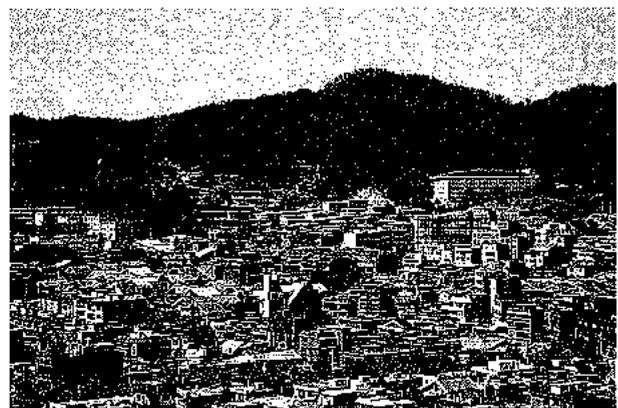
- 몸과 마음과 녀의 집(集)인 사람이 사는 집  
은 그들의 삶과 더불어 긴 서사시를 협주한다 -

우리의 생각과 표현과 의지를 통해 빛과 흙으로 하나의 집이 지어질 때, 공간이 그곳에 그렇게 있듯이 한집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 저속하고, 모나고, 둥굴고, 졸렬한 제각각의 모습속에... 그러나 집의 영혼은 언제나 그곳에 그렇게 있을 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켜보며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킨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삶의 모든 근원을, 그렇게 그의 해맑은 고요함으로 ...

제일영광교회는 평소에 지니고 있는 나의 다섯가지 집(삼, 앞, 높, 뽕, 밭)에 대한 생각의 소산이다. 교회는 기원(禱)의 집으로서 삶의 모든 근원을 일깨우는 해맑음(淸)의 가치를 근본으로 삼되 아우름(和), 참밝음(明), 즐거움(樂), 올바름(正)의 가치를 함께 지내는 곳이어야 한다.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의 한복판이다. 때론 삶의 가치가 첨예하게 반목대립하고 한편, 서로 빠듯하게 기대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만큼 밀도가 높다. 작업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환경이 지니고 있는 질서속에 조화(調和)롭게 자리하며, 교회가 지녀야 할 청일(淸逸)한 품격을 구현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삶의 환경에 서로의 존재가 침투하며 나름의 균형을 취하고 있는 조밀한 주택가에 난데없이 나타난 건물형



여리가 주는 환경의 변화와 침해는 그 파장이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허물며 사랑을 베풀고 주변을 감싸안아야 할 교회인 바에야!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밖에 달리 어찌겠는가. 일조, 조망, 소리, 시선, 침수 등 어느것하나 환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만만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

주변환경에 걸맞도록 덩어리를 나누고, 사방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들을 엮고, 붉은 벽돌이 주조를 이루는 기존환경에 융화하면서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백시멘트물탈뿔칠로 외벽 마감을 정하고, 목재와 노출콘크리트를 가미해 친밀하면서도 단아한 화락(和樂)의 정취를 궁리해 보았다. 또 주거지 내의 6M도로는 협소한 폭이다. 가급적 시각적 열림을 도모하면서, 전면 가로변에 담소를 나누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였다. 이곳은 무시로 동네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누구든지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세속적인 삶속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성(聖)은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작아도 교회는 근린지역사회의 중심공간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도 마땅히 주민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작업을 하는 동안 교회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십자가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가장 민감하고 심각한 일이었다. 도시에 밤이오면 온갖 네온싸인과 경쟁이라도 하듯 선명한 자태를 드러내며 선정스럽게 빛나고 있는 붉은 네온 십자가를 무수히 보게 된다. 그럴때 내마음은 늘 울적하다. 나에게 그것은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화된 의식에 오염되어 교회가 하나님 대신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세속화하고 있는 상징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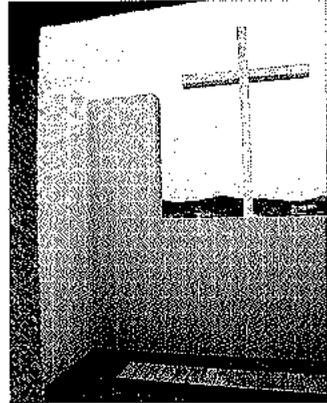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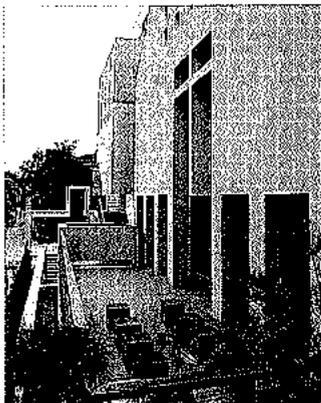
성(聖)그리스도의 상징이 단지 세인의 관심을 끌어서 구매력을 유발시키기 위한 비속한 상업광고의

수단으로 전락해서야 될 말인가? 십자가는 대상을 통해 영혼의 내적 울림을 듣고자하는 바람의 산물이며, 또한 그 물질을 잠재하고 있는 영(靈)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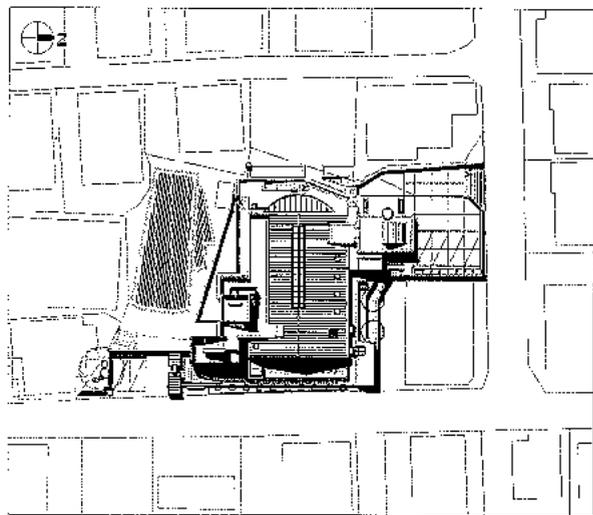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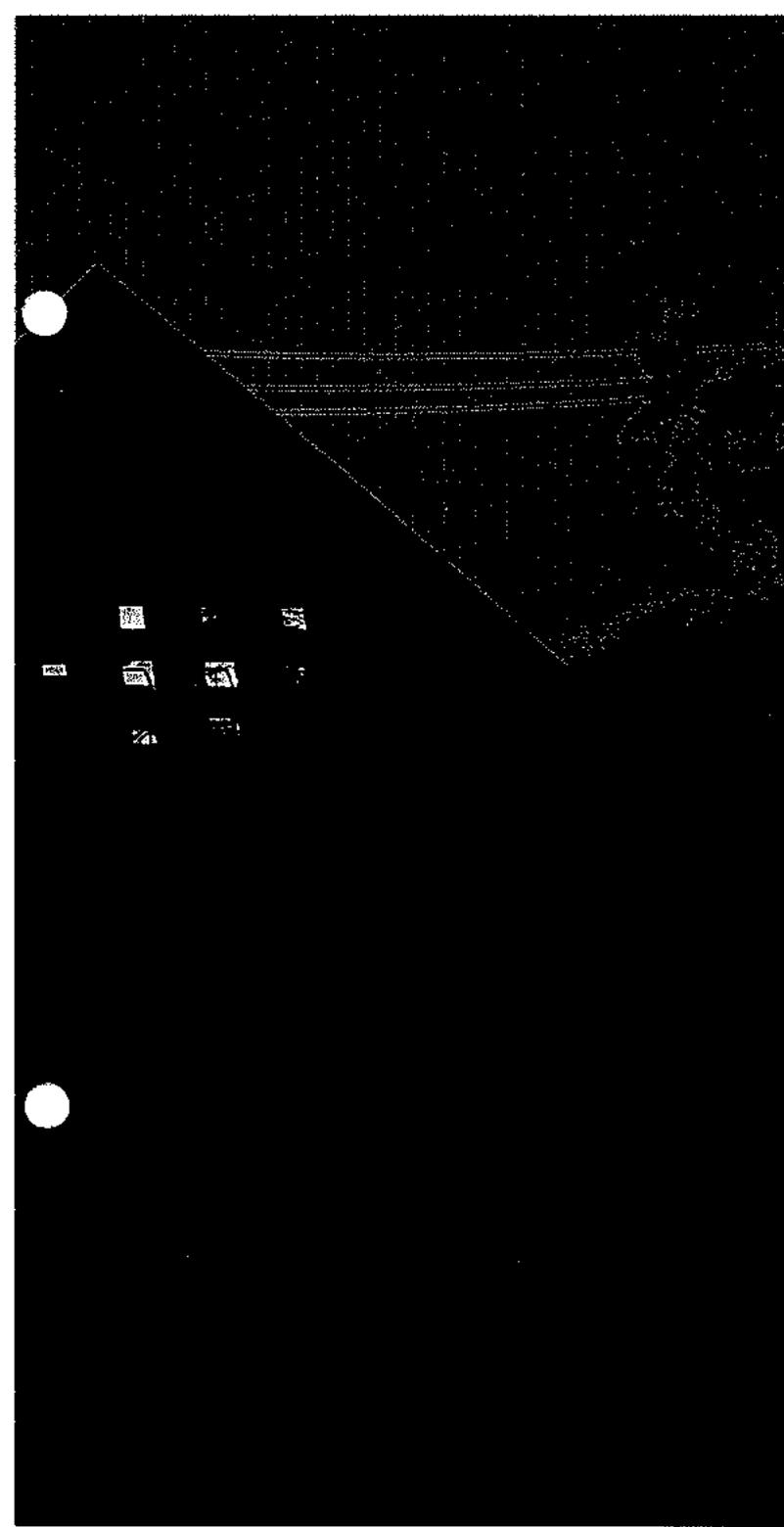
신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만인이 제사장이라 하여 교회의 영성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천박하게 취급하고, 사물의 성령을 경시하라는 것은 아닐터이다. 신은 그의 피조물인 모든 사물을 통하여 현현(顯現)하므로, 만물은 제 모습속에 각각 영성을 지닌다. 까닭에 나무와 꽃들이 각기 제모습을 이루고 있듯이 저마다의 영성(靈性)을 지닌 격(格)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은 주택다워야 하고, 학교는 학교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십자가는 십자가의 격을 지녀야 한다. 마음 속의 십자가라고 방관하려면 차라리 상징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늘의 영광에 답하는 길일 것이다.

이번에 증축하는 교회는 추후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본당은 별도로 신축할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나 기존하는 본당자리는 장차 철거 중심마당이 될 것이다. 오랜시간이 지나면 이번이 지은 교회도 다 사라질터이지만 작업기간 내내 가장 관심을 기울이며 기다렸던 공간은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옥상의 작은 기도소였다. 주계단을 따라 십자가를 메고 골고도의 언덕을 오르는 순례자처럼 오르다보면 주변의 풍경과 멀리 북한산이 시야에 들어오고, 이윽고 옥상의 기도소에 이르게 된다. 하늘만 보이는, 그곳은 천공으로 열려있는 가장 고요한 장소이다. 시원(始原)의 우주로부터 그곳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고, 별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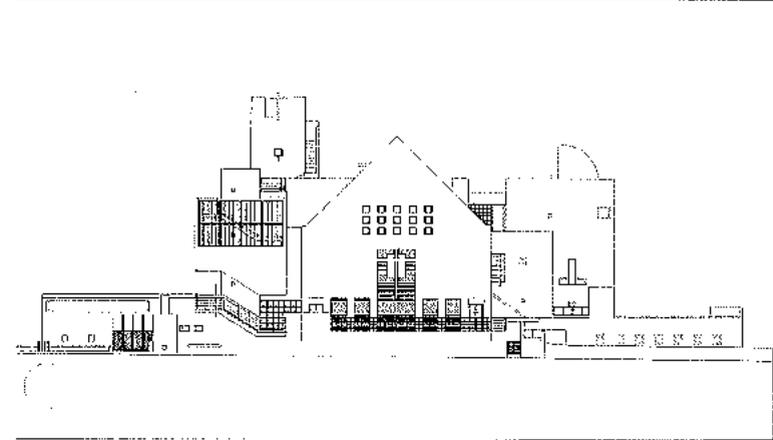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집의 영혼은 아마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꾸밈새는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지만, 그렇게 그의 해맑은 고요함으로 ... (글/곽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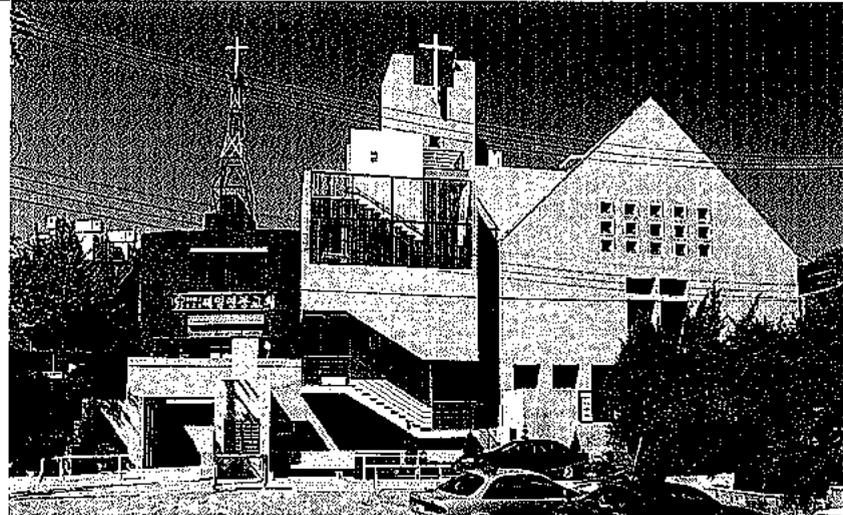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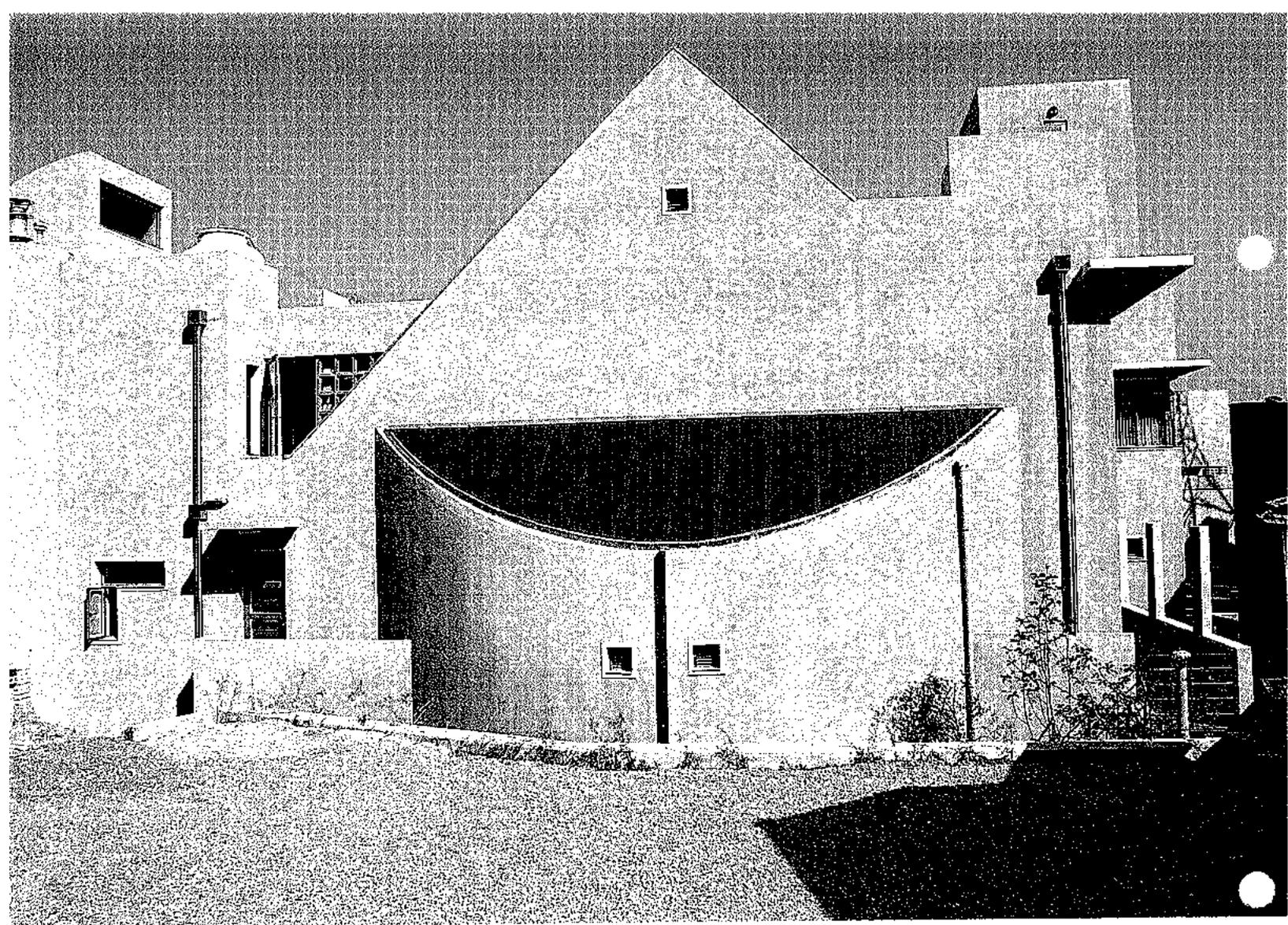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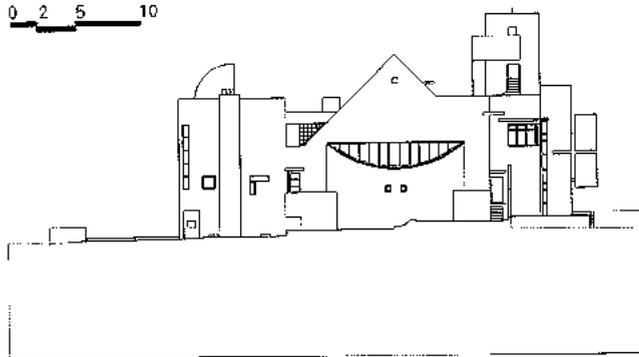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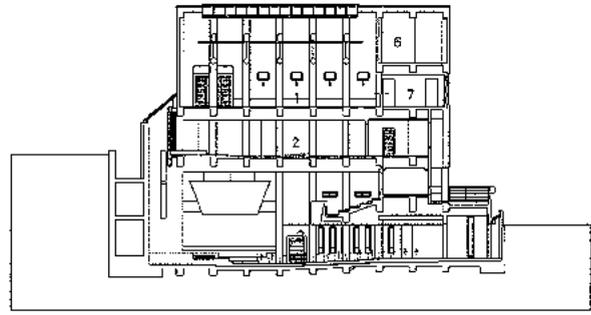
0 2 5 10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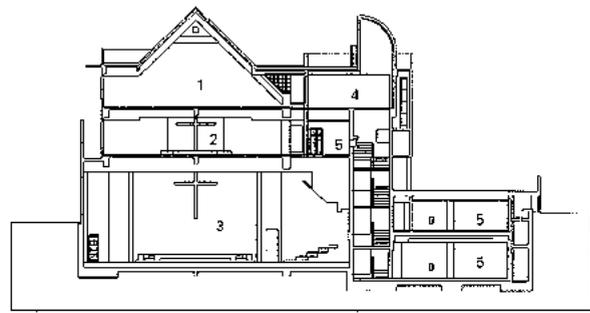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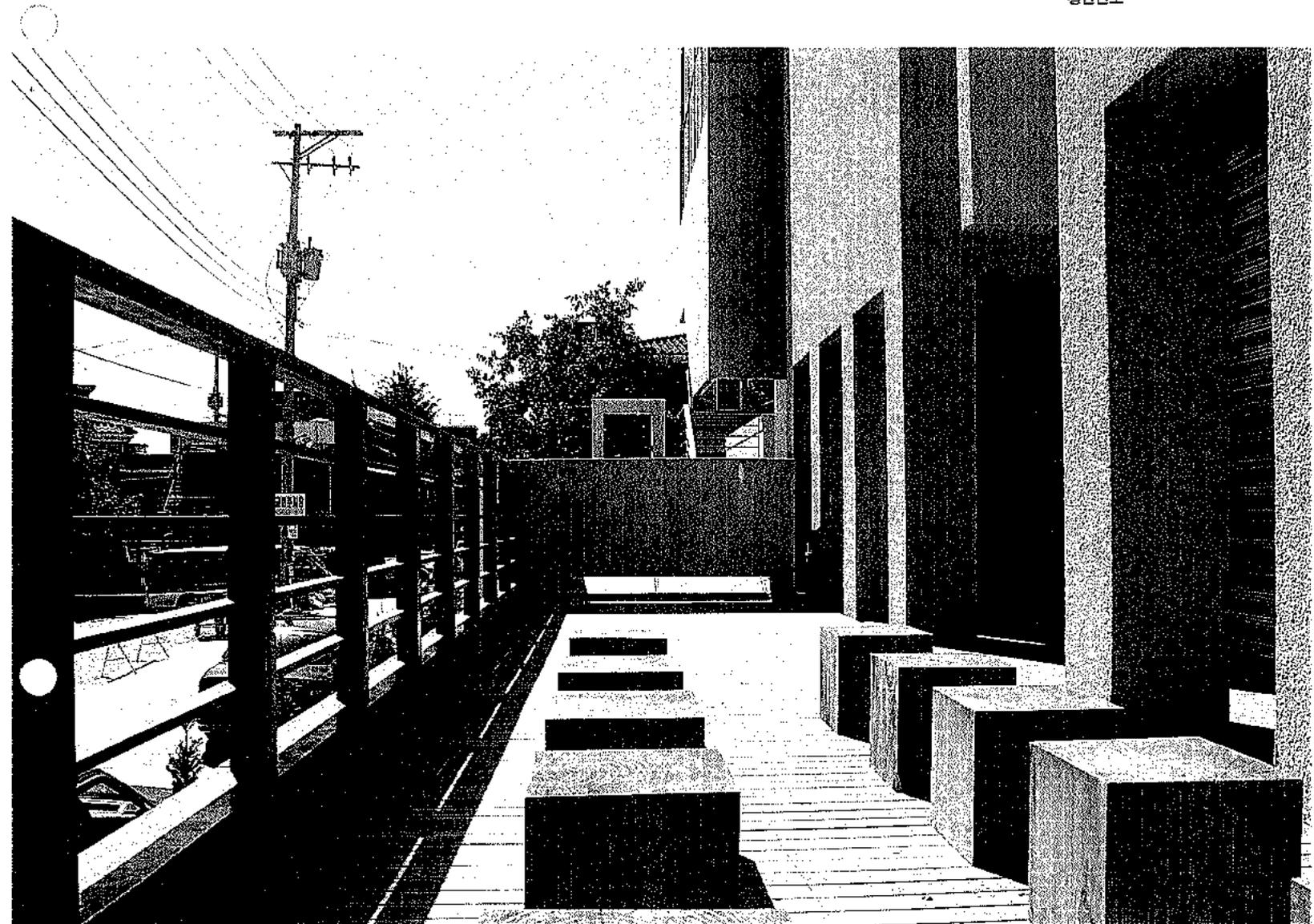
0 2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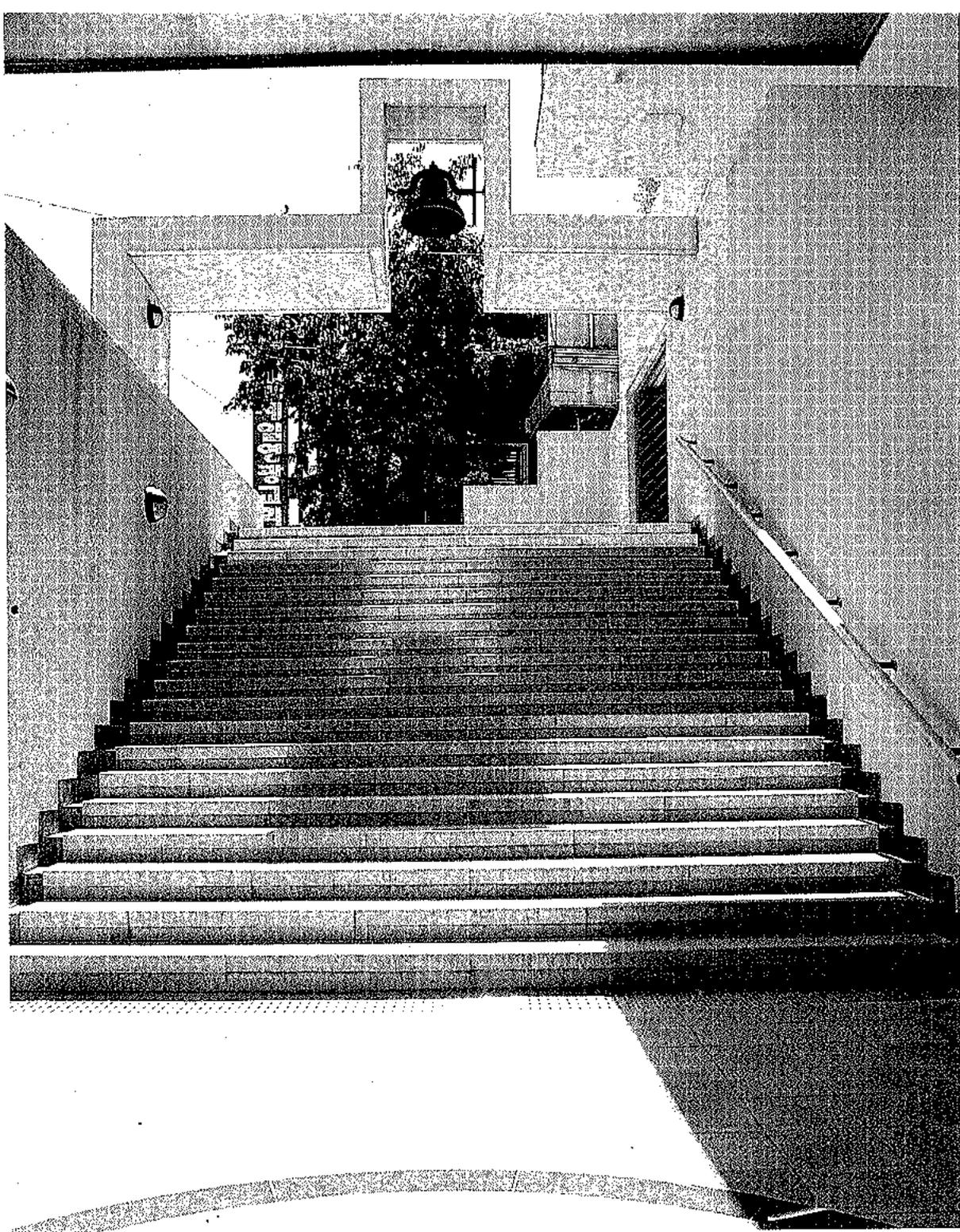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 1. 식당
- 2. 향고승부실
- 3. 예배실
- 4. 양회실
- 5. 무안상실
- 6. 불필교실
- 7. 주방





"The house of a man - an amalgam of body, heart and soul - builds a grand epic poem with one's life."

When we build a house from light and soil through our thought, expression and will, what is stored is not only the space but also a spirit of some sort that belongs to that particular house - some may be vulgar, square, clumsy, etc. But these spirits are only there, without demanding us of any deeds. They look upon us, and remind us of our origins, what we now are, and the bases of every life. This is done through the pure calmness of the house.

Jeil Yeongkwang Church is a product of my thoughts on the house - living, learning, playing, settling and wishing. The church is a house of wishing, which should teach

the people life's origins through the value of Chung, or purity, along with Hwa - joining, Myung - brightness, Rak - joy, Jung - rightfulness.

The site of the church is in the midst of a busy residential area, where the values of life are at once in sharp contrast and in close interrelations, relying on one another. It is the density of the region that makes it so. The object of this project was to reify the pure weight of the religious facility while placing it in harmony with the fabric of the given site.

In a place where the equilibrium of forces is achieved through the seemingly disordered penetration of a unit's environments into another, an insertion of a large building - be it a church, a place which should love and protect its neighbors, or

not - would cause a great change in the region. The solution could only be provided through the conversation with the area's residents, considering issues like light, landscape, noise and view which are all important factors in building an environmentally-respected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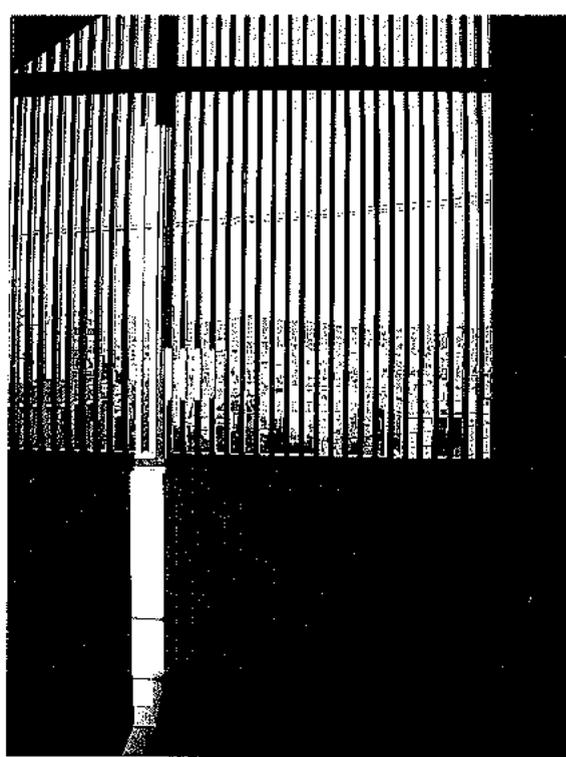
The volume was broken down to fragments to adjust to the adjacent context, while the entrance was made on many directions to enable casual approach from all areas. The exterior, reflecting the dominance of red bricks that compose the region, was finished with inexpensive white mortar spray-ons, and the addition of wood and exposed concrete helped to create an intimate and elegant atmosphere. As the six-meter-wide road of the residential area was rather confining, a spacious area with an open view was planned in the front of the church, where people and children can easily play or take a short rest. The holiness of the church is meaningless if it could not be reified in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This church, while small in size, should provide a central space to the community, enabling people to enjoy a well-arranged environment.

What had given me the most difficulty in the design process was the conflict of ideas concerning the cross. It may be a small problem, but it proved to be a crucial one to myself. The urban scenery at night is filled with red crosses almost profanely lighted by neon, as though they a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These, in my mind, are no longer a symbol of charity, but a representation of the commercialized church under the spell of capitalist society, where God is replaced with money and power as objects of worship.

Should the symbol of Christ be degenerated into a commercial advertisement instigating the consumerist tendencies of the people? The cross should be a product of wishes to hear the inner voices of the spirit, and a path to reach the soul within the physical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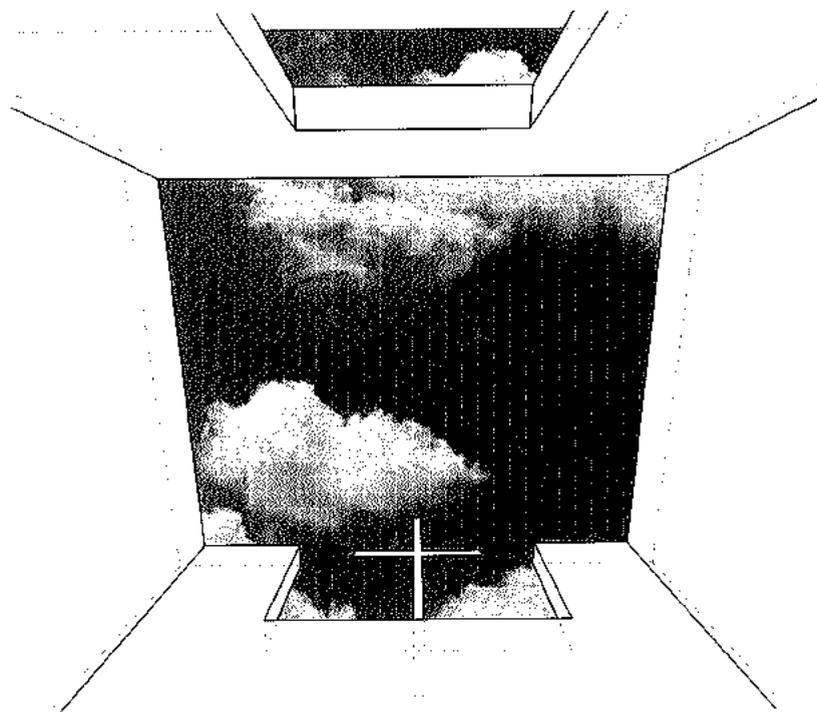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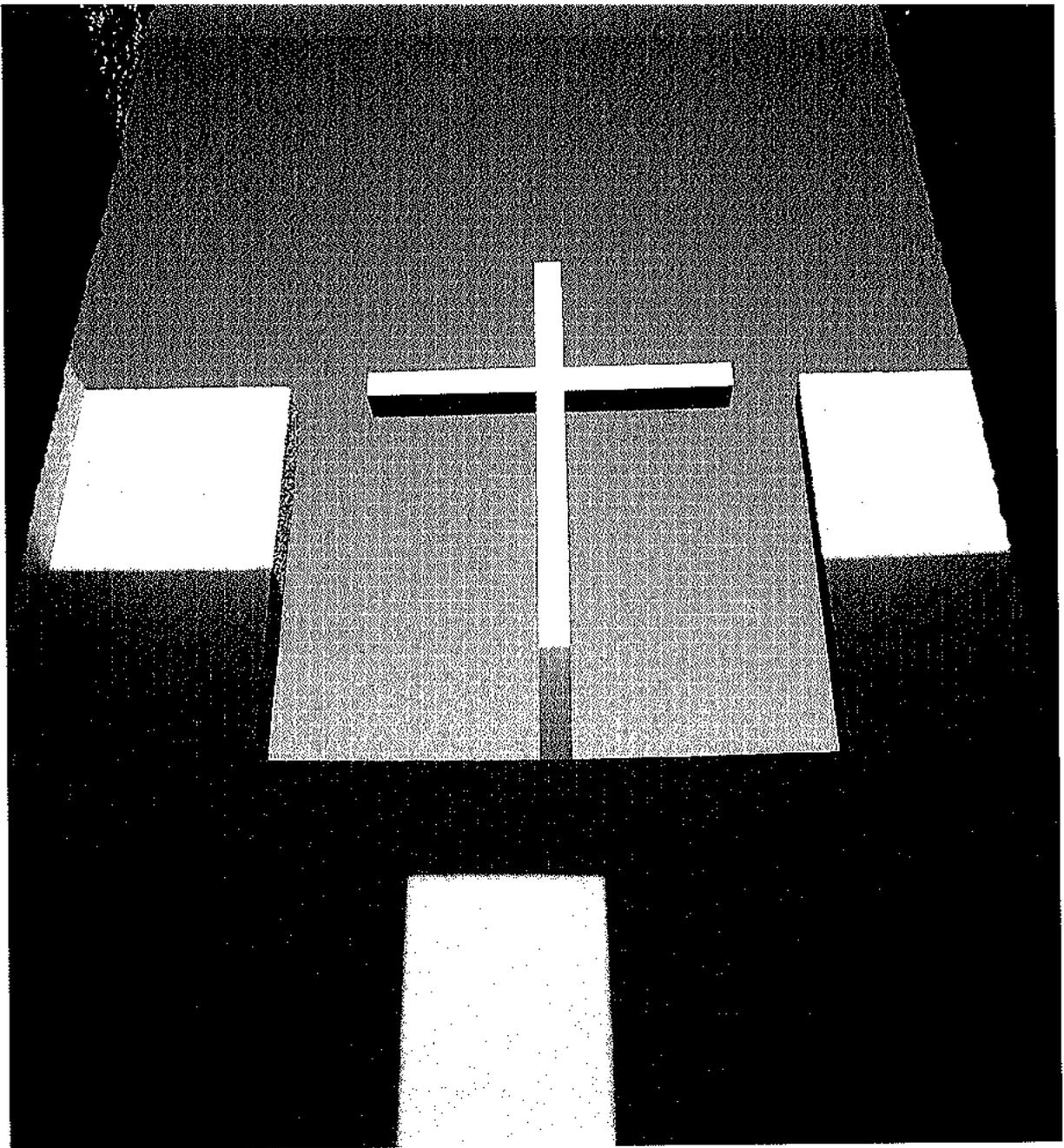
Though God may exist inside our heart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the holiness of the cross, and the sacred souls within things can be neglected. God is in every objects He has created, therefore every objects have within them a spiritual value. As trees and flowers have the appearances of their own, they also have the sacred spirits. A house should be a house, a church should be a church, and a cross should receive the respect that a cross deserves. If the cross should exist within our hearts, its symbol should vanish - this should be the right way to answer to heaven's gr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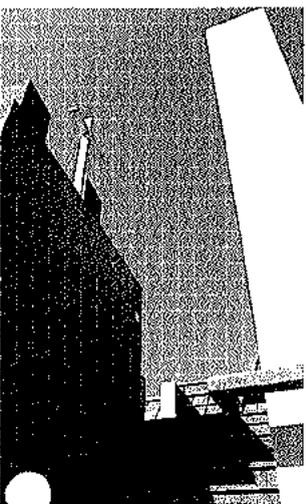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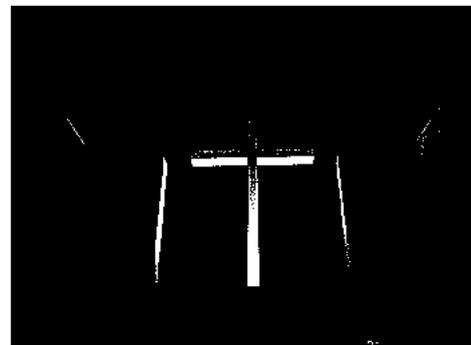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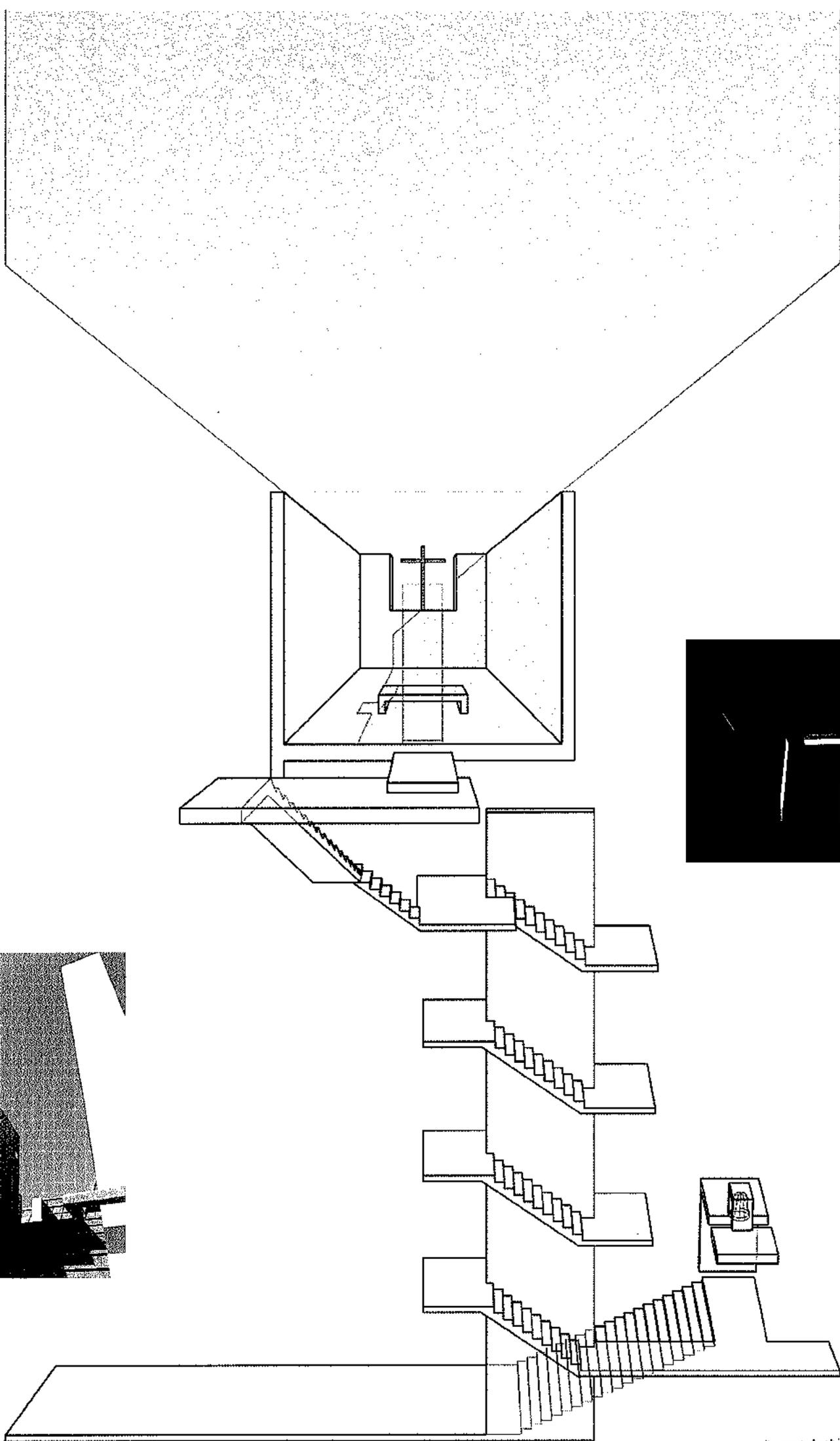
This new addition to the church is also a part of a long-term masterplan, where it should become an education center in the event of a new chapel's construction in the future. There is no fixed schedule for this, but the site of the current chapel will later serve as a center court. My new work will also be destructed someday. But in this church, confined in 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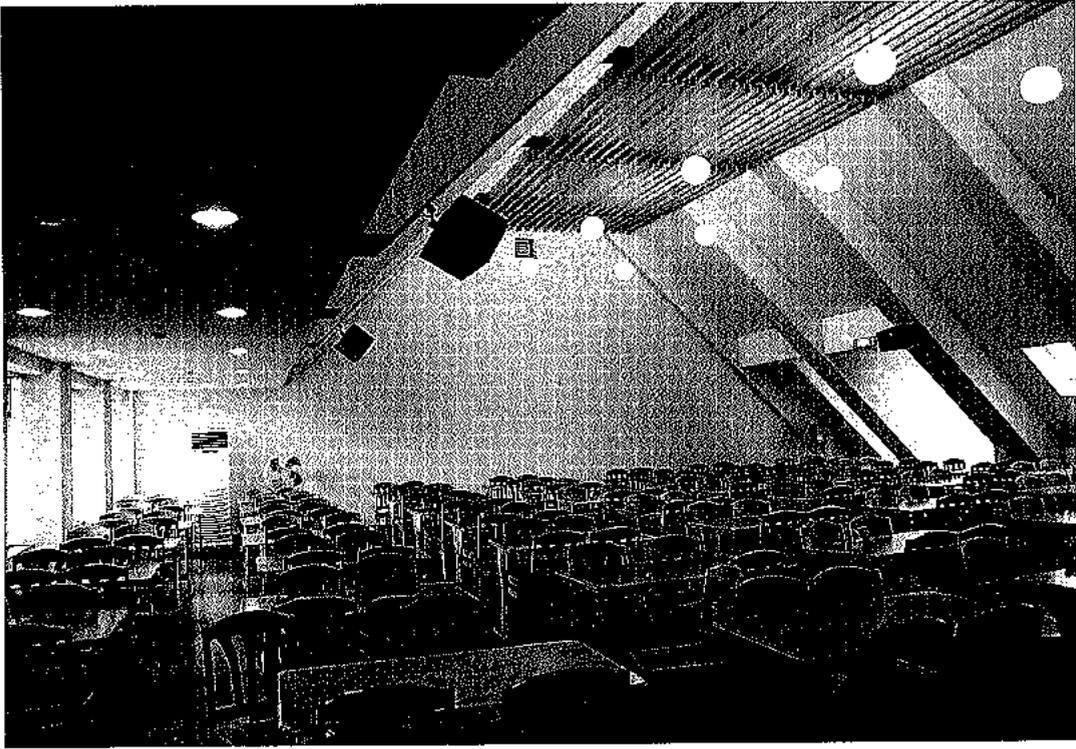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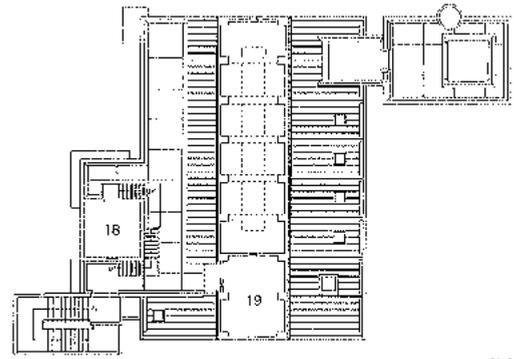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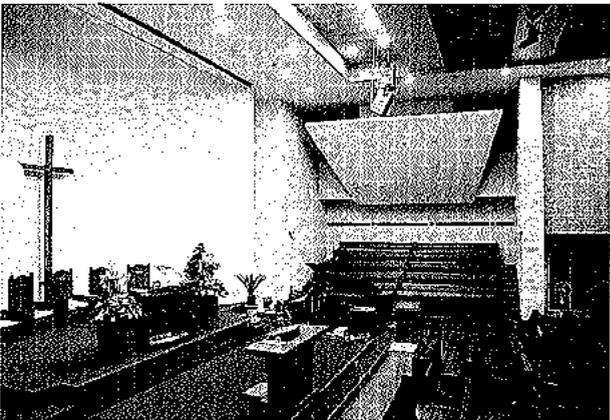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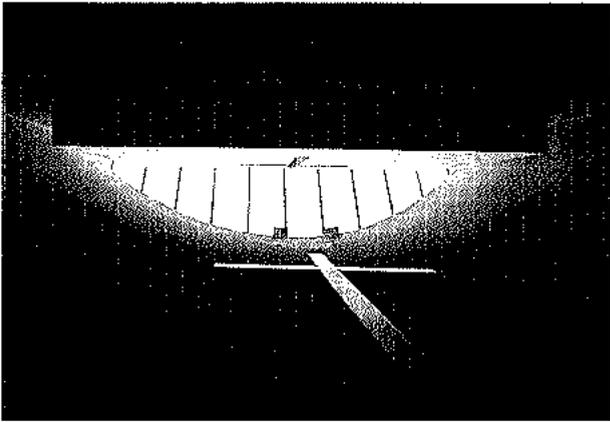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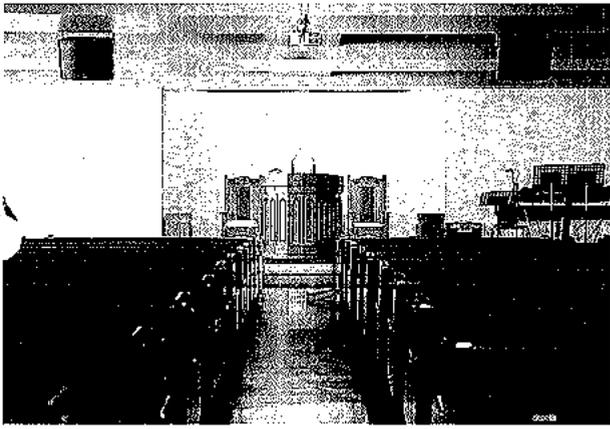
temporary existence, I have put most interest in a small space for prayers, with a cross, placed on the rooftop. As one ascends the main stairs, a view towards the neighborhood and Mt. Bukhan opens up and leads us to the rooftop, simulating the experience of a pilgrim at Golgotha with a cross. The place is only filled with sight of the open sky, in utmost silence. The origin of the universe will bless the place with rain, snow, wind and the view of stars. At times it may house no man, but even then the spirit of the church will dwell in that space. Small and modest, yet pure and serene...

<b>Location</b>	190-1 Yeokchon-dong, Eunpyong-gu, Seoul
<b>Area Classification</b>	Residential Area
<b>Program</b>	Religious Facility
<b>Site Area</b>	1,370.00m <sup>2</sup>
<b>Building Area</b>	Previous - 204.34m <sup>2</sup> , Addition - 447.26m <sup>2</sup>
<b>Total Floor Area</b>	449.98m <sup>2</sup> , Addition - 447.26m <sup>2</sup>
<b>Building Coverage Ratio</b>	47.56%
<b>Gross Floor Ratio</b>	89.40%
<b>Stories</b>	3 Stories, 1 Basement Floor
<b>Exterior Finishings</b>	Cement Spray-on, Exposed Concrete, Wood, Bronze Plates
<b>Interior Finishings</b>	Floor - Stone, Vinyl Sheet, Wall - Red Brick, Paint, Ceiling - Wooden Louver, Paint
<b>Design</b>	Kwon Oh-jin, Min Hong-ki, Lee Myung-joo, Kim Sung-jin, Kang Myung-sook, Chung Sung-woo, Yoon Jin, Chung Jae-il, Ahn Hee-suk, Choi Yong-joon
<b>Construction Management</b>	Yoo Sung-yul, Chung Jae-il
<b>Photographs</b>	Kim Dong-won
<b>Interior Design</b>	Maek Architects
<b>Mechanical Installations</b>	Hankook Engineerings
<b>Electrical Installations</b>	Wooduk Electrics
<b>Construction</b>	Wooyoung Engineerings
<b>Client</b>	Jeil Yeongkwang Church, The Presbyterian Christianity of Korea
<b>Design Period</b>	June 1996 - April 1998
<b>Construction Period</b>	December 1998 - March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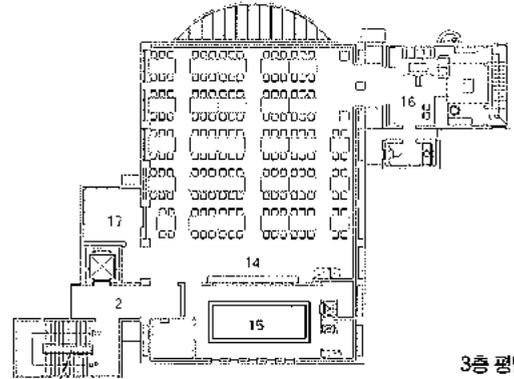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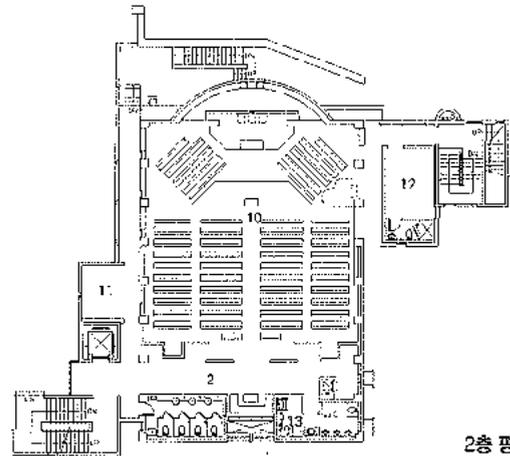




자등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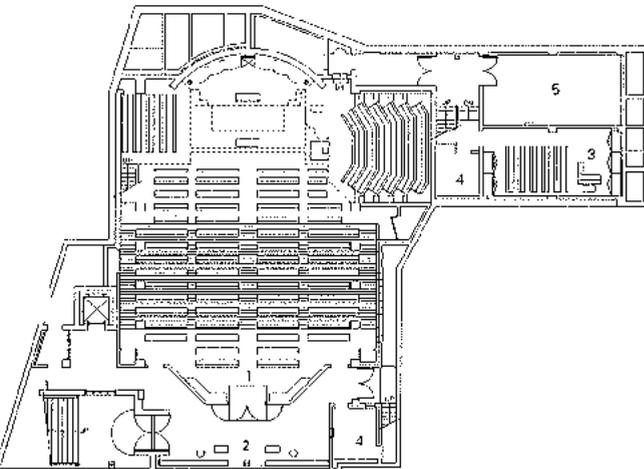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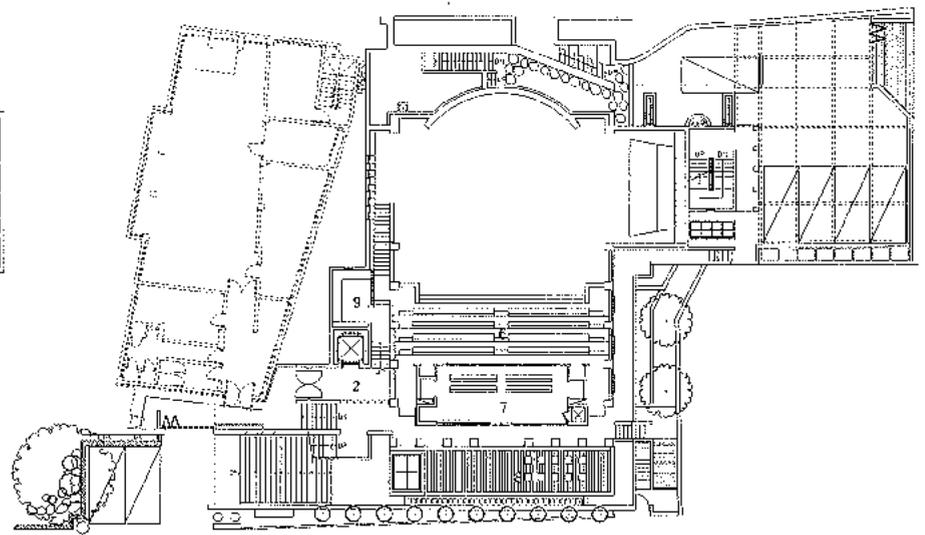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예배실
- 2. 층
- 3. 성가대인습실
- 4. 사무실
- 5. 보일러실
- 6. 종중여백실
- 7. 자오실
- 8. 데크
- 9. 방송실
- 10. 종교동부실
- 11. 분반실
- 12. 목양실
- 13. 장애자 화장실
- 14. 식당
- 15. 주방
- 16. 당회실
- 17. 다실
- 18. 기계실
- 19. 물탱크실

0 2 5 10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고요한 열정과 꿈꾸는 자의 눈

Silent Passion and a Dreamer's eyes

함성호 / Eon건축  
by Ham Sung-Ho

곽재환의 고요한 열정에 대해 생각한다.

대체로 그의 그림에는 붉은 색깔과 녹색 계열의 색조들이 많이 쓰인다. 선들은 거칠고, 힘이 넘친다. 그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한다. 소용돌이 같은 강한 자장들이 오래 그의 그림을 감상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가해진 거친 터치는 굽적하지 않고 세밀하게 여러 번 그어져 있으며, 소용돌이치는 강한 역동성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그의 그림은 얼핏 보면 폭발적으로 분출하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치밀한 선들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젠가 한 번,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필자는 거실에 걸린 그의 자화상을 본 적이 있다. 강한 눈빛, 갈기처럼 이리로 저리로 채여진 머리카락, 힘이 넘치는 수염을 보고 필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마치 바람 속에서 서 계신 것 같네요.”

그는 웃었다.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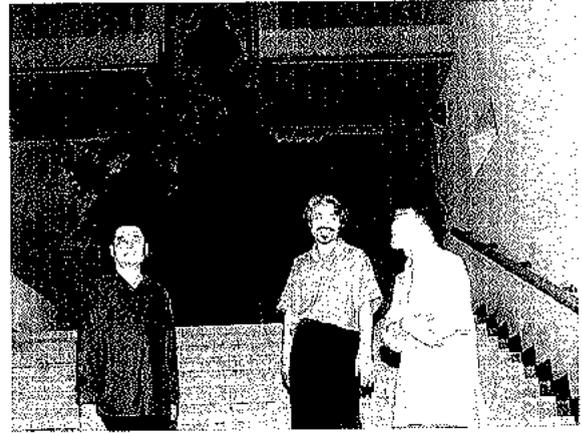
아마도 곽재환을 잘 아는 사람은 이, “그—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꽤나 다양한 쓰임새를 알 것이다. “……응?”이라는 말과 같이 적절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구사되는, 거의 의문형 어미처럼 사용되는 이 말은 때로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의 심경을 눈치채게 해주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어떤 작품을 보고,

“좋은데요.”

하면, 그는

“그—래?” 하고 응답하는데 이 말은 그런데 어떻게 좋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 그 질문이 보다 적극성을 띠면 “어때—, 응?” 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질문을 받는



대담장경 (왼쪽:김승귀, 가운데:곽재환, 오른쪽:함성호)

당사자는 좀 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답이 시원치 않거나 당사자가 묻는 질문이어서 접대용 멘트리도 하게 되면 그는 금방,

“그—래?”

하고, 어미의 강세를 흐려버리면서 곧 침묵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냥 대화는 일상적인 얘기로 옮겨가게 마련이다. 그 때부터 대화는 별 재미가 없어진다. 그의 무심한 눈이 상대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천진함으로 빛나는 때가 바로 그가 “어때—, 응?” 하고 묻는 순간이고, 그가 그의 건축에 대해 말할 때 나는 그의 자화상의 형형한 눈빛을 본다. 빛나는 안광. 그에게는 그런 광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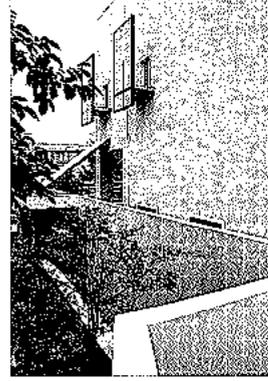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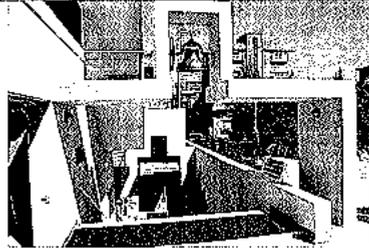
### 광기

별판한복판에꽃나무하나가있오. 근처에는꽃나무가하나도없오.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열심으로생각하는것처럼열심으로꽃을피워가지고섰오.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갈수없오. 나는막달아났오. 한꽃나무를위하여그러는것처럼나는참그런이상스런홍대를내었오. - 이상의 <꽃나무>전문 -

자신의 내면을 오래도록 지루하게 주시하는 인간들이 있다. 대저 풍경이란 내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욱 어두워지는 세계가 있다. 필자는 이런 시를 쓴 적이 있다.

(새는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골몰했길래  
저렇게 공기처럼 가벼운 날개를 가질 수 있었을까?)

곽재환의 눈은 그런 골몰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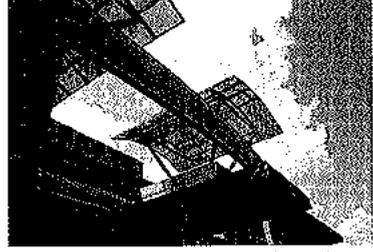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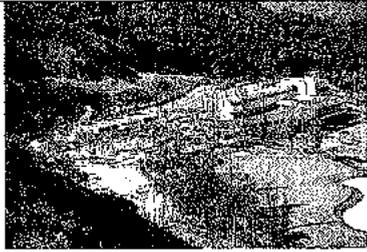
세일영랑교회

어쩌면 그에게는 외면의 풍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심지어 그가 창천을 바라보며 토하는 한숨 가까운 찬란에서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내면을 본다. 그는 하루 종일 그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의 스텝들은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다. 거기서 그는 끝없는 사색에 잠겨 시간을 잊을 때도 많고 아니면 끝없이 무언가를 스케치한다.(그의 스케치는 그대로 현장에 보내도 사공도 면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정평이 나왔다. 그것은 이미 그가 주어진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가 그의 사무실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는 중심이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광재 환은 우리 속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게 깔려있고, 열정적으로 무엇을 변론하는 일도 필자는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짧게, 그러나 단호하지 않게 답하는 그의 모습은 일견 답답하게도 보인다. 글썄, 그에게는 그런 잘 모르는 어두운 세계가 있다.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는 늘 오리무중이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적을 지레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광재환의 풍경에는 늘 고립과 고독의 냄새가 묻어있다. 그리고 그 고독에는 웬지 모르게 순교 받고 싶어하는 나무의 풍경이 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햇빛과 零下 十三度  
零下 二十度 地上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이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起立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霧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霧下에서  
霧上으로 霧上 五度 霧上 十三度 地上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 전문 -

이상의 꽃나무와 황지우의 꽃피는 나무의 풍경은 광재환의 내면 속에 다 같이 존재하는 다른 몸들이론다. 이상의 꽃나무에는 없는 황지우의 굵은 방향성과 황지우의 꽃피는 나무에게는 없는 이상의 분열이 광재환의 내면에는 동시에 존재한다. 말하자면 분열과 열정이, 어떻게 한 인간에게서 분열과 열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분열이 가짜든가, 열정이 가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분열은 집착으로부터의 도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재환의 내면의 풍경은 분열처럼 보이는 광기의 소산임이 자명해진다. 그렇듯이 건축에 대한 광재환의 열정은 광기에 가깝다. 그는 약한 인간이면서 독한 건축가다.



비전원스클럽하우스

곽재환이 김종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는 항상 몇 일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다 납품을 끝내고는 병원에 실려가 링거를 맞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에게 가졌던 존경심도 존경심이었던 것지만, 그 스스로 품고 있었던 건축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항상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 그의 그런 모습은 항상 스태프들에게는 하나의 경이였을 것이다. 그런 경이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의 일화는 곽재환이란 건축가의 외골수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역시 그 날도 몇 일 밤을 새우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시간은 새벽을 달리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지치고, 아마도 그는 예의 그 꼳꼳한 자세로 도면 위에서 몰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벽에 그를 찾는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어?”

“당신이야.”

“그랬어?”

“어.”

“갔어?”

“됐어.”

전화는 끊어졌고, 다시 그는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갔다. 이 짧은 전화 통화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스태프들 중의 하나가 무슨 전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응. 집에 도둑이 들었데”

그 때 스태프들은 질려 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는 이 시간에 당신의 전화냐는 거였고, “그랬어?”는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에 대한 대답이었고, “갔어?”는 그래서 도둑은 갔냐는 얘기고, 전화 할 정도니 몸은 상하지 않았으니 ‘됐다’는 얘기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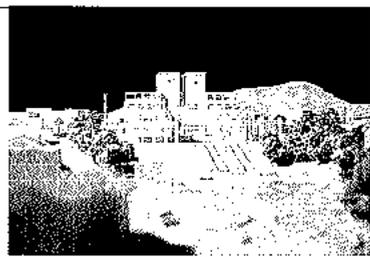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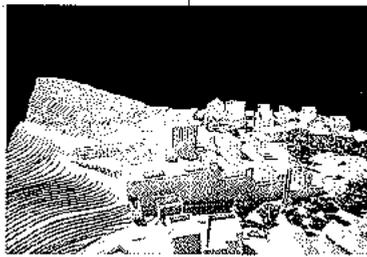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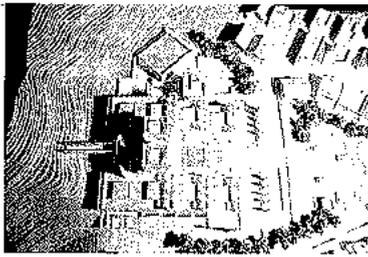
그런가 하면 또 곽재환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욕심은 유명하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거의 욕심에 가깝다. 아마도 한국 건축계에서 그처럼 많은 문인들과 교유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는 곽재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소설가 이제하, 박인홍을 비롯해서 시인 조병준, 박남준, 황인숙, 조은과 같은 문사들이 포진해 있다. 물론 곽재환이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애정과 그 스스로의 기질 탓이겠지만 어쨌든 그의 스승 김종업이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문학이 꾸는 꿈과 건축이 꾸는 꿈을 같이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자신의 내면을 드러다 보는 일에 열중해 있다. 외면의 풍경이 부채하는 건축. 글썄 그런 건축의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

### 초현실주의자의 풍경

그렇다면 그의 광기에 사로잡힌(이제 ‘형형한’ 이라는 형용사는 지워진다.)눈이 보고있는 풍경은 어떤 것일까? 어쩌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곽재환에게 있어 건축은 대지에 뿌리 박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면 그의 건축의 공간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모든 예술의 공간이 현실과 유리된 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곽재환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가? 곽재환은 이런 단어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화(和), 명(明), 락(樂), 정(正), 청(淸), 이들 다섯 가지의 가치를 내는 제각각 안식, 학습, 유희, 작업, 기원의 집에 필요한 내 건축의 정신적 지표로 삼는다. 그 중 화(和)는 나머지 네가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명락정청은 모두 화다. 화는 다섯 가



은평구도서관

지 격(格) 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이며, 명략정청은 그곳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화는 화의화, 명은 화의명, 락은 화의락, 정은 화의정, 청은 화의청이다.

이 고답적인 문장이 얘기하는 비는 결국 삶, 삶, 높, 품, 넓이라는 다섯 가지 단어가 표상하는 현실의 문제를, 화(和)명(明)락(樂)정(正)청(淸)이라는 형이상적인 문제로 환원해서 건축을 생각한다는 작가의 건축관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광재환 자신은 그가 화(和)라는 개념을 말하듯이 환원이 문제가 아니라 길항의 문제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광재환이 추구하는 불가능한 이상 일 위험성이 있다. 무릇 추락하는 의지는 한 세계를 버리기 마련이니까.

따라서 화(和)에 귀착되는 그의 논지와 달리 광재환의 건축은 빛에, 청(淸)에, 우주에 대한 물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그의 또 다른 표현으로 '누(樓)와 정(亭)'으로 드러나는데 이 주제는 비전힐스 골프 클럽 하우스에서도, 그리고 영광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탐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가 비록 '누(樓)와 정(亭)'이라는 우리 옛 건축의 어휘를 쓰고 있지만 사실 광재환의 '누와 정'은 성리학자들의 그것과는 달리 상당히 개인적이다. 그에게는 성리학자들의 격물(格物) 보다는 보다 직관적으로 우주 자체의 심상에 도달하고자하는 장소에 가깝다. 그래서 비전힐스의 옥상에 드리워진 날개는 거의 땅속에 파묻힌 건물의 본체를 마그리뜨의 그림처럼 부유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영광교회의 계단 꼭대기에 기도소 처럼 존재하는 장소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영원을 갈구하는 수도승의 사색처럼 침묵하고 있다. 얼핏 보면 대단히 힘차고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극한 폐쇄성이 깃들어 있는 것도 바로 본질에, 그의 표현

대로라면 '삶'에 다가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전힐스처럼 그것이 날개의 모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영광교회처럼 천장이 없는 박스의 모습을 하고 있든지, 단순한 격자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의 폐쇄성은 그가 추구하는 정신적 지향점과 닿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바로 그 비현실성에 광재환의 현실성이 존재한다는 이 극적 아이러니로 인해 그의 풍경은 초현실적인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사실 초현실적인 풍성함이란 폐허의 현실과 다른 말이 아니다. 항상 초현실주의는 폐허위에서 구축된다.

그 폐허는 비전힐스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나타나고, 영광교회에서는 삶의 문제로 나타나며, 드디어는 은평구 도서관에서 그 자체 폐허로 나타난다. 폐허위에서 구축되어지는 건축이 무엇이겠는가? 은평구 도서관은 거대한 신전처럼 서향을 하고 앉아있다. 거대한 하나의 폐허가 인류의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광재환은 오랫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기다려 왔다. 그는 오랫동안 직관이, 한 소식이, 무엇이 스스로 그렇게 올 때까지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지냈던 것이다. 필자는 그런 그를 십 년 동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건축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마도 거꾸로 그는 필자에게 시를 얘기하고 필자는 그에게 우리 건축 현실에 대한 단상을 말하곤 했다. 간혹 그가 필자에게 시를 읊어 주었고, 필자는 노래를 불러 주었던 것 같다. 필자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광재환도 기억하지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풍경 속에는 늘 가득한 하나가, 푸른 바다처럼 넘실대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 생성의 건축, 그리고 되어지는 건축

## Becoming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Bec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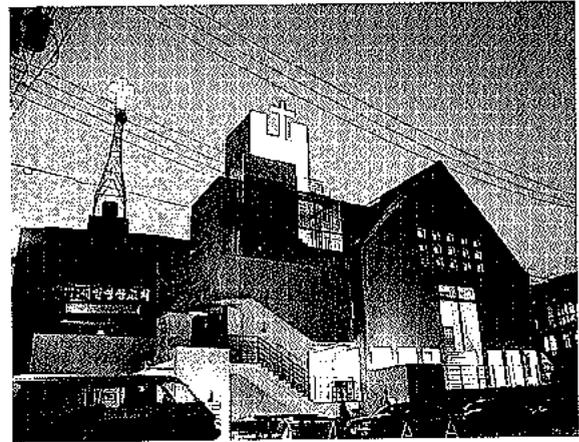
김승귀 /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  
by Kim Sung-Guy

### 들어가는 글

은평구 역촌동의 다옥한 주택가 한가운데에 새 교회가 들어섰다. 이리저리 굽은 골목길을 한참을 찾아 마침내 제일영광교회라고 씌어진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내집 같이 아늑한 느낌의 첫인상을 맨 점으로 얻었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기분으로만 비평이라는 글을 작위하기에는 내가 가진 편협한 논리성의 우리속에서 허물거리는 반항들이 좀처럼 가지지가 않았다.

참으로 우매한 인식이다. 고작의 짧은 식견이 주는 테두리로 지금의 사람이 하는 추상의 감흥을 이런 저런 이유로 정의(定議)를 내리고 진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한 손에 쥐기조차도 힘든 두꺼운 사전 속에 빼곡이 적혀있는 수많은 정의(定議)내림들이 과연 우리의 인식을 돕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인식놀이 같은 유희의 희롱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무상(無常)스럽다. 숨이 가쁘다. 그런데도 이왕에 내게 맡겨진 글의 책임을 해야하는 의무에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절기제도 미루어 왔던 지면 채우기 글 박음질을 시작하기로 했다.

바라건대, 필자의 부끄러운 글을 훑어 내리면서 구태여 정의(定議)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하나의 교회를 그려 내어줬음 하고 바란다. 그리고 연상되는 그 교회가 나의 진위로 판독되기보다는 '나로 되어지는' 교회 한 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감히 이야기하건대 객체 환소장이 곧잘 이야기하는 형(形)과 상(象)의 건축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첩경(捷徑)의 험가지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세악영광교회

### Introduction

There is a new church in a dense residential area of Yeokchon-dong, whose name plate we can see after a walk through the town's swirling paths. It had a home-like feel to it, which made me delighted. This emotion, however, could not be the basis of my review, since the logical self, though limited, begun its own function within my mind. It may well be absurd to define our many abstract emotions in certain categories our minds have created, and all the words contained in our invention of a thick dictionary may be, contrary to our belief, an obstacle to our recognition of the world.

It is my hope that these words of criticism should not be sought for definitions. Instead, it should hopefully draw in the minds of the readers a picture of a church - a church that isn't interpreted through my judgement but one made through 'oneself.' This may be what architect Kwak J-hwan, creator of this work, often has called chumkyung, judgement made by looking into an architecture of 'form' and 'figure.'

### A House for Living and a House for Praying

What is it that sets this church apart from other religious facilities? First of all, it is located among the houses of various shapes of the town - a town church, indeed. This pleasant

## 사는 집과 기도하는 집

이번의 교회가 여타의 것과 우선적으로 차별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지만, 그러보건대 그것은 오밀조밀 튀쉬인 우리 동네벽에 있는 동네 교회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동네 교회', 이름이 즐겁다. 단박에 친근감이 들면서 이런저런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간혹은 그것이 '교회 동네'로 탈바꿈시키는 역지의 힘(?)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건축이 유추시키는 맥락(context)의 질과 형식주의(formism)의 창조라는 양자적 선택이라는 적당적(適當的) 선택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의 교회는 과연 어느 수식어가 그 모습을 그려내는 교회의 「터」일까?

일면, 필자의 다분한 주관에서 도안되는 청사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양쪽 전부도 아닌 오히려 그 둘의 틈새에서 「결국」으로 생성되어지기를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칫 이것을 오역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특이한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지는 특이성일 수도 있다. 즉, 구조의 분절과 절제로 동네 기슭이 가진 맥락의 질을 상승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른바, 타자(otherness)화된 교회의 분절된 조형이 동네의 불규칙스런 이엉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임상적으로 말해, 이번의 교회건축에서는 들려준 민원의 소리와 교회건축주, 그리고 건축가의 고민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한 것은 교회가 가지는 공간의 프로그램에서도 여실히 잘 나타나져 있는 것 같다. 우선 이 교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특히 교회 왼쪽에 서있는 기단은 외부에서도 접근함이 막힘이 없어, 동네 골목길으로 들어섰다가 울적한 마음에 한번쯤은 그곳에 훌쩍 올라, 불편한 심기를 다스려 봄직도 하겠다. 그리고 교회 본관 앞면에 마련되어져 있는 데크와 그 앞의 공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터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동네사람들의 기우가 한결 견히겠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신성함과 예배, 전교, 행정사무, 선교, 교육 공간을 위한 현대교회기능공간의 구현적 노력이 무시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대지가 가진 수직적 층을 심분 고려하여 기단 끝에 내려진 예배당의 지하층 출입구가 배면부의 천창으로 이어진 빛돌림으로 교회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한 것 같다. 그리고 회중석(Nave)의 동선과 성가대의 동선을 따로 두어 교회 예배공간의 기

expression is appropriate to deliver the sense of friendliness it provides. In some instances, however, the church discloses aspects where it seems to try too hard to become the town church, which may have stemmed from the architect's choice between the quality of the context and the creation of form. Then what could be best to justly describe the position of this church in this situation? It could be a subjective view, but isn't the church content with being inside the crack between the two opposing values, awaiting the final result to appear?

This could in turn be misinterpreted as valuing this church with no characteristic at all. But on the other hand, this point may well be the very characteristic of this work - through the articulation of the structure and modesty, it enhances the quality of the context in this town hill. The so-called otherness of the church's articulated form is in smooth connection to the irregular shapes of the region's houses. By impression, this church seems to be presenting a solution to the requests of the users and the client, and thoughts of the architect combined. This fact can also be read in the organization of its space programs. To start with, the church is open to all directions, from which it can be entered. Especially, the base on the left of the church can be approached without any obstacles, inviting anyone who needs a place to calm down his/her uneasy feelings. Children, now able to play in the deck and plaza in front of the church, are also given, as well as their parents, a meaningful presen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holiness or the various basic functions of the church are neglected. The chapel, whose entrance is made to the underground in reflection of the site's vertical layers, is linked to the clerestory and together add to the weight of the church's atmosphere. Also, the circulation of the nave is separated from the path of the choir, and succeeds in fulfilling the functional and spiritual demands of the chapel space.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architect to suggest some kind of newness to church architecture, since it is deeply drenched in religious conservatism. It is further unlikely that he can provide an alternative program to the chapel space. The only choice for the architect is to choose from the various examples throughout history which follow the basic composition

능과 만족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도 엿볼 수가 있다.

사실, 교회의 종교적 보수성인에서 건축가가 취할 수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예배 공간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이라는 것은 과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것이다. 회중석(Nave), 성가대석, 강단(Chancel)으로 주로 구성되는 예배공간의 계획에서 건축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란 미리 정해진 보기에서 그 범례를 찾아야만 하는 한계적 상황이 빈번하다. 그래서 인지, 다시금 건물 왼편에 자리하고 있는 시각의 기단이 더욱 더 눈에 들어온다. 계단을 오르면서 일정한 시야의 가림은 회자로 하여금 얼마간의 기대감과 보상심리를 충족시켜 주고 자극하고 있는 듯하다. 여타의 마냥 우뚝 선 교회의 꼭대기의 멀어짐과 이질감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그것을 한층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신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면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생성의 건축

곽재환소장의 건축적 화두는 무엇일까? 십수년 동안 그가 보냈을 건축적 사유에 비한다면 지극히 부족한 필자이지만, 그가 보낸 세월과 고민이 있으므로 그냥 스쳐 지나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난색이다. 한번의 그와 만남과 글 몇 편을 읽고 그가 보낸 세월을 넘기기에는 다분히 작위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축이라는 객관과 주관의 경계가 지극히도 모호한 것에 단지 주관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불리 말하기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이른바 그가 이야기하는 형과 상의 건축, 건축의 영혼들... 그것은 어쩌면, 지금 필자가 난색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법도 하다.

즉, 그는 그것으로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적 벽을 넘고 싶은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 스스로가 「형상은 주관과 객관이 작성한 좌표점이다」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그것을 「생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본다. 물론, 그것 또한 단지 필자가 가진 주관의 근거적 사유이겠지만, 필자가 가진 글 목적이 읽는 이들에게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한편의 그림이라도 연상시켜 주는 게, 비록 일말의 치부 속일지라도 내 말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솔직히 말하건대, 필자로서는 그가 이야기하는 추상의 감흥은 확연히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회를 보고 그것이 어렵듯이 연상

of the nave, the choir and the chancel. This acknowledgement, however, directs our attention to the base on the left, mentioned above. It partly blocks an approaching person's view, inducing him/her to have pleasant imagination of where the stairway will lead to. Quite different from other church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distanced and awkward towers, this one seems to be close to its users. It proposes a new dimension to the age-old concept of the church's holiness.

### Becoming Architecture

What is the main subject of architect Kwak's works? Since many decades of his career must have given him insightful view on the world of architecture, it would be unauthentic of me, with relatively less years of experience, to judge his decisions. Though I have had the chance of coming across some of his writings and have met him once in person, there is the intrinsic danger of laying my own subjective point of view on something where the line between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 can only be obscure. I am therefore reluctant to define anything. On the other hand, the main subjects of Kwak's thoughts - the architecture of form and figure, the spirits of architecture, etc. - may have stemmed from the very problems which I now face.

That is, he may have wished to overcome the dichotomic wall between the object and the subject through this problem. In fact, he has once written, "a figure is a point in the matrix of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I would like to express this in the word "becoming." There is only my subjective point of view to back up my suggestion, but considering that my task is to provide the reader with an image in the least, I believe my intention can be justified. Frankly, I cannot clearly comprehend what Kwak means when he speaks of "empathy of abstraction." But on the other hand, a visit to this church provides an obscure hint to that question. It is true that Kwak's first remarks on form and figure reminded me of the theory of Alan Colquhoun, but I believe it will be more sincere to approach these issues and the becoming of architecture through an open mind than to rely on a

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맨 처음 그의 건축적 화두를 들을 때 문득, 서구의 건축이론가인 알란코룬이 언급했던 형(form)과 상(figure)에 관한 이론서가 답습처럼 연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퀴스레 여기에 걸맞지도 않을 서구 건축 아카데미즘으로 치장하는 멋스러움에 도취되어 우를 범하기보다는 답습한 마음으로 그의 형과 상의 건축, 생성의 건축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해 본다. 그것은 아마도 단지 건축의 형태에만 그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고민하는 주관과 객관의 좌표는 사람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이 느끼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그 대상물인 건축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타자 화에서 그 생성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인지 조각조각 분절되고 절제된 교회의 파편 덩어리가 주변의 맥락에 흡수되어 다시금 모아지는 것 같다. 즉, 주위의 맥락의 질에 의해 그의 건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그것은 우리 동네가 가진 정겨움에 때로는 동네교회가 되고, 때로는 교회동네도 되고 하는 것도 같다. 물론, 이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해석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면, 되려 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말이라면, 무조건 결과의 실체물만을 놓고서는 그것이 가진 보편화의 따짐만을 묻는 것은 일종의 힐끔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교회가 총체적으로 사회성의 담성을 지니고 있는 선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하고자함을 구태여 흘려보내기보다는 오랫동안 주시할 수 있는 고안의 눈을 가져도 될 법하다.

끝으로 그의 교회를 그리는 데에 혹은 도움이 될까 하나의 행렬문제를 남겨 볼까한다. 이것이 구태여 공간의 매트릭스는 아닐 수 있다. 그냥 일말의 재미를 느끼는 흑세무민(?)의 문제라 생각해도 좋을 법도 하다. 하지만, 한번쯤은 곱씹어 볼만도 하다. 주관과 객관의 좌표라는 것을.

※다음의 행렬도가 가진 경우의 수는 몇 개 일까?

$$(1(2(())1)2)$$

### 건축가란 이름

지금껏 필자는 고의적으로 교회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 십자가에 관한 말을 아꼈다. 그것은 이 글을 마치면서 당부적 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려낸 이 교회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소박하다.

fraction of Western academism. The issues suggested by Kwak, the coordination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is not limited to the forms of architecture, but includes the people who occupy them. For example, the principle of becoming can be found in the irony that what people feel can be considered most objective and the object of architecture most subjective. In this view, the articulated yet modest fragments of the church seem to be integrated through the site's context - in other words, the architecture is vitalized by the quality of the site's surroundings.

The friendly and intimate atmosphere of the town makes the church the "town church," while the presence of the building makes the village a "church town." Of course, this interpretation may well be a result of one's own subjective views, but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architect, which is surely more virtuous than wicked, it would be too confining to judge the work only through the final result and reproach it with its commonness. If the building is a product of the creator's social consciousness, we should view it with a penetrative and affectionate eye.

To give the reader a clearer picture of the church, I would like to present a mathematical matrix - which is not necessarily one for the matrix of space:

$$(1(2(())1)2)$$

How many set of numbers does this matrix provide? This may well be a coordinat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 The Profession of an Architect

Until now, I have intentionally refrained from mentioning the issue of the cross, which may be the centering object of a religious facility. This was because I wanted to end this review with a word of request.

The cross Kwak has provided to this church is in a sense quite humble, yet there is a lasting quality to it. The metaphoric reflection of the cross's light and shadow makes us feel at heart the holy sacrifice made by God. While most other crosses of other churches, so eccentric and secular, shaped by

하지만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지극함이 있다. 반사되어 은유되는 십자가의 빛과 그림자는 신의 희생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해준다. 핏발선 빨간 네온의 여타 십자가는 당시 처절했던 피내음을 연상시켜주는 과격함과 세속함이 묻어있다면, 이번의 교회십자는 그가 부활했음을 믿게 해주는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도 같다.

하물며, 그런 당연이 건축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기까지 이만 저만 만만찮은 일이 아니었을 성싶다. 건축가란 직업, 참으로 고달픈 것임에 틀림없다. 서비스업이 아닌 서비스업.

그러면서도 사회의 질을 가장 책임있게 담당하고 있는 이중적 희생과 책임 속에서 우리 건축가들은 항상 힘들었다. 국회의사당에서 의도에 없던 동이 현역의 원에 의해 강요되었던 시절, 우리는 그때의 척박한 시절을 탓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수십 년을 지나왔지 않았는가? 달라졌는가?

교회의 십자가가 다시 빨간 네온으로 교체될 것도 같다는 이야기를 귀뜸하여 들었다. 내일 모레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구경 갈지도 모르는데, 빨간 네온의 십자가 간판을 보고 무어라고 이야기한담. 난감하다. 얼른 해줄 말이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냥 답답하다.

## 나가는 글

건축가 관재환은 유독 한국의 냄새가 짙다. 그래서 그의 고민과 귀추가 무척 기대된다.

이제 우리의 땅도 좋은 건축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건축여행이 즐겁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좋은 것을 성하는데에 누구 누구 것이 무어 필요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건축은 언어와도 같은 문화적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와 지역의 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체주의자들의 건축 식민적인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건축을 위한 고민은 어디쯤 와 있는가? 남발하는 서양의 건축적 사유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한번쯤은 의구심을 품을 만도 하다.

슬며시 이번의 교회가 한국현대건축의 한 흐름의 장으로 포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

the red neons, remind us of the bloody reality of the old ages, this one has the sacredness which hints us the resurrection of God.

It is evident that the path the architect has gone through to achieve this effect was not an easy one. The life of an architect has always been so - a service that isn't received by the general as such, yet is responsible so much for the cultural quality of the society. The weight of double sacrifice was further added with incidents like the demand of a politician to add a dome to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which wasn't in the architect's plan. We had blamed that era for such disrespect - but now, decades past that times, has anything really changed?

I've come across a rumor that the cross of this church may be covered with a red neon, just like those of other churches. With a plan to revisit this place in a few days with my students, this came as a shock. I do not know how to explain this to my pupils if it actually happens.

## Conclusion

There is a strong sense of what is truly Korean in the works of architect Kwak, which makes us all the more curious of his thoughts and future works. We may now proudly say that there are a great number of meaningful works of architecture in this land. The joy of traveling through this country is that much enhanced.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a number of works remind us of someone other's we have come across in the past. Some may argue that a good thing does not require to be classified into certain nationality, but architecture, like language, is a cultural heritage. It stores the spirit of a place and its history. Therefore, what is ours should truly be ours.

In an era where multi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is dominant, we may be looking over too many issues of this profession. What we are accustomed to may be a thoroughly western way of interpreting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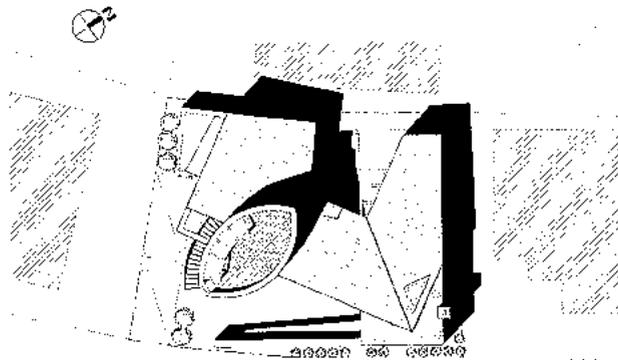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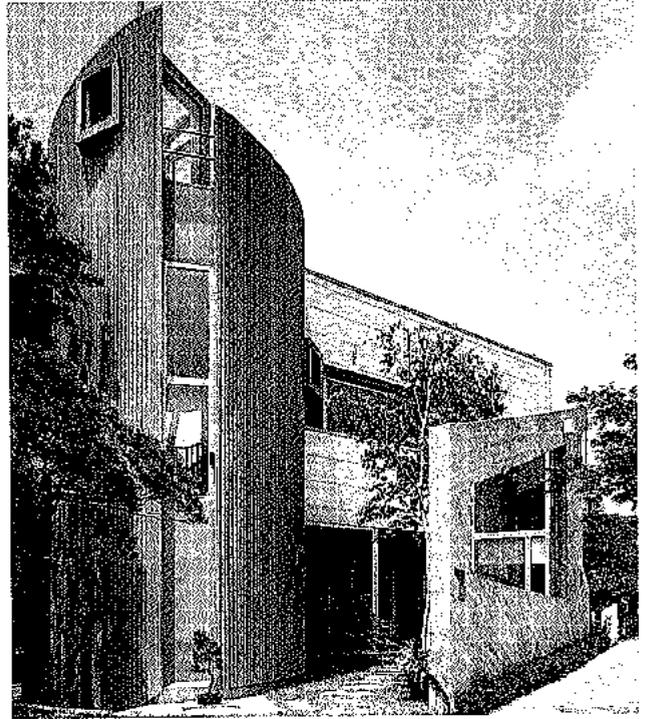
May this church mark a meaningful spot in the evolu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 일산주택 II Ilsan Residence II

임재용 / 건축사사무소 O.C.A  
Designed by Lim Jae-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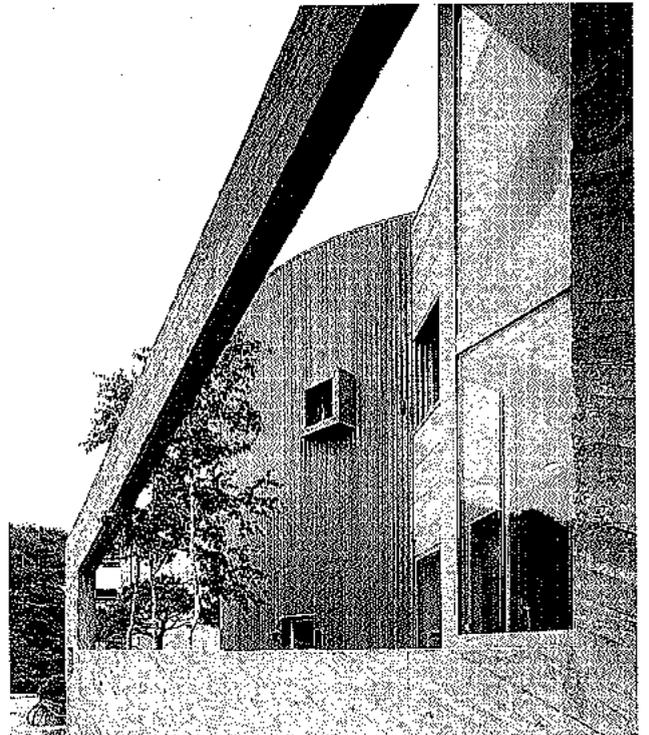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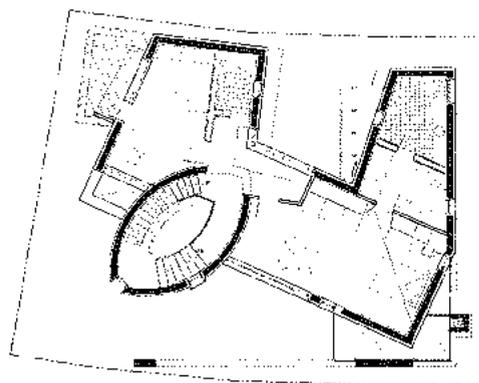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07-6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266m <sup>2</sup>
건축면적	130.28m <sup>2</sup>
연면적	319.54m <sup>2</sup>
건폐율	48.98%
용적률	84.65%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9m
외부마감	벽 - 시멘트 베이스패널, 라인징크 골함석판,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지붕 - 라인징크
구조설계	하우구조
전기 및 기계설비	지현기술사사무소
창호	신탁스 코리아
설계담당	조재천(프로젝트 디자이너), 김민규, 양근영, 성인석, 김지현
사진	김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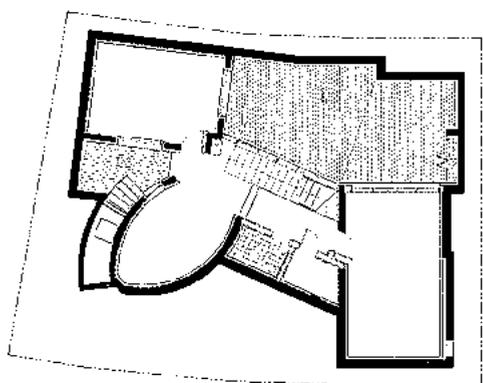
0 1 3 6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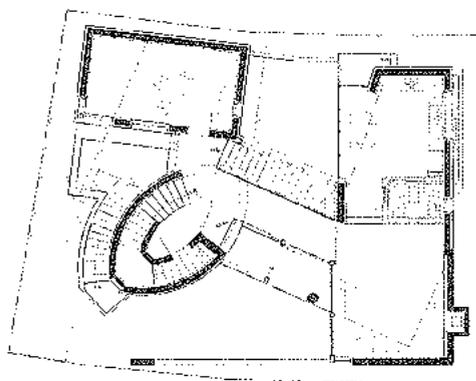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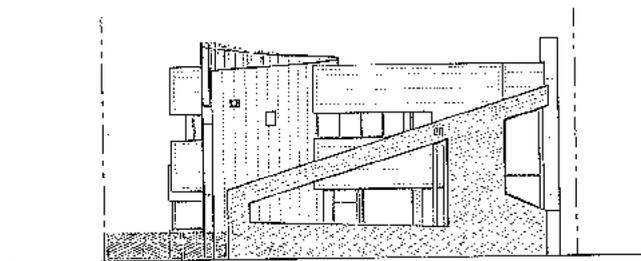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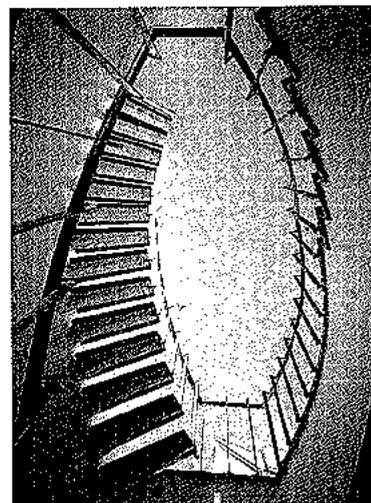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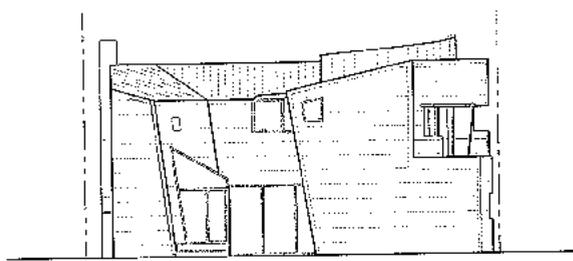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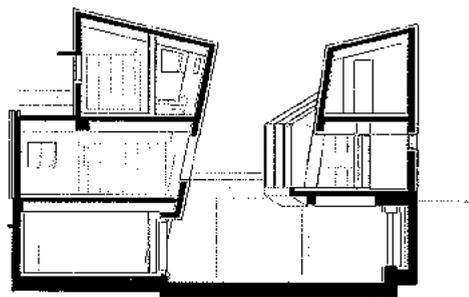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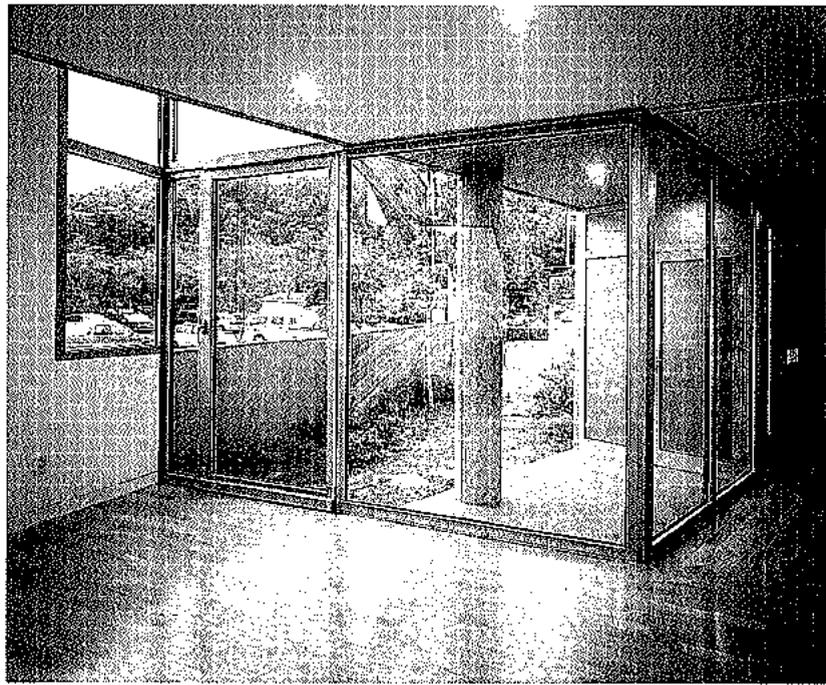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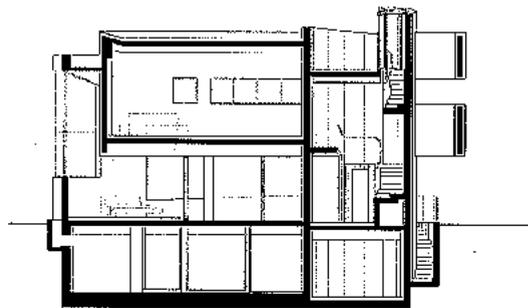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북측입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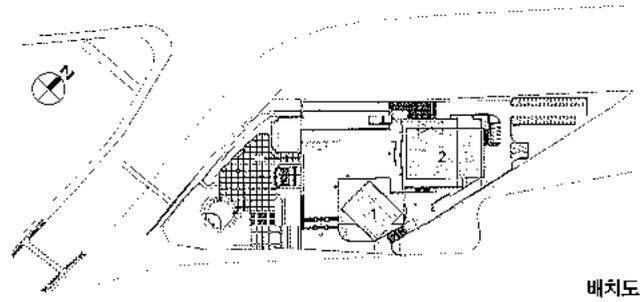
# 금정문화회관

## Keumjung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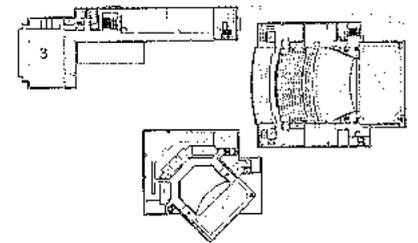
이용흠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eum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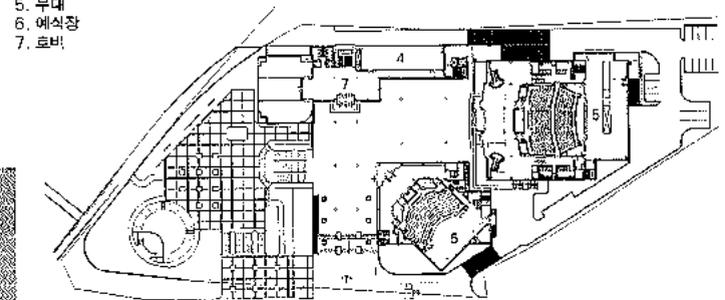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8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미관지구
용도	관람집회시설
대지면적	15,686.29m <sup>2</sup>
건축면적	6,524.29m <sup>2</sup>
연면적	16,453.07m <sup>2</sup>
건폐율	41.59%
용적률	76.26%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최고높이	27.89m
주요마감	외장 - 화강석버너구이, 알미늄복합판넬 내장 - 화강석물갈기, 분파일
설비	보우설비
전기	지화에너지니어링
조경	서인조경
시공	(주)태영
감리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기간	1995 ~ 1996. 2
공사기간	1997. 1. 1 ~ 2000. 3. 31
건축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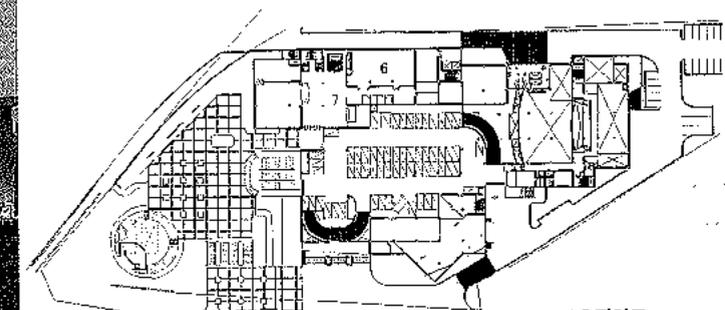
배치도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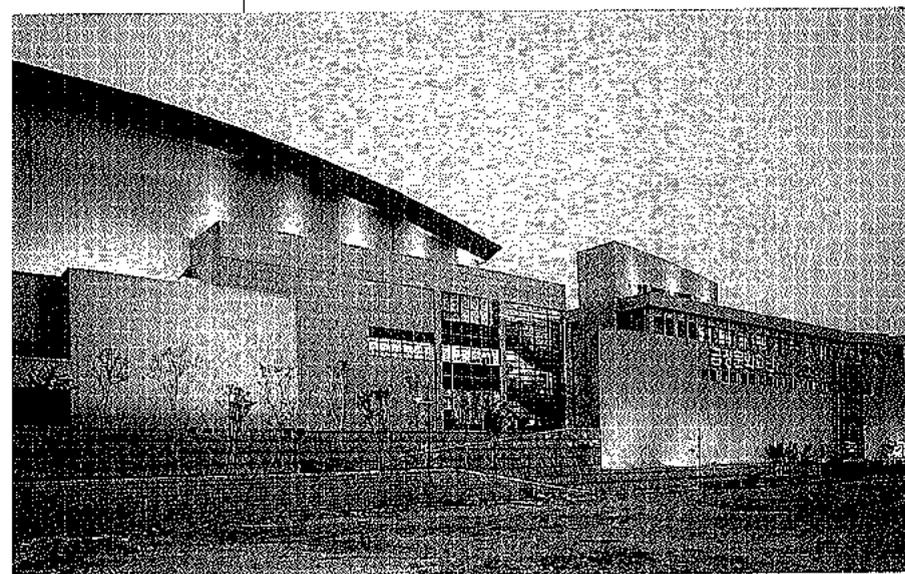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1. 소공연장
2. 대공연장
3. 디럭썬실
4. 전시실
5. 무대
6. 예식장
7. 로비



오늘날 규격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생활공간인 도시는 인위적 공간으로, 그 기능과 형태의 고층화 거대화가 심화되면서 자연 공간적 의미가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도시를 사는 우리는 정신적 휴양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금정문화회관’은 부산의 명소인 ‘범어사’와 ‘금정산성’을 배후에 둔 신홍 주거지이자 부산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의 종착지로서, 장소성과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에 관한 주요한 정보교환은 물론 주민이 참여한 교육과 취미 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연 및 교육 전시 공간의 종합문화센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문화 예술 창작활동을 고양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시설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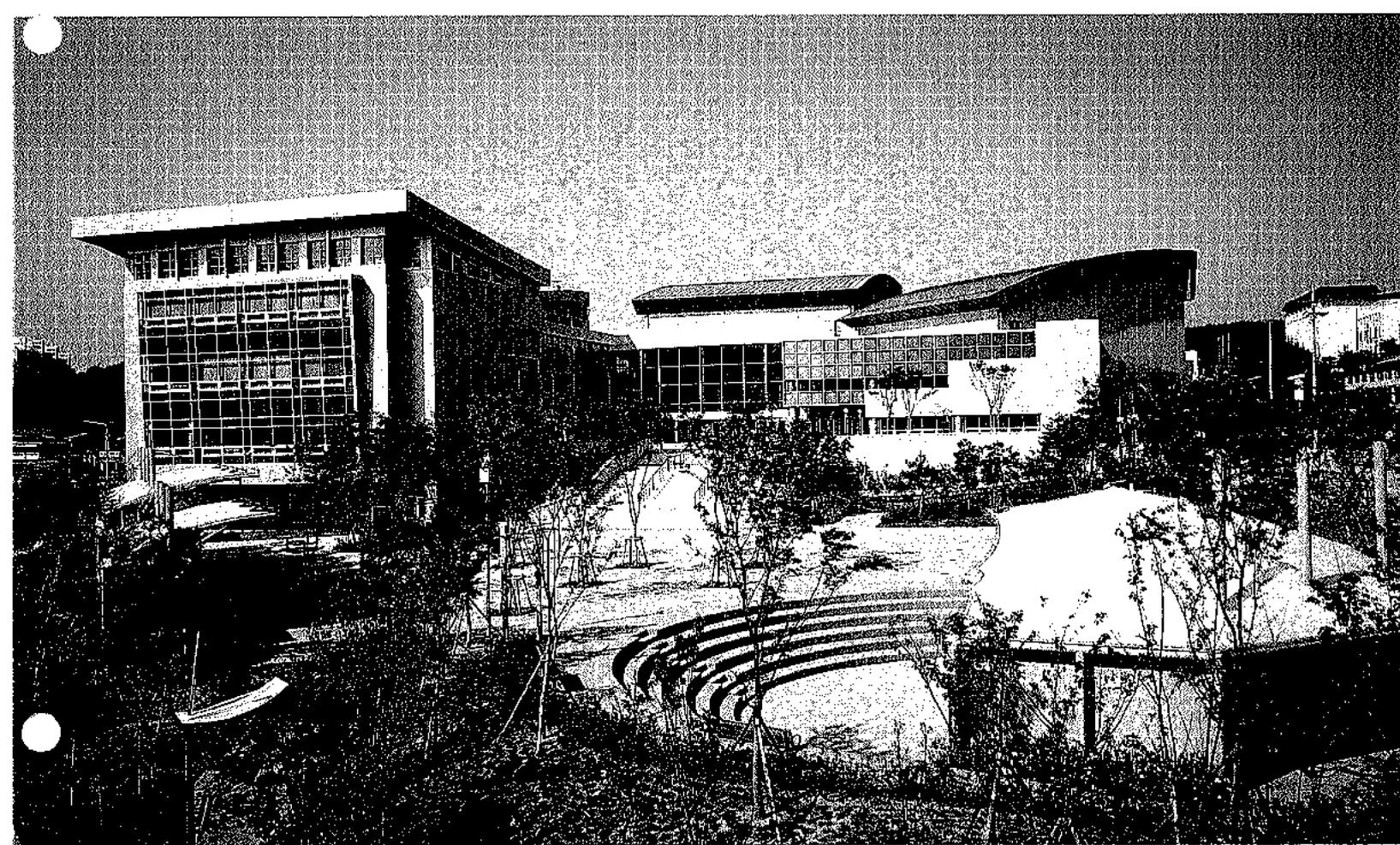
‘금정문화회관’은 다목적 홀 개념의 대공연장, 연극 등 소규모 공연 위주의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장, 교양강좌 공간, 예식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공간동 등 세 개의 매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개의 매스는 축제와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공간끼리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주간선도로 축에서 진입 시 야외전시장, 야외공연장 등 외부의 열린 문화공간을 체험하도록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지하로의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 및 이동차량과 서비스차량의 동선은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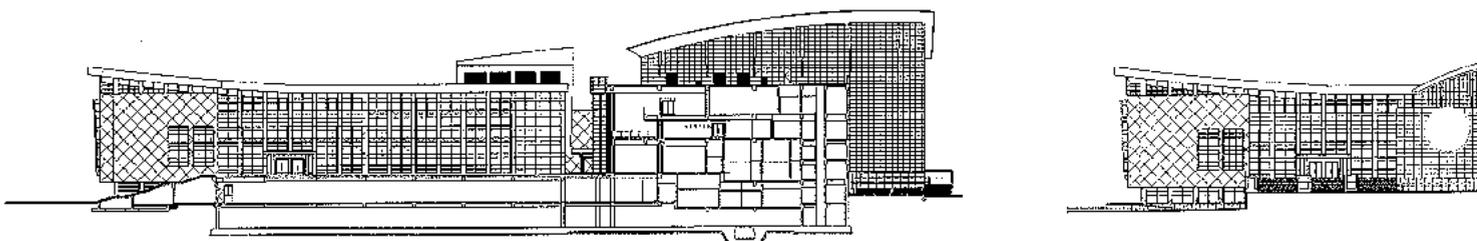
전히 분리하여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당초 설계안에서 육교를 통하여 곧바로 광장으로의 진입을 브리지가 공사 도중 육교의 위치가 변경되어 야외공연장 및 외부 진입동선의 변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브리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하부의 분수광장 등의 공간이 사라졌고, 이 소광장을 통해 생활문화 공간동의 부출입구로 연결되던 부분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완공 후에도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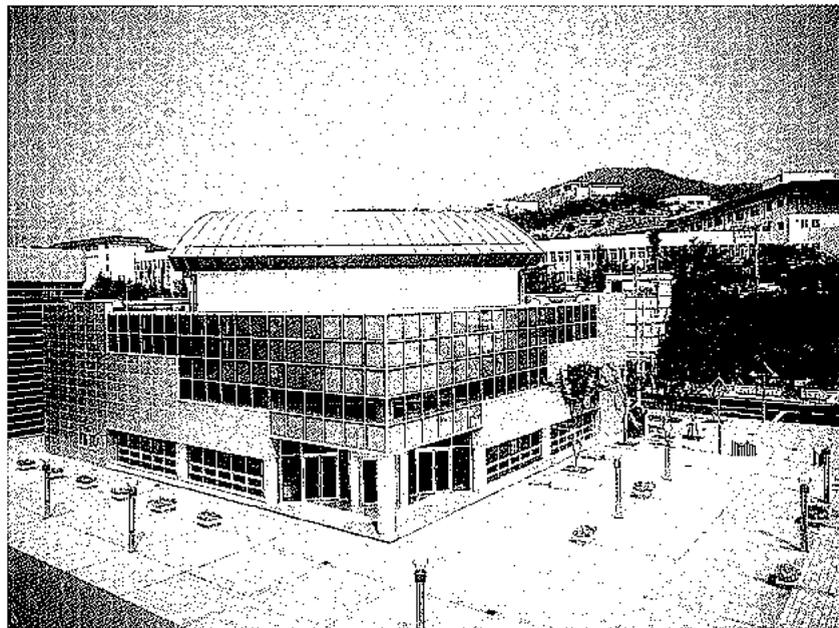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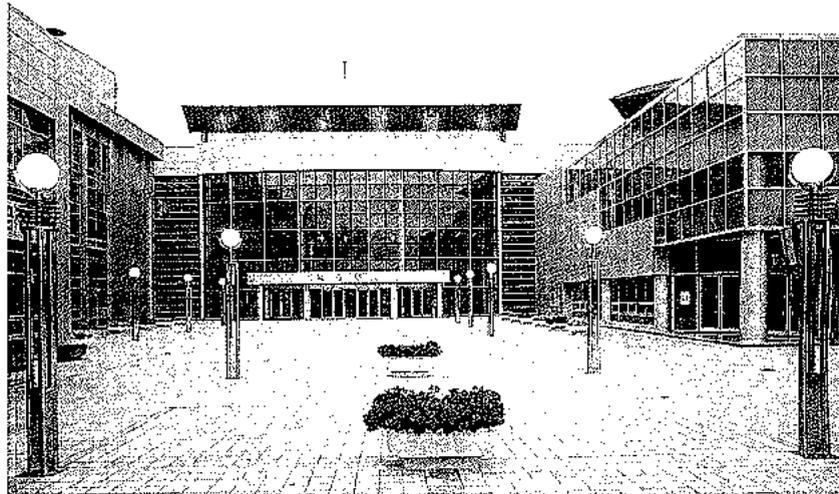
건물의 외관은 비상하는 듯한 모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이미지와 하이테크한 조형미를 추구하였고, 주요 기능별로 각 동을 분리하여 다양한 매스감을 형성하였다. 로비 부분의 전면 커튼월 구조의 유리는 실내에 개방감을 더하고 내·외부 마감 자재는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였다.

‘금정문화회관’은 향후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각종 첨단 시설의 음향 및 조명, 무대설비를 갖추어 금정구뿐만 아닌 부산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주변과 조화를 이룬 외부조명 및 조경공간의 연출 등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 놀이 공간의 역할도 함께 해 나가리라 생각한다.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되어 지역 정서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험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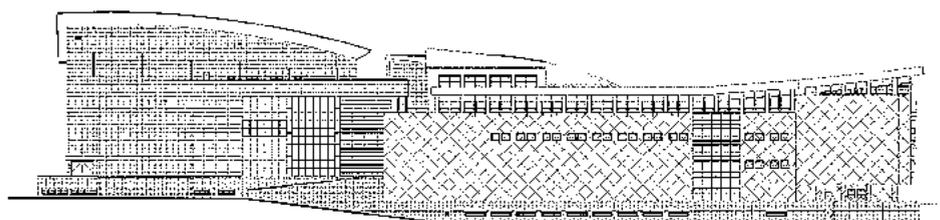




외관도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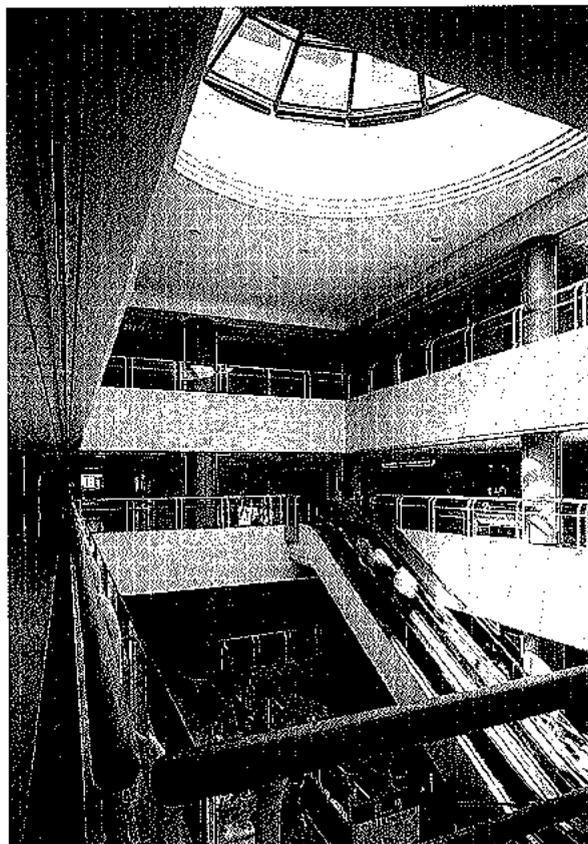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Geonyang University Hospital

부대진 · 김무현 / (주)진아건축 ·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e-Jin & Kim Moo-Hyeon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85번지의 41필지
대지면적	75,198.00㎡
건축면적	6,117.74㎡
연면적	43,168.83㎡
건폐율	8.14%
용적률	40.57%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PC패널외 본타일마감, T24파스텔복층유리
설계참여	고상근(현, 관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홍승훈, 윤보근, 김경환, 이동률, 박광배, 이상훈, 장기태, 이정호,곽경민, 곽해종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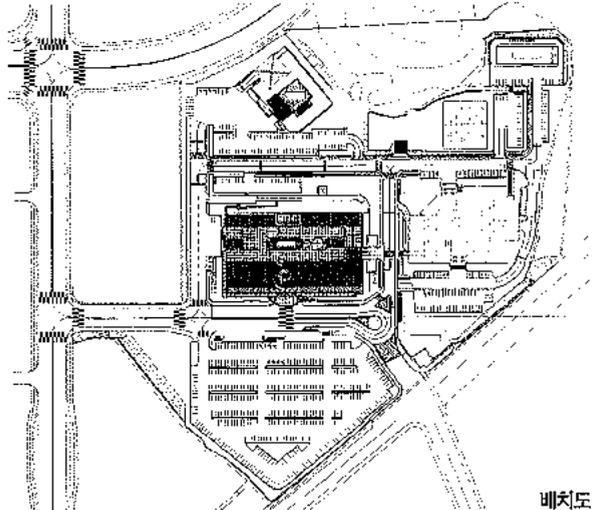


### 병원건축의 방향

병원건축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1)환자중심의 병원 2)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의 모습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기능의 복잡화 · 규모의 거대화 등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환자의 편익이 도모되고, 과거의 어둡고 냄새나는 병원의 이미지에서 보다 알기 쉽고 쾌적한 환경의 병원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들은 정보 및 설비기술의 발전, 장비의 소형화 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의 노력에 따라 많은 관리인력을 줄일 수 있었고, 환자를 위한 서비스부문과 공용공간의 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의료기능의 변화 및 전문화, 수요의 변화 등에 무방비였던 과거의 병원에 대해 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병원의 모습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 설계특성

각 부문의 구성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의 기능과 관리 · 운영의 효율(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병원건축의 새로운 방향(알기쉽고 쾌적한 환경의 병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환자 및 가족)가 머무는 곳은 밝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리



배치도



및 서비스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설계의 초기과정에서 골격(공용부분에 해당)의 형성은 병원전체의 형태와 시스템을 결정한다. 이 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극히 제한된 면적규모(초기 10,000평)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점차 증가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초기과정에서의 면적규모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골격과 시스템 및 형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병동의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었으며, 암 센터, 장기요양센터 등의 독립가능성과 특수클리닉의 운영 등에 따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병동의 2개층은 대학기능 및 행정관련의 제 실로 사용 후 병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저층에 위치한 중앙진료부는 부분적인 수평증축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 부문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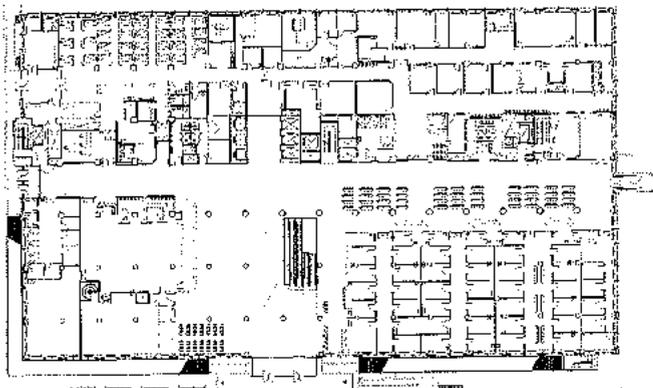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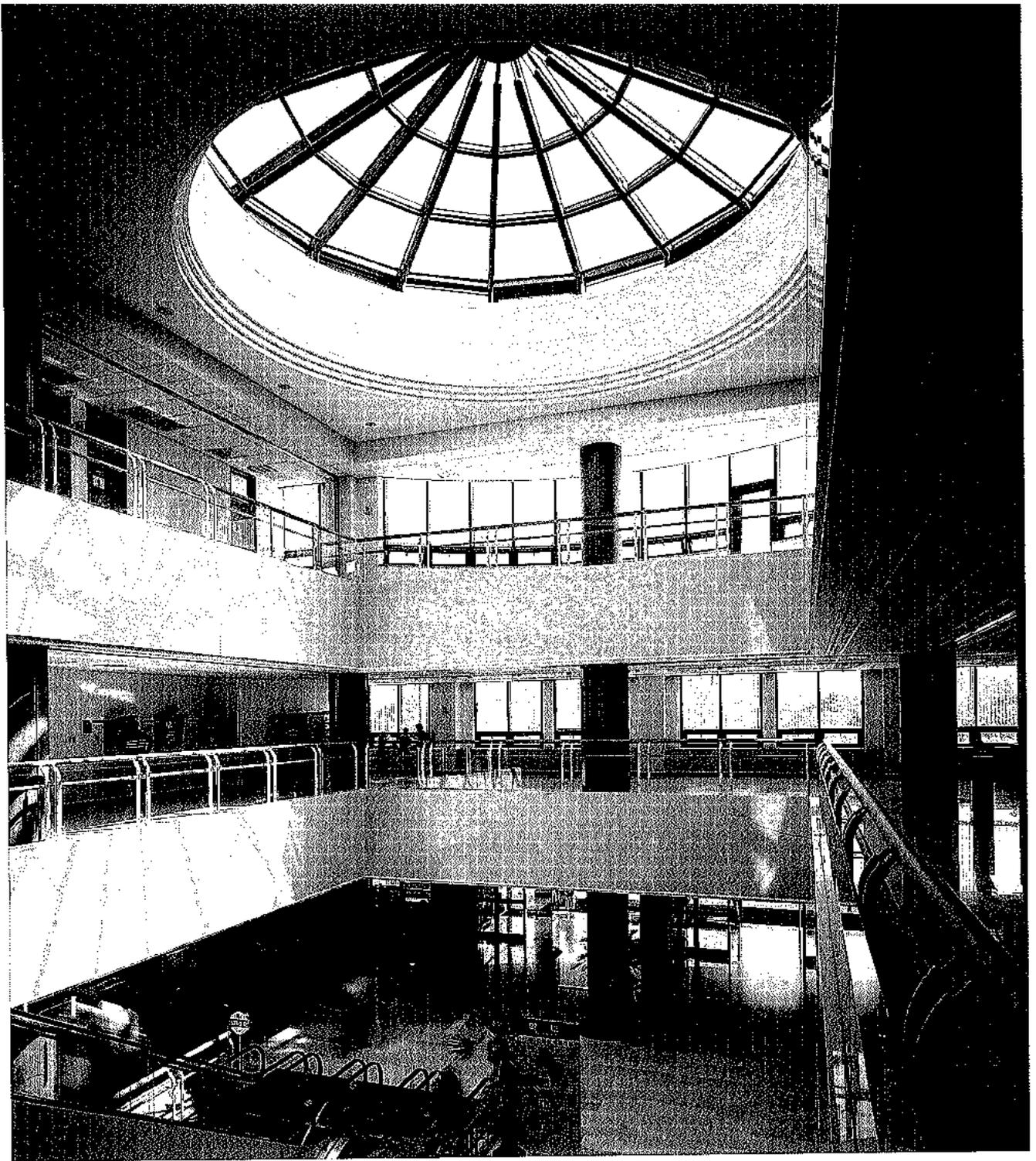
외래부문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공용공간 및 대기공간을 고려하여 블록접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열려진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력규모를 최소화하는 점과 대기공간을 진료과별로 구분하지 않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응급검사 및 외래검사, 생리기능 검사 및 건강진단센터, 중앙수술센터 및 외래수술부 등을 인접시켜 관리 및 인력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중앙수술센터는 청결도의 유지를 고려하여 순환통로를 확보하고 수술전후의 환자동선과 수술 후의 물류의 이동경로로 활용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설계과정에서 분만부 및 신생아실의 위치로 사용자와의 많은 논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산부인과병동과 인접시키려는 설계자와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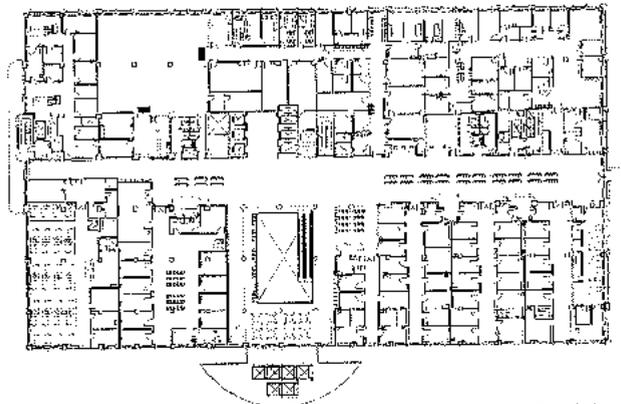
의 차이가 있었으나,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결국 수술부와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했다. 병동부의 간호스테이션은 출입의 관리보다는 간호 동선을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좀 더 가까운 위치에 두고자 노력하였으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간이주방 및 식당을 두고 있다. 단, 병실의 모듈은 면적규모상 6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의료관련의 서비스부문은 외주의 형태가 아닌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탁, 소각 등을 지하에 두고 있으며, 지방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많은 참고를 확보하고 있다. 병원을 계획함에 있어 기능외적인 공간을 확보하기란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는 이용자의 접근에 유리한 위치에 휴게 및 판매점(2층 및 지하 1층)을 위치시켜 병원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연속된 벽면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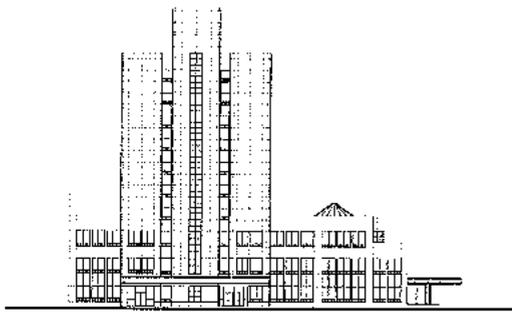
병원건축을 계획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스터디·반영해야 하는 기능공간을 제외하면, 건축가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의 병원건축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이용자를 위한 공용부분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환자의 대기는 제한된 대기공간 뿐만 아니라 원내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새로운 병원건축을 향한 건축가의 역할도 좀 더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좀 더 다양한 환자공간의 확보를 위한 건축가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글/고상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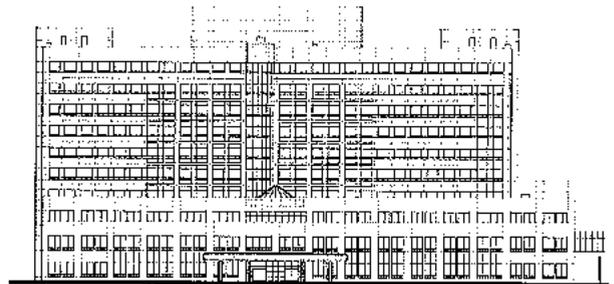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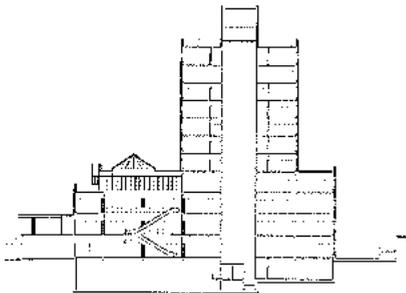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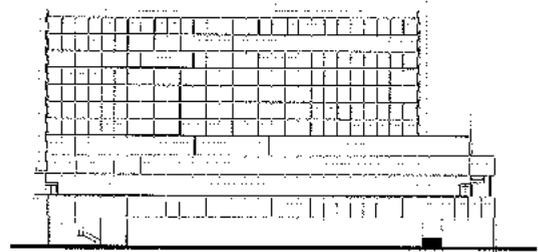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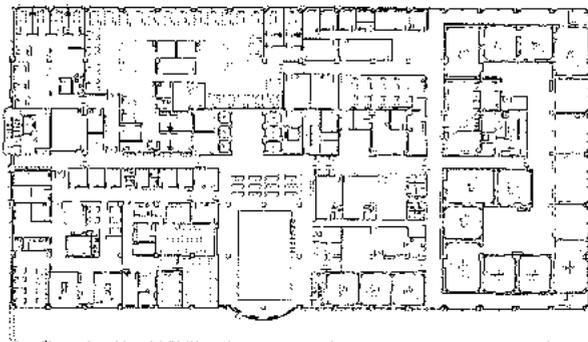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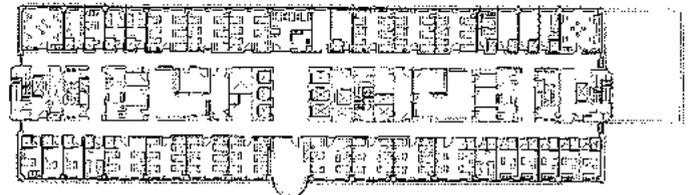
중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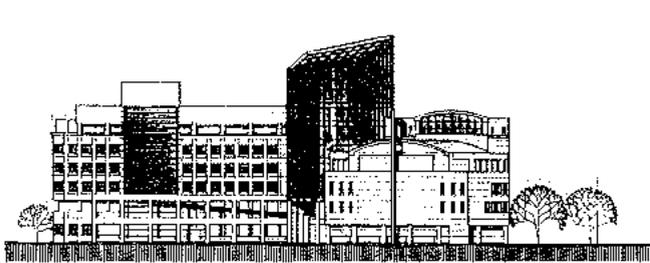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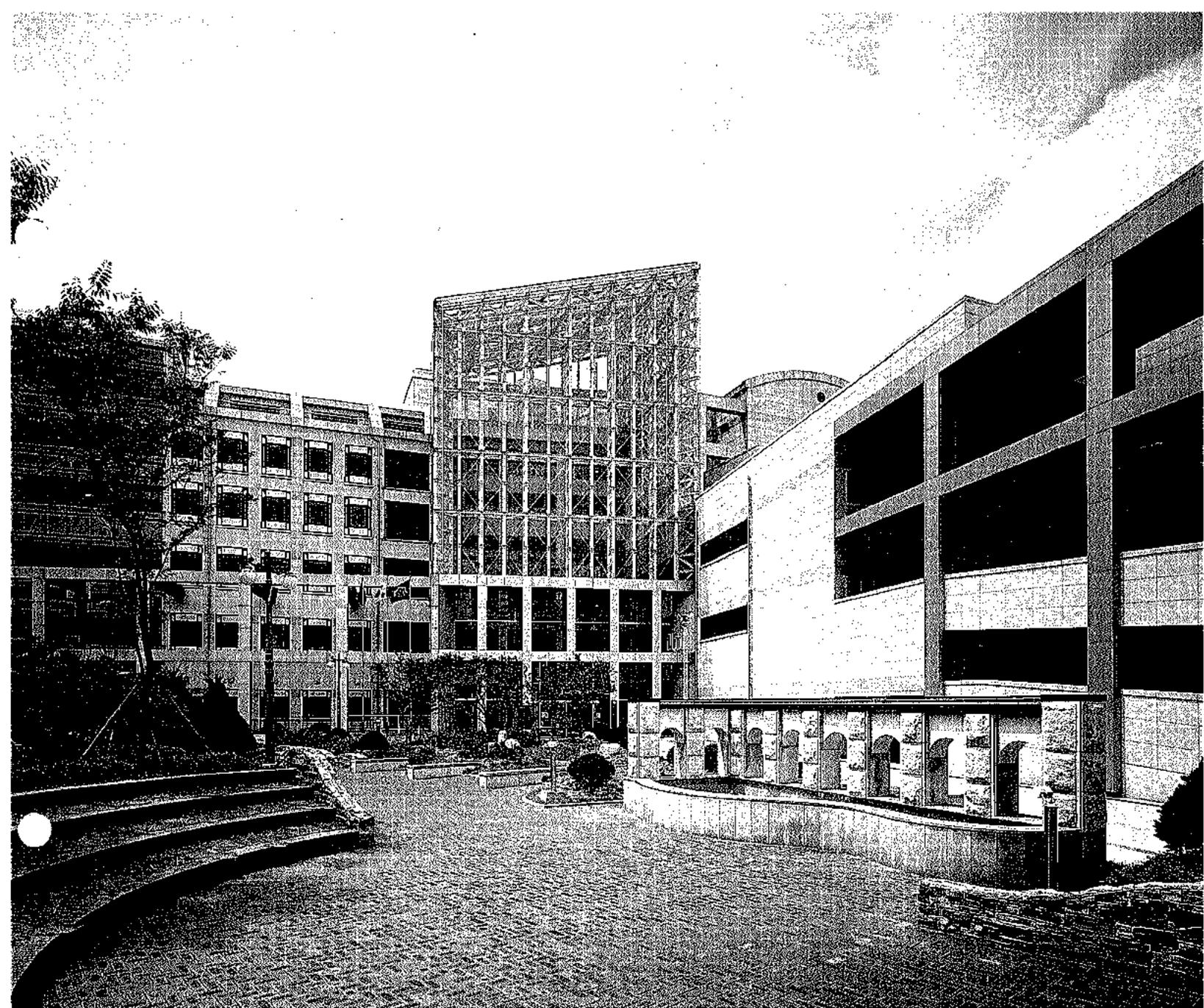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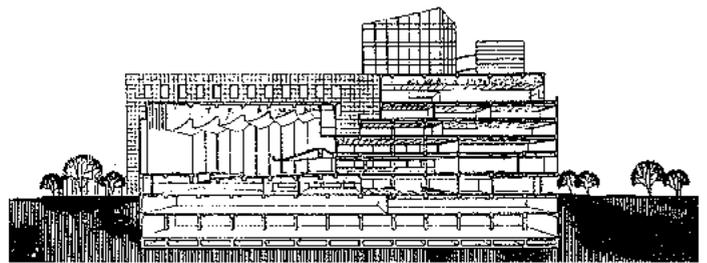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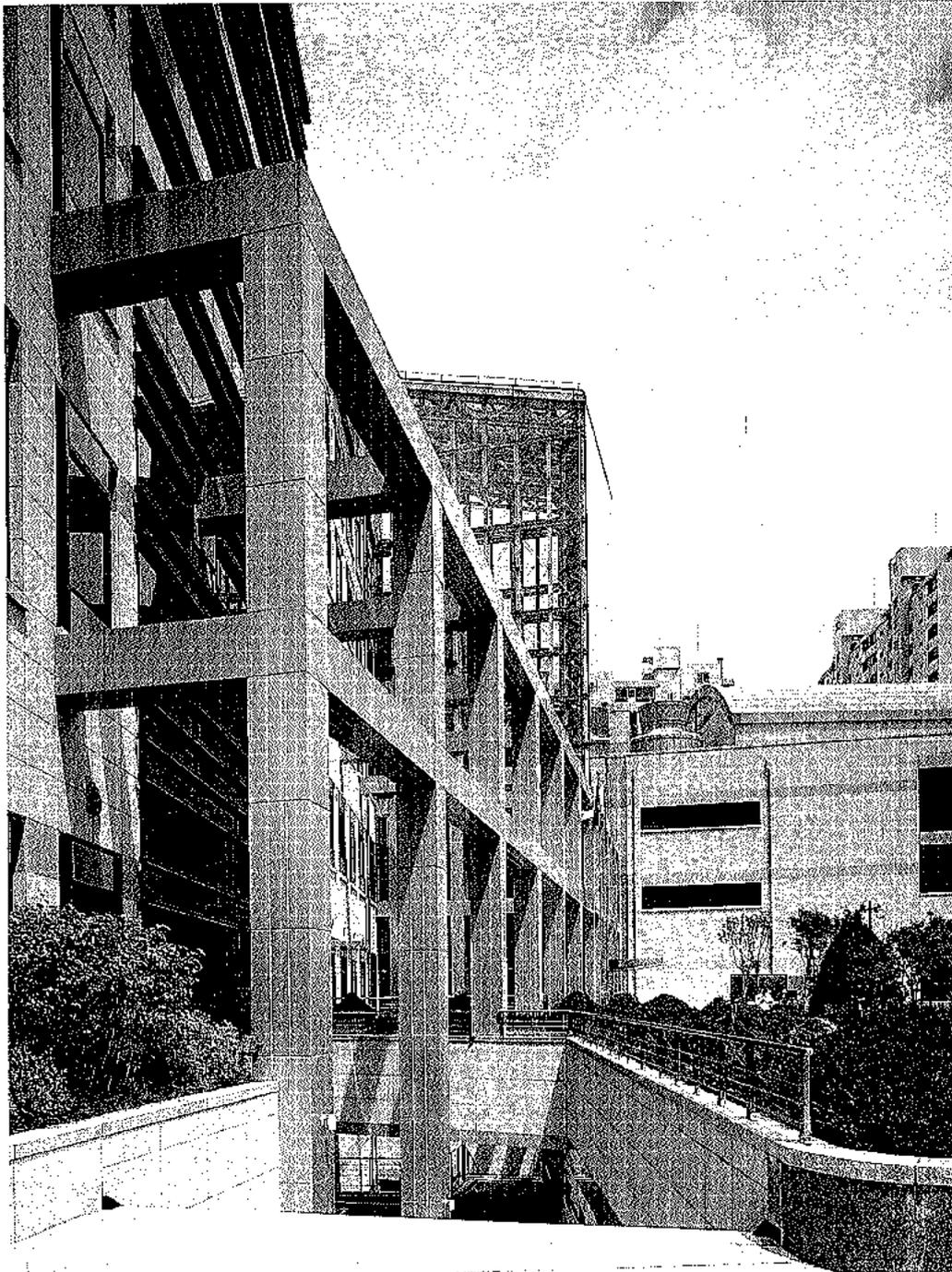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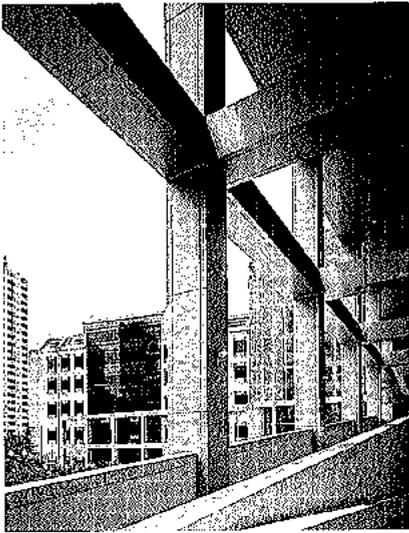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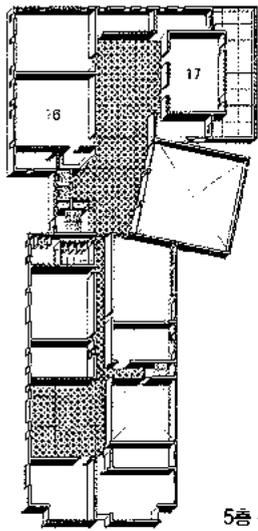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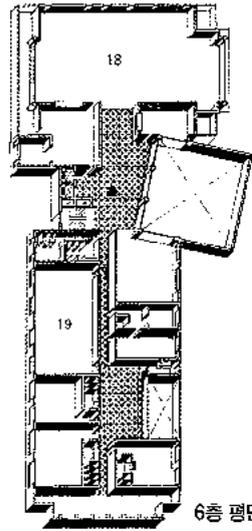
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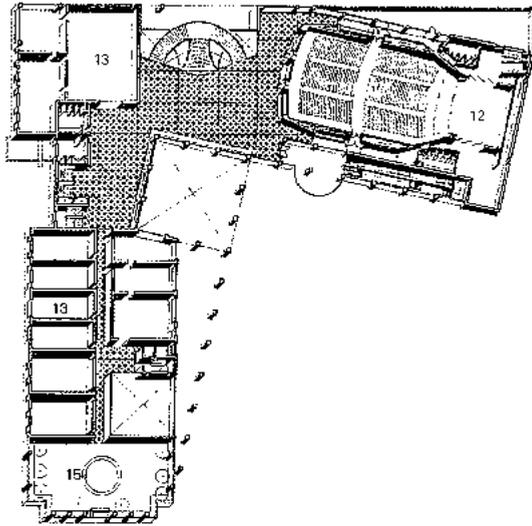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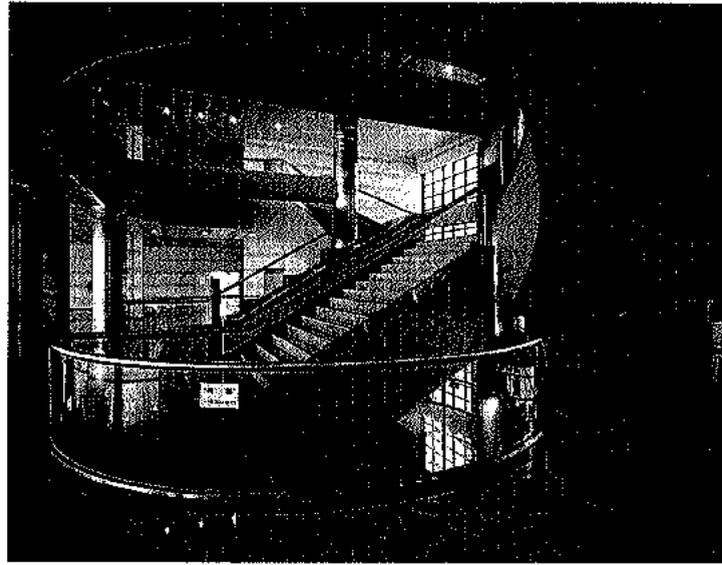
1. 선문가든
2. 유아층 홀
3. 성인층 홀
4. 전기실
5. 기계실
6. 보육실
7. 놀이방
8. 중경
9. 로비
10. 체력단련실
11. 사무실
12. 무대(강낭)
13. 상설전시장
14. 취미방
15. 휴식발코니
16. 스포츠교실
17. 전통문화실
18. 식당
19.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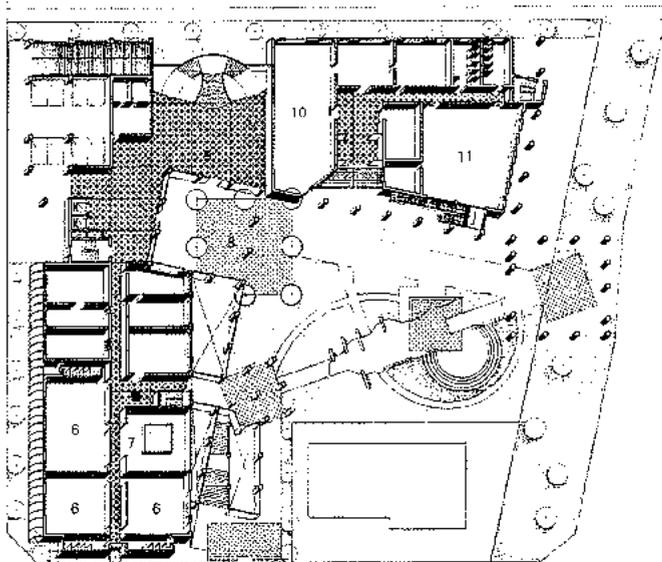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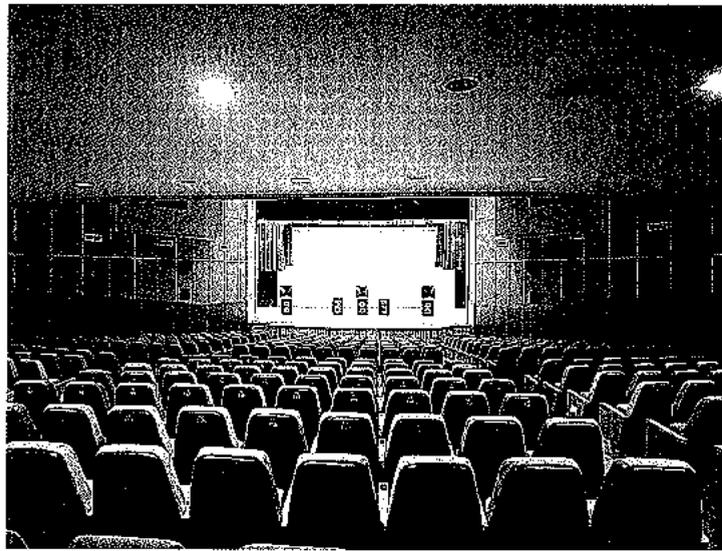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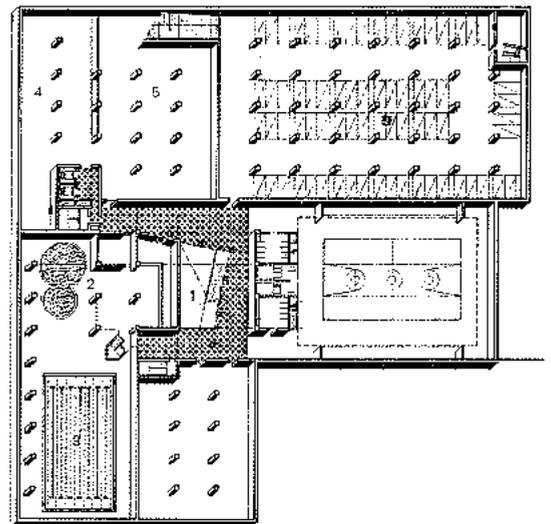
6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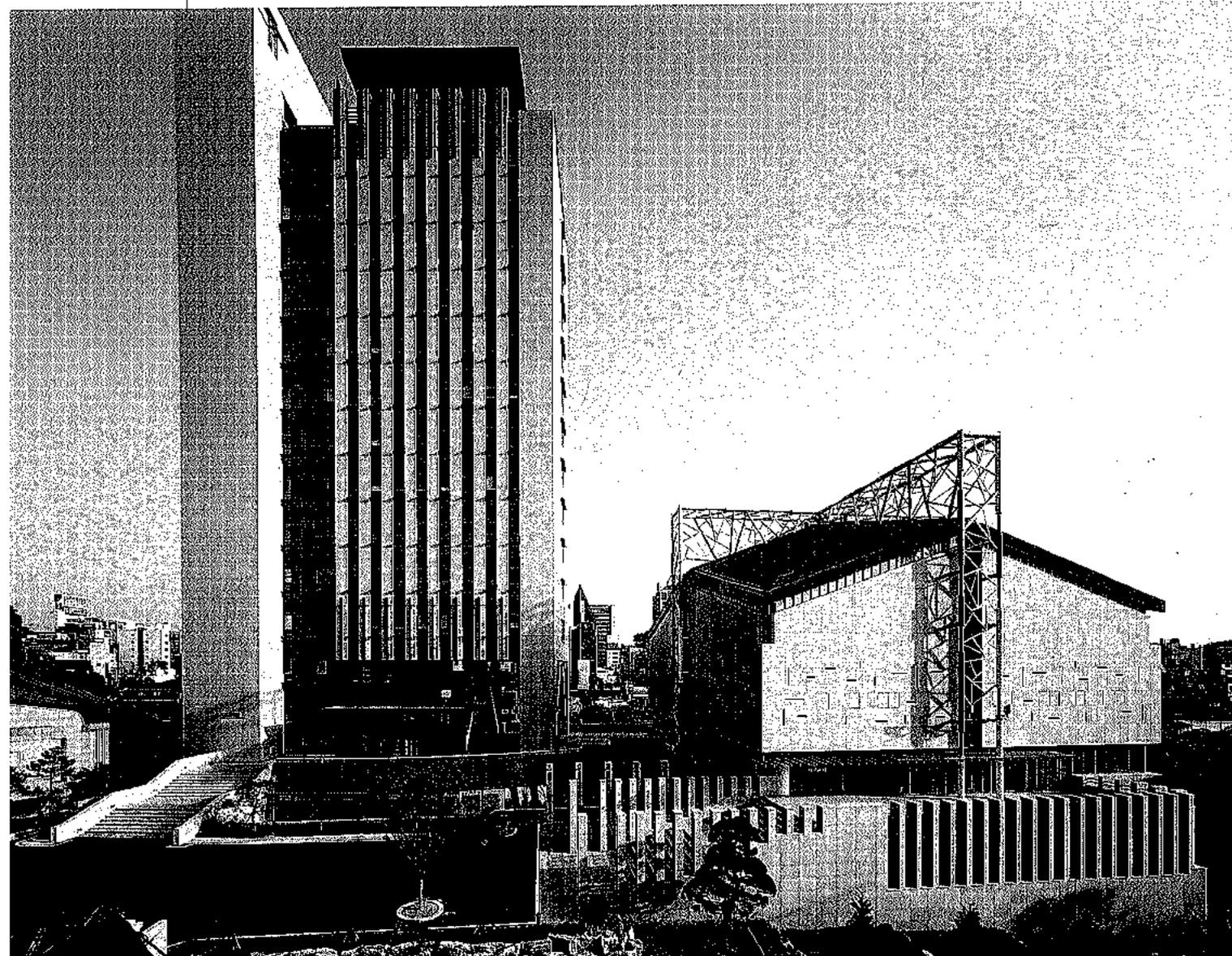
# 이화여대 교회 및 국제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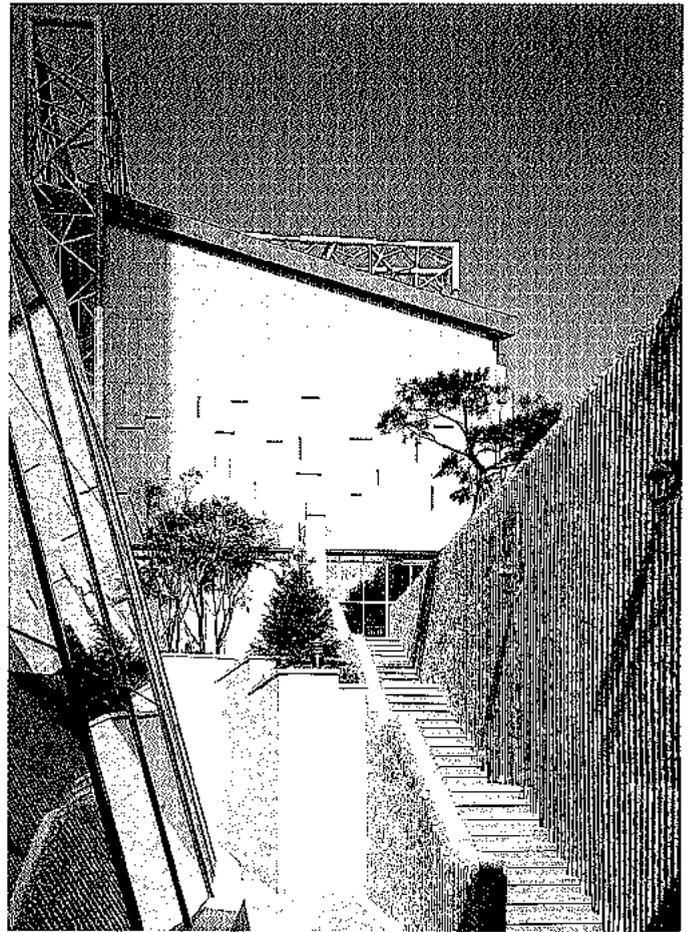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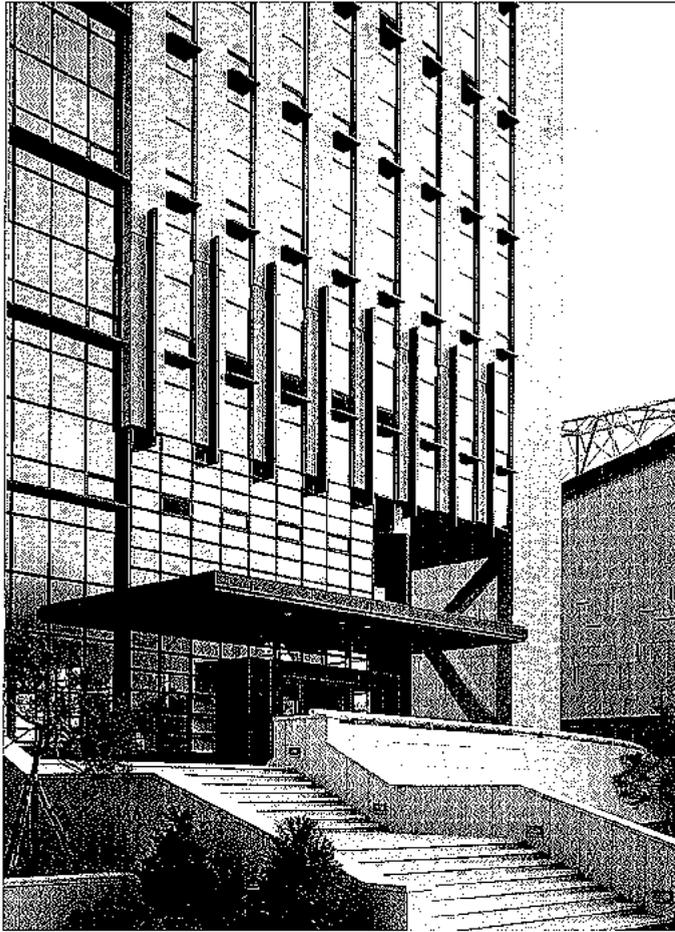
## Ewha Womans University Church & International Education Building

김정식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ung-Sik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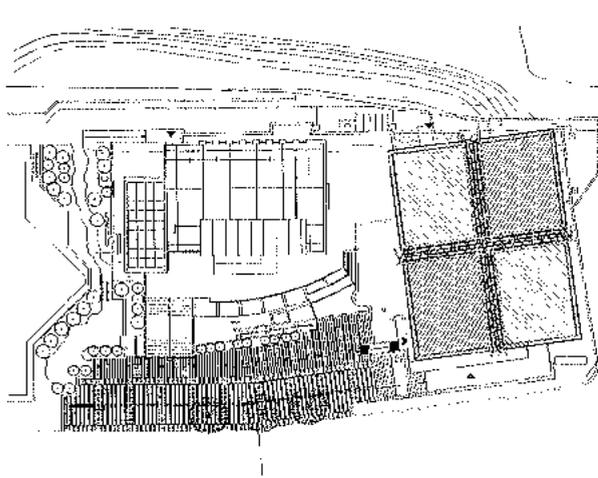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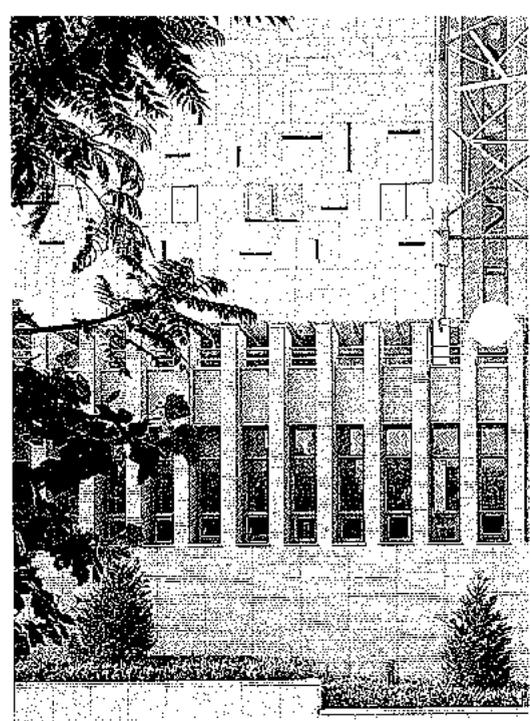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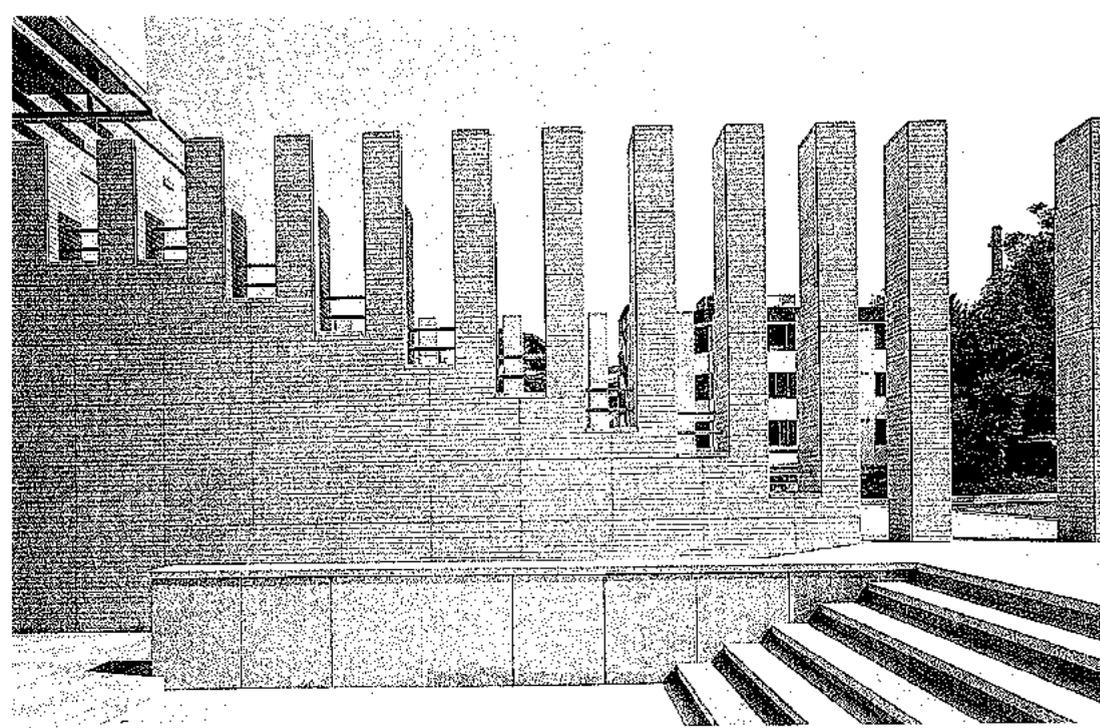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설비	F.C.U+냉난방 CAV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외부마감	화강석
대지면적	538,093.60m <sup>2</sup>	내부마감	화강석+수성 페인트
건축면적	2,100.93m <sup>2</sup>	시공자	현대건설
연면적	14,301.04m <sup>2</sup>	공사기간	1998년 4월~2000년 5월
건폐율	11.93%	기계	신환기연
용적률	43.59%	전기	삼주 ENC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감리담당	이종성
규모	교회-지하2층, 지상4층 국제교육관-지하2층, 지상14층	구조	크로스구조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설계담당	문진호, 김진수, 한광희, 김영우, 장정현, 허정아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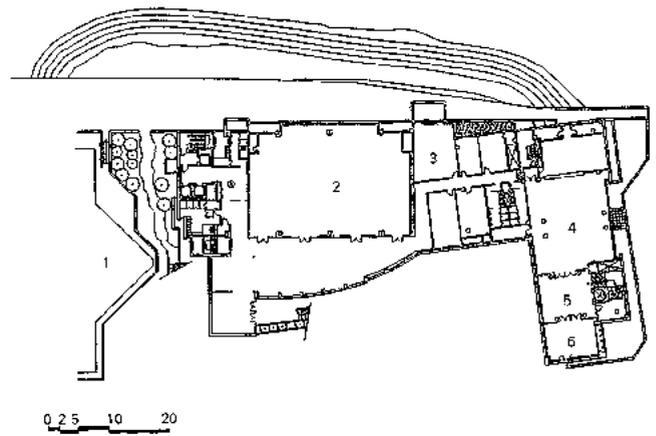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이 많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대학캠퍼스는 기존 건물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인자를 갖는다. 지형과 도로에 작용하는 다양한 축이 존재하고, 건축 외부의 상호관계 및 신축 건물로 인한 새로운 공간의 형성 또한 그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교육관과 교회 프로젝트는 협소한 대지에 두 개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의 요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층건물과 교회와의 관계를 주변의 맥락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오래 계속되었다. 대지의 협소함의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였다. 첫째, 지하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선근을 사용하고 자연광과 외부공간의 연결을 의도하였다. 둘째 데크층을 연계시켜 두 건물의 외부공간 이용도를 높였다. 그 결과 높이와 규모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매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층부가 데크로 함께 묶여 있는 둘 간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외부공간을 선근과 데크로 연결하고 있지만, 실제 단계에 있어서 국제교육관의 진입은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그것은 바로 전면부의 브리지를 통한 진입이다. 지하층에 면해 있는 국제회의실의 홀에 채광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선근을 설치하고, 이곳을 위한 주진입은 원형계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브리지의 상부는 목재로 널을 깔아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교회와 국제교육관을 함께 묶고 있는 데크로 연결되고, 근접한 교회와의 공간적 분할을 암시하는 기능을 지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물을 지어 가는 과정에서 브리지는 포기되었다.

‘세상에 속해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초기 개념에서 유지해 나가고 싶어 하였던 하나의 중요한 명제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배당이 지층으로부터 상부에 떠 있는 형상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상징성을 또한 강한 대칭의 매스로 표현하였다. 교회를 십자로 둘러싸고 있는 트러스의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스터디를 거쳤다. 모델 스터디와 3D모델링을 통하여 H-빔과 수평 알루미늄 배의 조합으로 트러스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더 많은 고민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아주 불규칙하게 얽혀 있는 상부의 트러스는 예수님의 교행을 상징하는 면류관의 의미이며, 밤이 되면 고난의 시대를 밝은 빛으로 비춰준다. 벽면의 자유로운 창의 이미지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롱상 교회> 입면 디자인을 응용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대학캠퍼스에 고층건물이 필요한지, 또한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오피스의 입면과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수많은 매스와 입면 스터디를 거쳐 지금의 결과물이 완성되었으나, 과연 이것이 캠퍼스에 잘 조화를 이루는 건물인가는 앞으로 우리도 검증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건물에 있어서는 고층건물로 접근되었기 때문에 지붕의 슬라브 형태를 설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캠퍼스 건물로서 옥탑의 모습, 즉 지붕의 모습에 대하여 많은 스터디를 하였다. 국제교육관 건물이 상업화로 물들어가는 대학가의 파수꾼으로서 침범할 수 없는 교육의 장소로서 이화여자대학교 영역의 경계를 알리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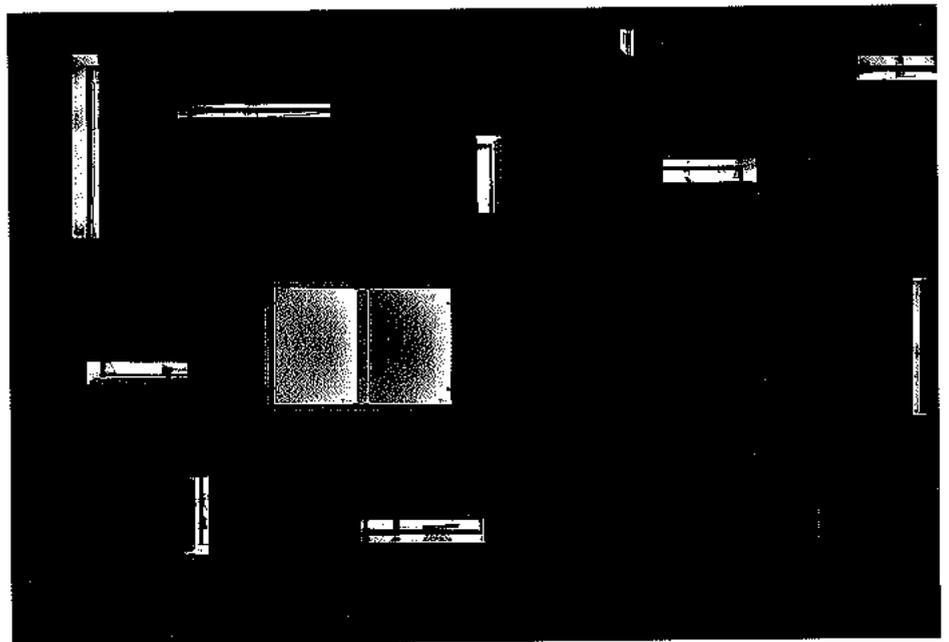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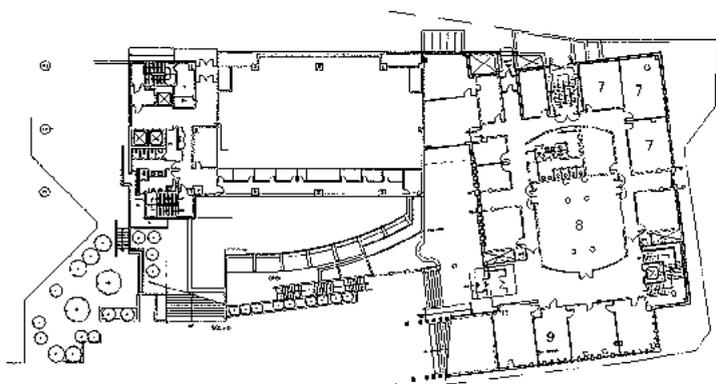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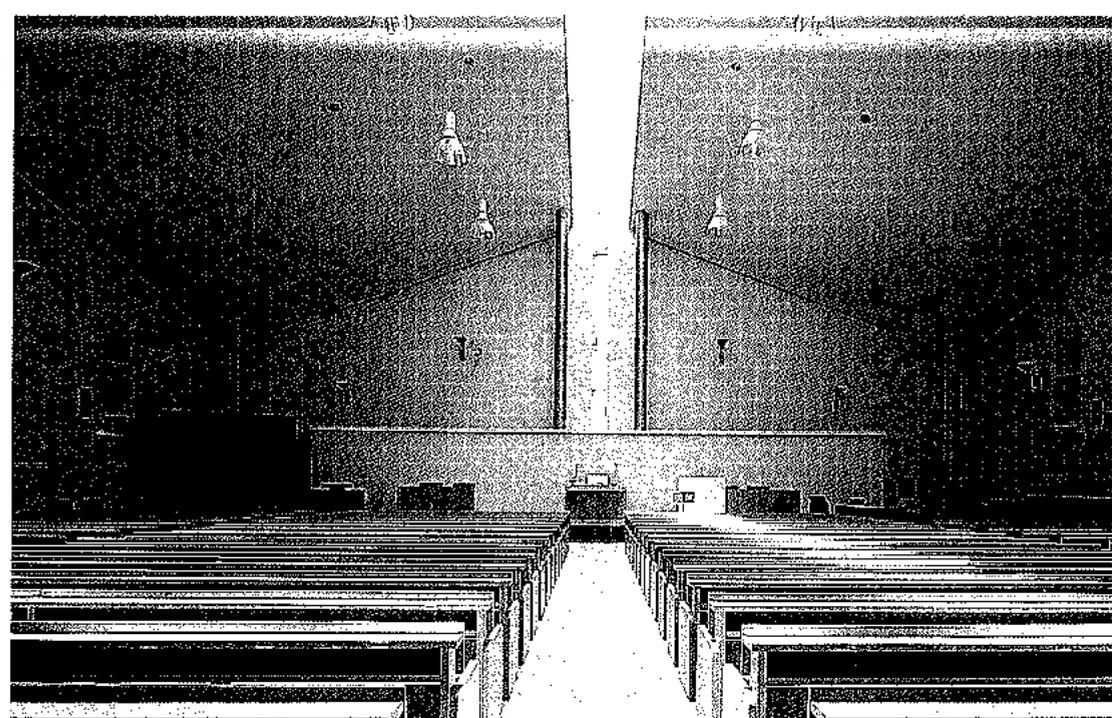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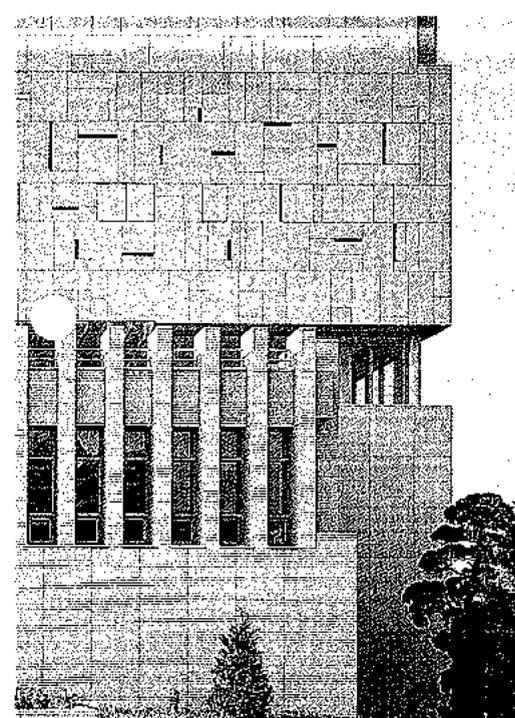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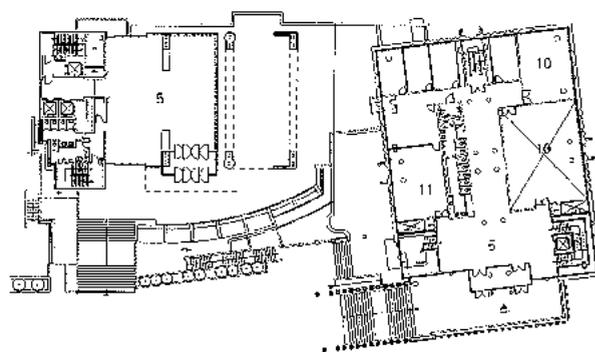
지하1층평면도

1. 기존박물관
2. 국제회의실
3. 스튜디오
4. 전교실
5. 중
6. 다목적실
7. 교육실
8. 정보자료실
9. 신학대학원 연구실
10. 성가대 연습실
11. 교회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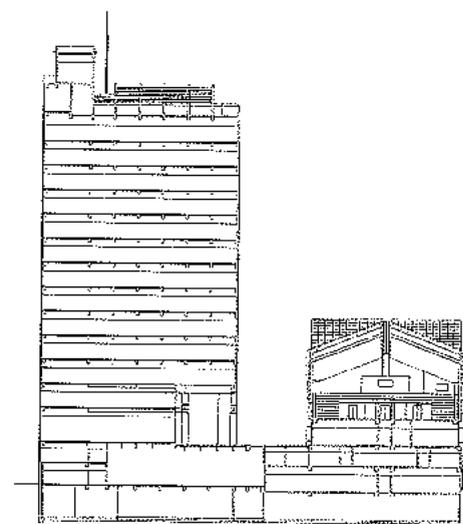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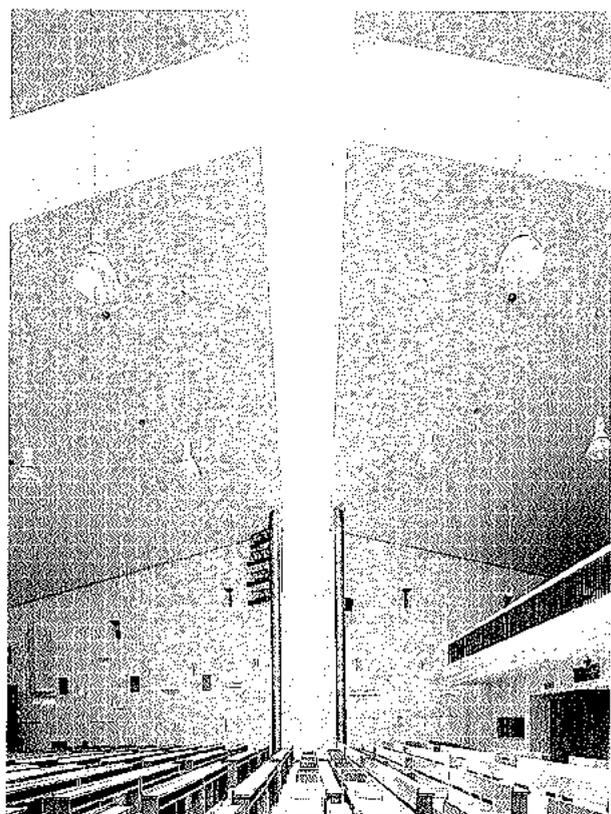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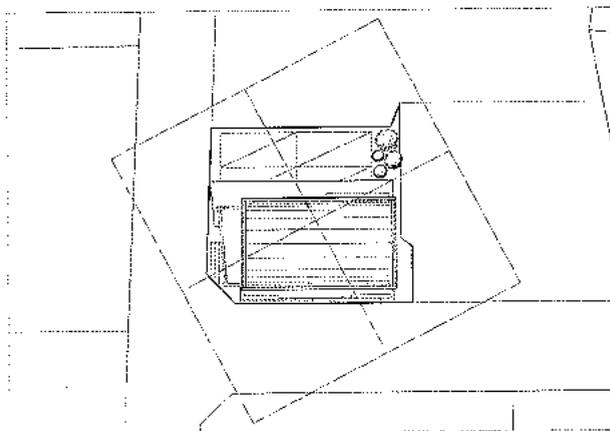
# 정도실업사옥

## Jungdo Bl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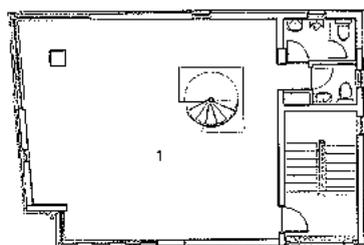
우시용 / 건축사사무소 시공건축  
 Designed by Wooh Si-Yong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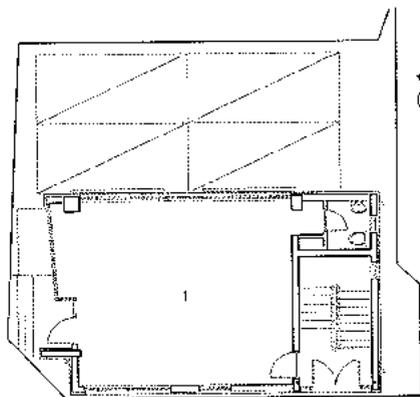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 중구 신당동 366-23
지역지구	일반주거
대지면적	156.40m <sup>2</sup>
건축면적	84.98m <sup>2</sup>
연면적	419.81m <sup>2</sup>
건폐율	54.34%
용적률	191.47%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경량철골조
외부마감	(벽)드라이비트, (지붕) 납코팅동판, (창호) 18mm저반사복층유리
구조설계	서울구조
설비설계	정주설비
전기설계	우림전기
건축주	정도실업(주) 박준식
시공자	다산산업개발 이원병
설계기간	1997. 8~12
공사기간	1999. 11~2000. 6
설계담당	송형봉, 구기록, 임태희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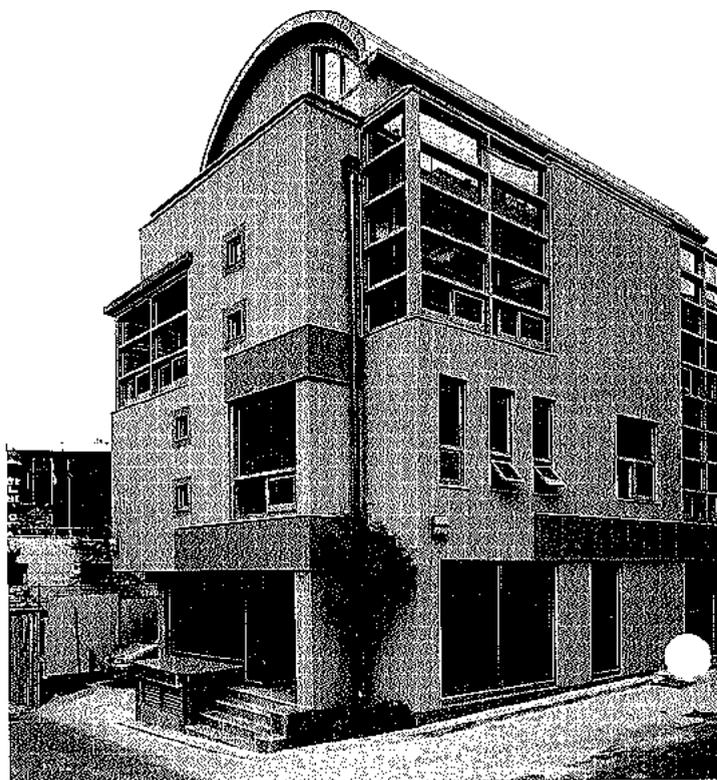
배치도



3층평면도



1층평면도



이 건물은 의류제조 및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정도실업(주)을 위한 건물로 계획되었다. 지하층은 창고, 1층은 전시 및 판매시설, 2~3층은 사무실, 4층은 시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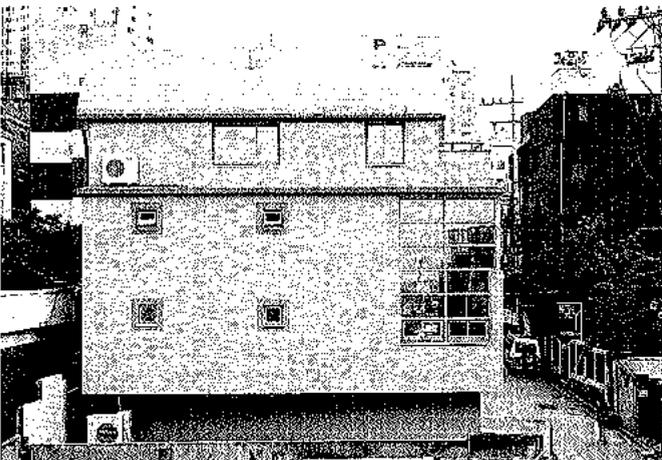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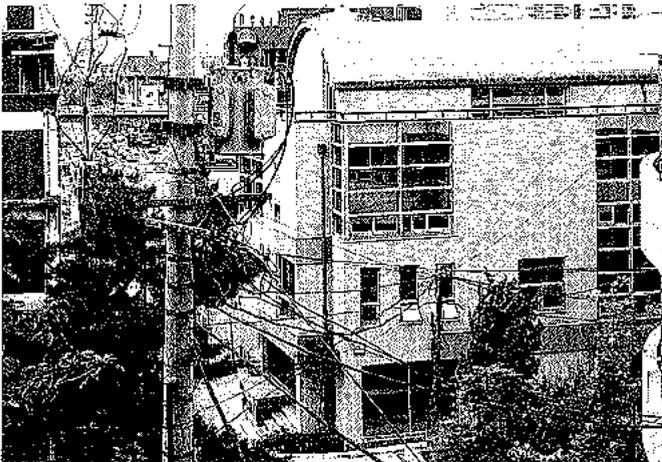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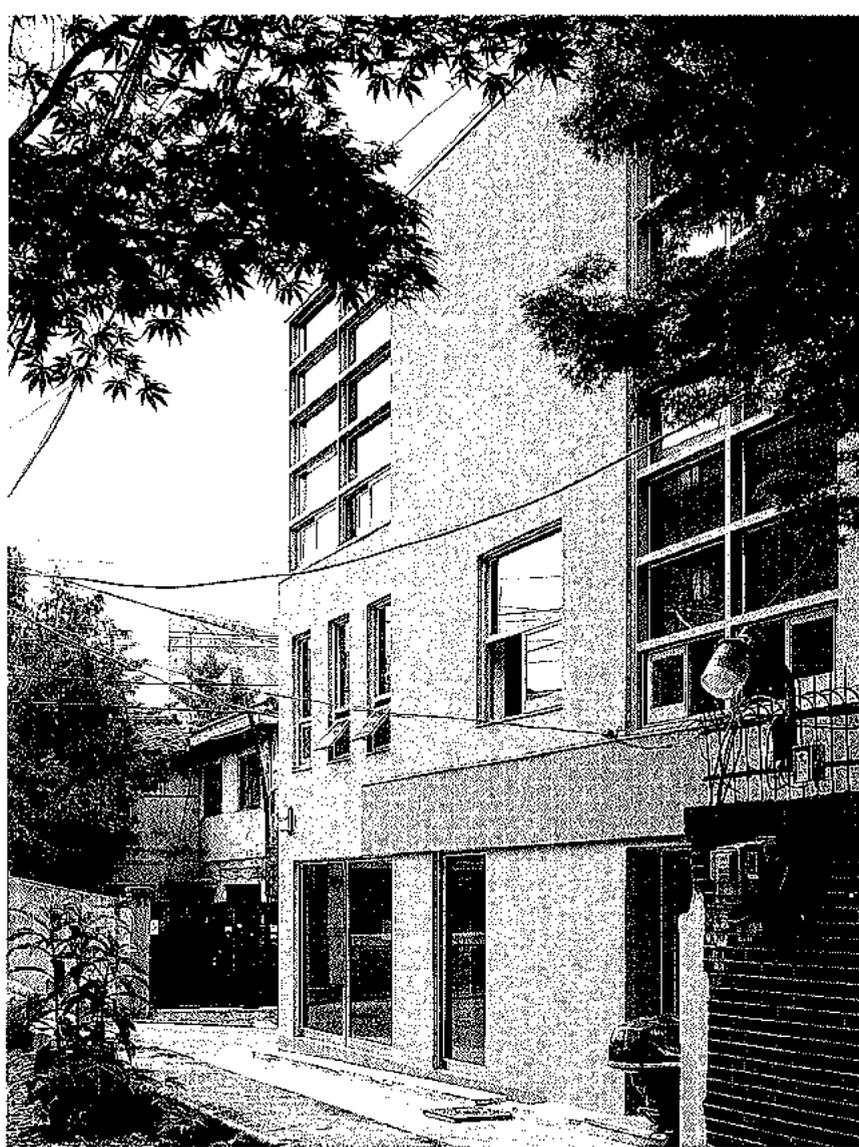
원래 이 대지는 건축주가 과거 어린 시절에 살던 주택이 있던 곳이다. 주택 철거후 본 건물이 신축되어 과거를 지닌 곳으로 돌아옴으로써 건축주로서는 남달리 감회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전체 건물의 색상은 의류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외벽, 창호, 유리 등을 녹색계열로 디자인함으로써 주변의 건물과 차별성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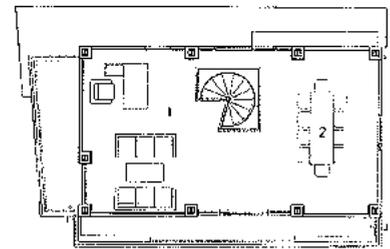
3층 사무실과 4층 시장실은 원형의 목재 계단을 사무실 내부에 두어 사용의 편리함과 동시에 공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4층 시장실은 바이어와의 모든 상담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다. 4층 바닥 골조 골조공사 완료 후에 기구 및 집기 등의 배치를 고려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받아들이 수 있는 위치에 창문을 당초 계획을 보완하면서 설치하여 충분한 일조 및 양호한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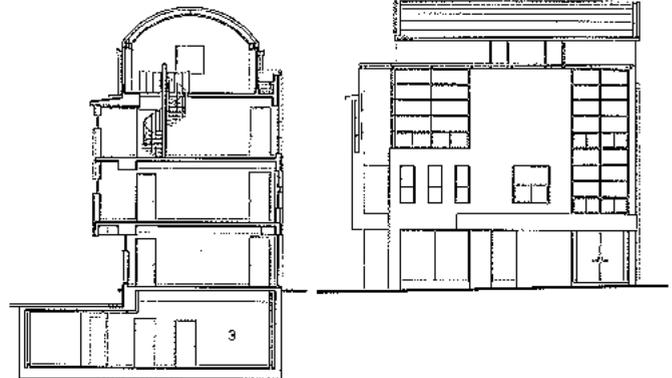
지붕은 원형으로 하여 4층 시장실에서도 천장이 원형으로 되도록 하여 내부공간의 차별성을 두었다. 



- 1. 사무실
- 2. 회의실
- 3. 소매점



4층평면도



중단면도

남쪽입면도

## 현암사

Hyun-am-sa

권문성 / (주)건축사사무소 아플리에17  
by Kwon Moon-Sung

현암사는 아현동 언덕 기슭에 1970년에 지어진 주택을 손봐서 쓰고 있었다.

언덕을 올라가면 좁은 골목으로 아이들이 뛰어 놀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길가에 앉아 무슨 이야기인지 열심히었고, 할아버지들은 험렁한 내의 처리용으로 자기 집 마당을 나온 듯 편한 모습으로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한 때는 달동네라 불리던 곳인 듯, 작은 집들이 좁다란 골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고, 조금 번듯한 길거리는 덩치 큰 다가구 주택들과 상점으로 바뀌어 늘어서 사람 냄새나는 동네를 만들고 있었다. 광화문 네거리를 불과 몇 분만에 갈 수 있는 이곳이 어떻게 6,70년대의 동네 모습이 유지되고 있을까.

정성껏 지어졌지만 이제는 곳곳이 물이 새고, 겨울엔 추운 집을 좀 더 손보고,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고쳐야 했다. 물론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지내온 집을 없애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30명 정도까지 늘어날 출판사 식구에게 필요한 만큼의 규모가 되는 집이면 족했다. 책을 만들며 기획하고, 편집 일을 하는 사무실, 저자를 만나고 출판사 식구들이 의논하는 크고 작은 회의실이 여럿 필요했다. 또 동네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출판사에 들려 그곳에서 만드는 책도 구경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마음에 드는 책을 살 수도 있는 작은 갤러리, 북 카페도 있었으면 했다. '소피의 선택', '별자리 이야기'와 같은 책의 독자들이 출판사에 모여 책 이야기도하고, 특별히 마련될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며 별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도 필요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우리 나무, 짙 풀 문화, 환경상식, 우리 새, 우리 나무' 같은 저자의 소중한 자료의 일부분을 보여줄 정원도 꼭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지혜를 묶어내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집이어야 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동네의 도시 질서, 건축질서를 존중하면서 새롭게 정의하고 덧대어 짓는 조심스런 작업이 되었다. 기존의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니 동네가 갖고있는 스케일이 새 건물에도 유지되리라 기대하였다. 도심에 짓는 건물이지만 뽀뽀하게 대지 위를 채워야 하는 집이 아니어도 되었다. 그저 동네와 어울리고, 그 집에 살 사람을 고민하는 건축이면 충분했다.

언덕에 기대어 지어졌던 주택의 지하는 언덕 쪽으로 흠에 묻혀 사람이 쓸만한 환경으로는 좋지 않아 1층을 시원하게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진 빈 공간이었다. 70년대에 지어진 집이면 대부분 그렇듯 지하실은 여유 있는 연탄광 역할을 하기에 적당한 만큼의 환경으로 채광과 환기가 거의 되지 않고 높이가 낮은 답답한 곳이었다. 출판사에서는 그 곳에 책꽂이를 가득 채워놓고 책들을 빼곡이 넣어두고 있었다. 1층 주택거실이던 부분에는 관리부, 영업부가 쓰고 있었고, 안방이던 부분은 사장실, 부엌은 가구를 들어내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2층 남쪽으로 난 발코니에 알미늄 샷시를 달고, 널찍하게 편집부가 사용하느라 작게 나눠진 방에 문을 만들고, 발코니 쪽 벽을 헐어내어 큰방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지만 잔뜩 쌓아놓은 자료와 책들로 빈틈없는 출판사 책상처럼 여유가 없고 불편하였다. 주택과 출판사는 어렵게 공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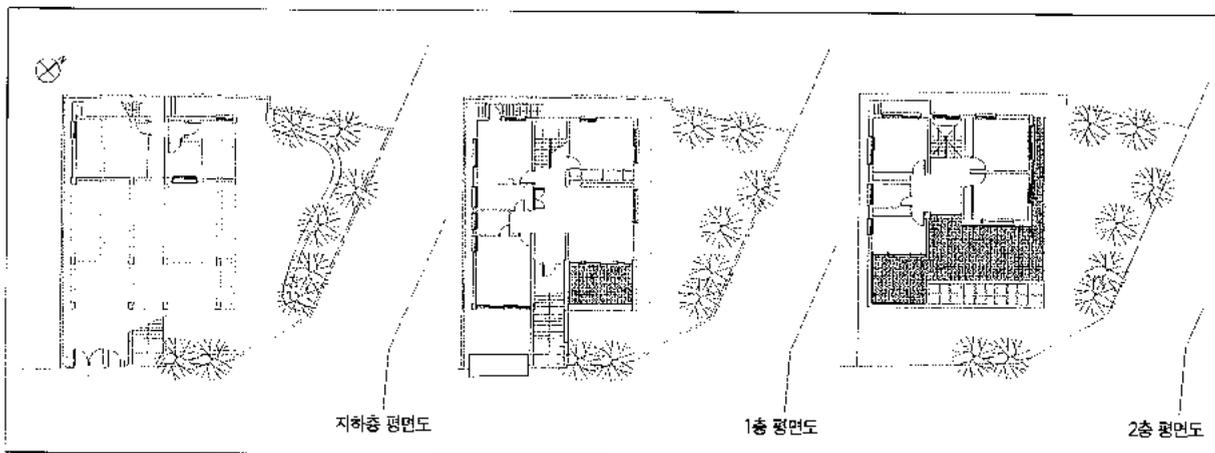
하지만 눈을 들어 밖을 내다보면 더 오래 전에 지어진 작은 개량한옥의 지붕이 마당 한곳에 심

어놓아 굽어진 은행나무 사이로 보이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큰 길 건너 공덕동 언덕으로는 모스크의 둥그런 돔 지붕이 솟아오른 정다운 모습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올라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금 올려보면 언덕의 스카이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그 위는 하늘이었다. 잊어버린 것 같은 우리 일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다. 대지는 큰길 마포로에서 50m 쯤 떨어져 있는데, 큰 길과 대지 사이 부분은 공원부지여서 머지않아 작고 푸르게 동네 어귀의 쉼터가 될 예정이다. 새로 손보는 집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담긴 동네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하나의 집이 지어져 어떻게 동네와 어울릴 수 있는가. 기분 좋게 고친 마을 모퉁이 집이 전부터 있었던 듯 익숙하고, 동네사람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했다. 또 그 집은 몇 십 년, 아니 그 이상을 잘 버텨내야 할 미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겨 사용하고 싶었다. 1970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찾고 싶었다. 건물은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으로,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입구, 복도, 계단을 만들고 양옆으로 거실, 안방, 화장실과 같은 방을 넣었다.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성이다. 2층은 남쪽으로 널찍한 발코니를 만들어 언덕의 올라가는 경사지 동네에 잘 어울리는 매스를 만들었다. 특별히 드러내려는 욕심 없이 당연한 고민을 편하게 풀어낸 점장은 주택이었다. 외부 붉은 벽돌벽의 대부분을 그대로 이용하고 담장과 옥탑을 헐어 생겨난 벽들로 나머지를 완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코니 부분의 구조가 부실하여 처음 생각과는 달리 새 구조로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아 기존 주택 구조의 상당부분을 헐 수밖에 없었다. 벽돌을 쌓고 위에 테두리 보를 만들어 올린 구조로 부분부분 보완해야 했으며, 기존 주택 위로 건물을 더 올려 짓는 것은 할 수 없었

다. 대신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오른쪽 주차장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주택과 이어 쓰는 것이 당연했다.

통로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방이 늘어선 기존 건물의 질서를 그대로 새집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오른쪽으로 덧붙여 짓는 집과 기존건물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다. 새로 고쳐짓는 건물은 세 줄의 알하는 공간이 늘어지고 그 사이로 두 줄의 통로가 있는 모습이다. 양쪽의 통로로 막혀버린 가운데 부분은 슬라브 바닥을 뜯어내 아트리움을 만들어 지하층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게 만들었다. 언덕에 지어져 지하층 남쪽이 드러나 있어 지하층의 창과 아트리움은 지하층만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내부 깊숙한 곳까지 충분한 자연환기가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아트리움에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계단을 놓았고, 아트리움 주변으로 통로가 감아도는 모습으로 만들어 집안 곳곳을 한 눈에 느끼며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 층으로 나뉘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하나의 공간 속에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폭이 넉넉한 통로에는 아트리움을 향하여 푸르게 늘어질 '벌아이비'를 심을 수 있는 플랜트박스를 만들어 공간에 활기를 주고, 통로 안쪽으로는 출판사의 수많은 도서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책꽂이를 벽돌 벽과 두툼한 나무 널로 만들었다. 이동공간이면서 전시공간, 수납공간,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다.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천창은 햇빛을 부드럽게 산란시키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빗소리도 잘 들리게 만들 것이다. 외부공간으로 만들어진 새로 만든 통로와 함께 바깥세상의 이야기가 집안 구석구석 들어오도록 하였다. 아트리움의 맨 아래 부분인 지하에는 여유 있는 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며, 직원들의 실내 휴게 장소로 주로 이용될 것이고, 지하층 대형 세미나 실 앞의 시원한 여유공간 역할을 할 것이다.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통로의 바닥, 계단 바



1970년에 지어진 주택평면

다은 나무 널로 마감하였다. 덧붙여 짓는 건물의 외벽과 새로 만든 통로와 아트리움 사이의 커다란 창틀, 계단과 난간의 손잡이를 나무 널로 만들어 집안의 열린 공간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비슷한 느낌의 한가지 나무로 만들어진 집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나무 널은 환경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새로 덧붙인 건물의 남쪽 외벽 나무 널은 햇빛을 반사하여 아트리움 내부에 나무 색의 빛이 창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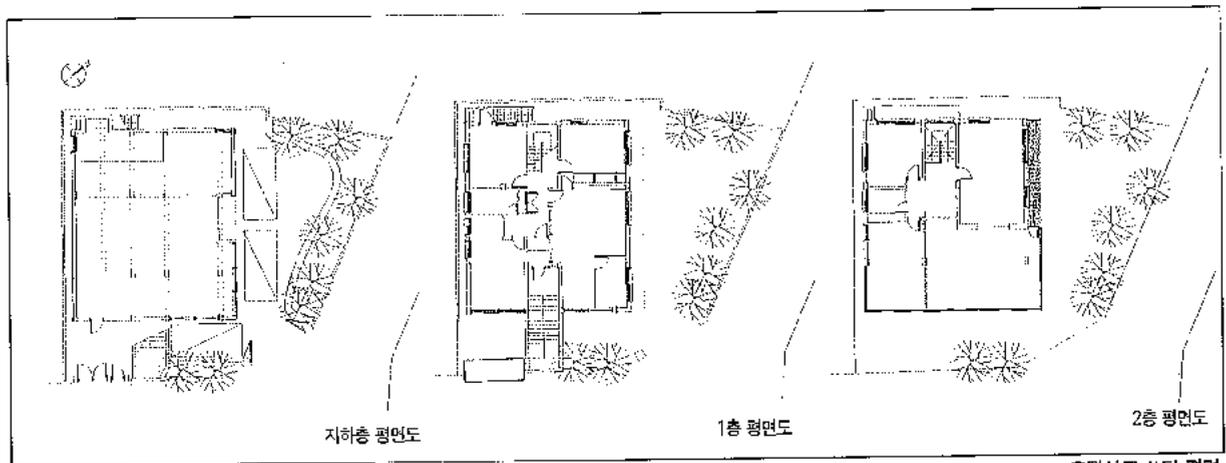
전체 건물의 형태는 내부 공간 질서인 세 줄의 기능공간과 두 줄의 통로가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셋으로 나뉜 건물은 작은 세 개의 건물이 연이어 서있는 모습으로 잘라진 부분 하나의 크기가 주변의 건물 스케일을 닮아 동네의 이웃집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운데 부분은 조금 높게 만들고 왼쪽 부분은 조금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밋밋하지 않게 변화를 주었다. 기존 건물 부분은 밝은 크림색의 고풍토 벽돌로 감싸고 기존의 주택의 형태를 드러내는 반듯한 모습이나, 새로 덧붙여진 건물은 이와 대비되게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고 나무 널로 감싸, 이미 있었던 건물과 새로 지어진 부분을 저질로 구분하여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덧붙여진 새 건물의 형태는 사선으로 기울어진 대지경계로 이그리진 사각형의 평면이 되었고, 뒤쪽으로 일조권 높이제한에 맞게 기울어진 벽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정면과 오른쪽 길에서 보이는 면은 주변 건물과 같이 반듯한 면이 되게 만들어 변형된 면과 공간을 밖에서는 쉽게 알 수 없도록 숨겨놓았다. 출판사 주 출입구는 새로 지어진 건물의 벽을 따라 만들어진 복도를 통해 들어가면 나온다. 뒷뜰에 심어 놓게될 오죽을 보면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출입구로 드나들면서 보이는 동네 건물들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다 하여도 집 곳곳에서 동네의 여러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았다. 통로는 좁은 편이지만 시작과 끝 부분을 나팔꽃처럼 둥글게 벌려놓아 전체적으로 곡면의 벽이 만들어졌다. 점점 좁아지는 통로를 부드럽게 빨리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곡면을 따라 휘어져 붙여진 나무 널을 보면서 경쾌하게 입구를 향해 걷게 될 것이다. 건물 밖에서 출입문까지 조금 넉넉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를 만들어 여유 있고 풍성한 공간이 있는 집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들어가며 왼쪽으로 난 커다란 유리창을 통하여 출판사 내부 풍경을 한눈에 보게 한다.

밤이면 아트리움에서 배어 나오는 집안의 조명은 입구 앞 통로를 밝게 만들 것이다. 입구 오른쪽으로 손님을 위한 갤러리, 왼쪽은 일하는 출판사로 들어서게 된다. 덧붙여진 건물 1층은 '현암갤러리'라 이름 짓고 북카페, 전시 갤러리, 작은 이벤트 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게 만들었다. 지하 세미나 룸과 함께 동네 사람과 출판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출판사 고유의 업무공간과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드나들 수 있게 고려되었고, 이곳만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집 전체 모습과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층은 출판사를 찾은 외부 손님을 맞고 접대하는 곳으로 하였다. 안내 데스크, 사장실, 회의실이 있고 운동방 하나를 '현암사랑방'으로 이름 지어 문인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2층, 3층은 편집부에서 사용한다. 각기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편집실이 있다. 1층에서 올라와 곧바로 별동으로 이어지는 곳에 편집주인이 사용하는 방을 만들었고, 잦은 회의를 고려하여 회의실을 하나의 공간에 넣었다. 주간 업무공간은 미송합판으로 만든 'ㄱ'자 모양의 칸막이로 영역을 분명히 하였다. 밖으로 난 창문은 낮고 좁게, 수평으로 길게 만들었다. 서서 보면 동네가 내려다보이고 자



출판사로 쓰던 평면

리에 앉으면 멀리 언덕 스카이라인과 하늘이 이어져 보이는 높이가 되도록 하였다. 크지 않은 방이어서 큰 창보다는 수평으로 긴 작은 창이 오히려 옆으로 벌어져 와이드스크린의 풍경을 만들어 내도록 고려하였다. 다행히 한편으로 이국적인 모스크 돔 지붕이 장식처럼 눈에 들어온다. 벽을 가득 메운 책꽂이는 벽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게 하얗게 만들었다. 꼽아놓을 수많은 책들이 잘 드러날 것이다. 편집주간을 만나러 온 저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방 풍경을 연출하고 싶었다. 본 건물에서 별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브리지를 건너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건물과는 전혀 다른 소재인 철골과 유리, 알미늄 창으로 만들었다. 뒤쪽 출입구 상부를 통하여도 편집주간실에 딸린 회의공간으로 갈 수 있다. 직원들도 사용하게 될 회의 공간이나, 외부로 나와 다시 내부로 들어가게 하여 만들어진 불편함으로 편집주간이 주로 사용하는 회의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3층 편집실은 독립적인 위치에 어울리는 성격을 갖춘 편집 팀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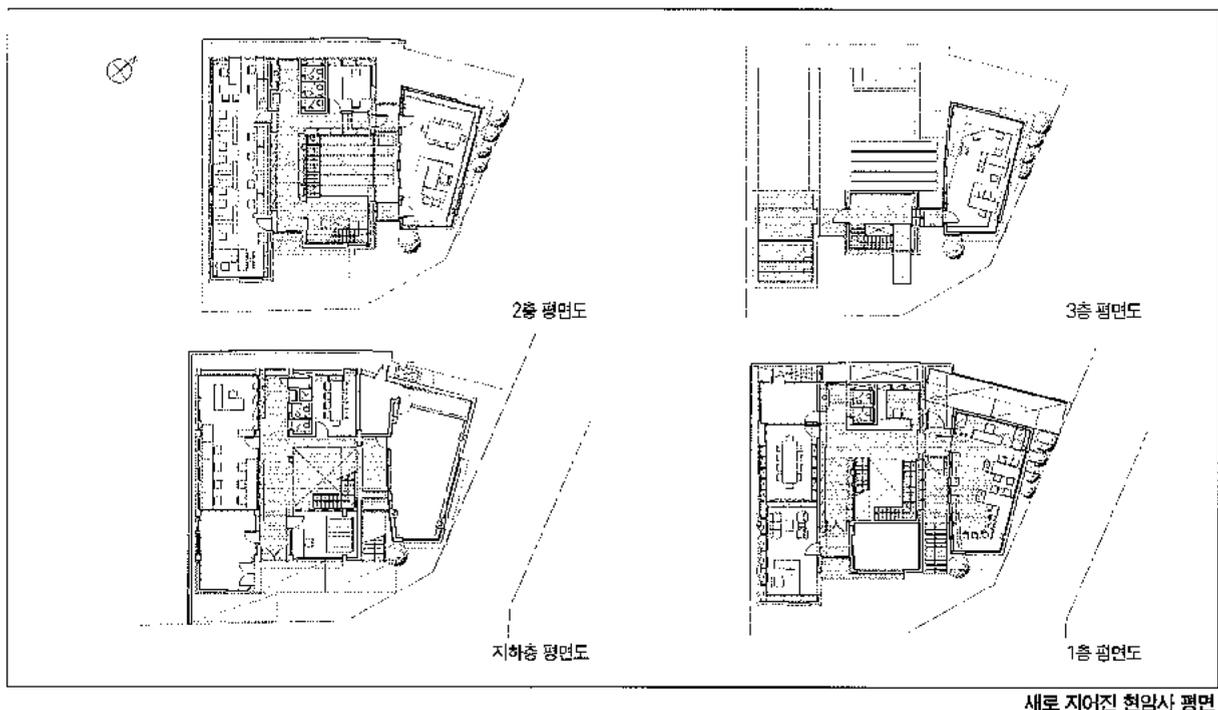
3층 편집실 건너, 기존 주택의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었다. 야생화 권위자와 함께 가꾸게 될 곳이다. 건너 주택 쪽으로 심어질 조릿대는 잘 자라서 뒷집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이고, 옥상 정원에 앉게 될 사람에게 푸른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큰길 쪽으로 올라간 건물, 3층의 새 건물, 그리고 뒷집은 옥상정원을 둘러싸 조용하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 왼쪽 건물 옥상은

옥외 강의실이다. 별 관찰과 같은 야외 행사에 사용될, 출판사 식구 모두가 옥상에 모여 앉아 회의를 하기에 적당할 크기로, 나무 널로 만들어진 계단형의 야외 강의실이다. 옥상정원 한 구석은 지금 젊은 천문대장이 열심히 렌즈를 깎아 만들고 있고 있는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도록 비워놓았다.

지하층은 영업부와 관리부가 사용하고, 출판된 책을 임시로 보관하고 밖으로 내가기 쉬운 장소이다. 아트리움 아래 넓은 부분은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는 마당이고, 직원들이 쉽게 나와 차 한 잔을 나누는 장소가 될 것이다.

사람의 스케일로 지어진 주택을 다시 고쳐 지으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집안 구석구석을 쉽게 휴먼스케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휴먼스케일을 지켜내고 더욱 익숙하고 다정한 스케일임을 쉽게 깨닫게 만드는 과장된 스케일도 집안 곳곳에 존재한다. 세 개 층이 열려있는 아트리움이 그렇고, 출입구 앞 복도의 계곡과 같은 좁고 높은 골목도 그렇다. 또 각층마다 기존 주택의 통로부분을 앞 뒤 외부로 열어주어 외부로 내부공간이 특 트여진 부분도 작은 스케일의 집과 대조적으로 어울릴 수 있으면 하였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 우리나라 출판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반세기가 넘는 연륜의 출판사를 담으려 하였다. 집을 쓰는 사람들,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감싸안을 집으로 남기 바란다. 



새로 지어진 현암사 평면

## 건축구조 안전과 향간의 소문들

### Rumors Surrounding the Safety of Architectural Structures

#### 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이창남 / (주)센 구조연구소

by Lee Chang-Nam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가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심장이라고 한다. 눈이 없거나 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앞의 질문에 “뼈대”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분당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들러본 적이 있다. 평당 단가가 530만원이라고 한다. 서울의 어떤 호화 아파트에 비하면 1/3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다 거품 맛사지 욕조, 대형 냉장고에다 오디오 시스템까지 붙박이로 되어 있다. 물론 전부 외국산이다.

가설 건물인 모델하우스는 눈이 휘둥그래질 만큼 호화스러우며, 방문객들에게는 늘씬한 도우미들이 방문기념품이라며 선물도 건네준다.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아파트를 지탱할 뼈대를, 안전하면서도 값싸게 짓도록 계획을 하고, 기둥·보·기초 등 각종 주요 구조 부재들을 설계하는데 든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의외의 사실일지 모르나, 평당 1천 원 정도이다. 감(感)이 잘 오지 않을까 싶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32평형 아파트에 투입된 구조계산 비용이 세대당 3만2천원~320만원이 아니라 3만2천원이다에 불과한 것이다. 시공회사가 집집마다 서비스로 깔아둔 현관 매트 가격도 이보다는 비싼 것이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싼 값에 일하면서도 갖은 비난과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조 기술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3D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대로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므로, 동료·선배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덤핑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약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대로 과다 설계로 인한 낭비와 불안정한 건축물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붕괴 사고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한 시민들은 건축계 전체를 불신하는 경향으로 치달고 있으며, 소문은 소문대로 눈사람처럼 불어나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부추기는 풍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조기술자들 중에는 지금도 “허준” 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있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그들까지 도매금으로 사방에서 날아드는 억울한 비난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변명이나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도 가끔 구조 관련 사고 또는 의혹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 때마다 하도 마음이 답답하여, 어디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다.

요즘은 누구나 바쁜 세상이라, 말이 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바, 건축 구조란 건축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굴치 아픈 3D 분야이므로 만화처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간혹 주변 친지들의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건축구조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거도 없는 잘못된 소문이 어마한 여파도 없이 그대로 “분노와 걱정거리”로 각인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건축구조 기술자로서 안타깝고 억울한 일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간의 관심거리 몇 가지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런 글을 쓰게 된 나의 입장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법정에 증인으로 서 본적이 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오른 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하지만 원고 측과 피고 측 증인 모두가 분명히 그같은 선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물며 인천 국제공항에 관련하여 근간에 소위 ‘양심선언’이라는 폭탄선언으로 나라를 들끓게 한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랬다 해도 심각한 문제이고, 만약 몰라서 그같은 발언을 했다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일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인간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소위 ‘양심선언’을 한 사람도, 또한 여객터미널 신축에 관여한 사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필

자도 결코 완벽하지는 못함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물인 여객터미널의 건축구조가 부실하다?”

최근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대한 해명

### 소문 내용 1:

건물의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여객터미널 루프 트러스(지붕 뼈대)의 불량 용접으로 인한 균열이다. 사실 루프 트러스는 여객터미널의 주요 구조이며, 응력을 많이 받는 곳이라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며, 부득이 용접을 할 경우 용접 가운데에 철심을 박고 특수 용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이미 용접 부위에 균열이 간 곳이 수도 없이 많다는 데서 문제점이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 설명:

위 내용에서 “응력을 많이 받는 곳에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아마도 “응력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현장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잘못 알고 지적한 것이라고 좋게 해석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하는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문제의 전문가라면 당연히 건축구조 분야를 말한다.

길이가 100m나 되는 여객터미널의 지붕 뼈대는 전 길이를 통하여 가급적 응력의 크기에 적합한 단면을 선정한 것이므로, 현장 접합 부위의 응력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경우조차도 접해보지 않은 기술자는 경험 있는 구조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용접 가운데에 철심을 박고 특수 용접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필자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국적 불명의 공법이다. 혹시 필자도 모르는 사이에 최근 개발된 첨단 공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많은 구조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았으나, 금시초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답변이었다.

그 동안 말도 많던 이른바 황균열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용접은 크게 주(主)응력 방향의 공장 용접(강관 제작 공정중에 행해지는 용접)과, 주응력에 직각이 되는 방향의 현장 이음 용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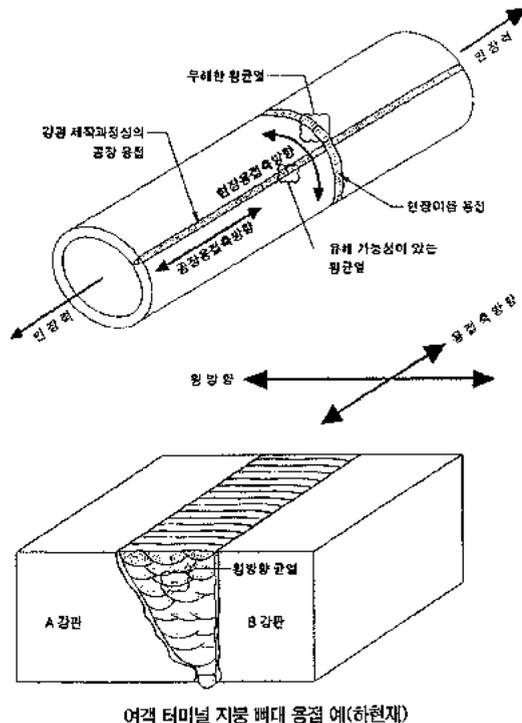
다.

공항 터미널에서 먼저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현장 이음 용접이다. 현장 용접은 공장 용접에 비하여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응력이 큰 곳에서는 가급적 현장 용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현장 용접을 해야만 하는 경우, 경험 많은 구조 전문가는 현장 용접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재 단면 자체가 충분히 큰데도 불구하고 완전 용입 용접으로 설계하거나, 또는 모살 용접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맞댐 용접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다.

황균열은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용접 단면 내부에만 있는 미세한 불연속부로서, 사실상 '균열'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횡방향 미세 불연속부(部)"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 실무상 '황균열'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이며, 건축 공사장에서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최초로 문제화된 것이다.

매스컴에서 '황균열'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균열'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뭔가 심각하게 위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



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건축구조물에서는 그다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어서, 아직 이에 관한 기준도 없는 형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황균열'은 정상적인 초음파 탐상 방법으로는 포착되지 않으며, 오히려 두께가 두꺼운 고장력강(鋼)(TMC)에서 더 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TMC강(鋼)은 20여년 전부터 생산되는 고급 재료로서, 아마 그동안 이를 사용한 용접 접합 구조물에도 황균열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구조상의 결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지금까지는 굳이 문제삼지 않았을 뿐인데, 인천 국제공항에서 유난히 정밀하게 뒤지다 보니 새로 알려진 용어인 셈이다.

처음에는 황균열이란 열악한 환경에서 시행하는 현장 용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후에 공장 용접에서도 발생한 것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그림에 표시된 (강관 제작 과정상의 공장 용접)이다.

용접은 두 개의 다른 강재(鋼材)를 서로 녹여 붙이는 것이다. 두 강재를 접합하는 데는 구멍을 뚫어 너트와 볼트를 리벳으로 끼워 조이는 재래식 방법도 있으나, 각 접합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차츰 용접 접합이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강재의 접합은 그 접합부에서 반드시 전체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부재 내력의 불과 50%만 지탱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구조 전문가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전문 분야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구조 전문가들이 황균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리벳이나 볼트 접합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에 그보다 훨씬 단단한 공법인 용접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선박이나 기계 분야에서 시공하는 용접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윗도리에 단추를 달거나 지퍼를 붙여도 되는 터에, 아예 통으로 꿰매는 방식이면 감지덕지라는 격이다.

위 지붕 트러스의 각 이음과 접합은 부분에 따라 접합부의 강도가 모재(붙이고자 하는 부재) 강도의 90%, 80%, 또는 50%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미관상의 문제, 또는 용접 부실시의 2중 안전장치로서 구조 전문가가 100%로 지정한 것이다. 특히 용접 접합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며, 이것을 반드시 낭비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

어, 강관 제작시 그림의 공장 용접을 필요 최소 요구조건 그대로 "어느 부분은 두께를 20mm로 하고 다른 부분은 30mm로 하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에도, 문제가 제기된 직후 여객 터미널의 구조 설계를 담당한 당사자인 구조 전문가가 면밀한 검토 끝에 "용접부의 횡균열은 구조 안전상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최종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질문에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굳이 시험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다.

시험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든다. 물론 시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횡균열이 있는 용접부 시험편 중 어느 것도 용접 부위가 모재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험은 인장시험, 매크로 시험, 마이크로 시험, 피로 시험, 사르피 테스트, 크랙 어레스트 테스트 등 총 76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것도 부족하여 "이를 국내·외의 공인된 학술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오라"는 지시에 따라 대한건축학회, 그리고 용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영국 맨체스터 공대의 버드킨 교수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끊임없이 걱정을 하므로, 상부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각 용접 부위에 계측기를 부착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숯불에 구운 꽃게도 모양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매 놓고 먹으라는 옛 말도 있으니, 또 하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용접부의 각종 흠은 모두 보수되었다. 필자의 의도는 용접 품질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횡균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성 및 안전성 모두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다. 초음파 탐상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용접살 내부의 미세한 횡균열들을 전부 찾아내서 보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보수한다고 해도 또 다시 횡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소문 내용 2:

...철골 기초변경 또한 엄청난 문제이다. 원 설계도와 시방서에 나온 철골을 세우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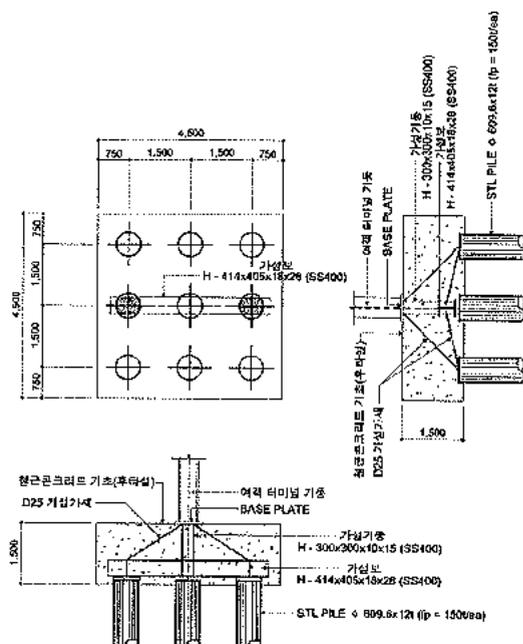
(철골 기둥 1개에 해당하는 위치에 말뚝 8개-12개 정도를 박고, 그 위에 1,500mm 높이로 독립기초를 세운다. 그리고 그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철골기둥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양생 소요 시간 등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서너 개 정도의 말뚝 위에 H빔을 설치하여 철골을 올려놓고 콘크리트를 일괄 타설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즉 8개 내지 12개 정도의 말뚝을 박아 철골 기둥을 세우게 한 원 설계가 말뚝 2-3개 정도의 힘으로 지탱하도록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만일 원 설계자의 구조계산이 맞다면 현 시공 방식으로 건설한 공항 건물은 점차 침하할 것이고, 설계 변경한 구조계산이 맞다면 원 설계는 과 설계이다. 1천 개 이상의 기둥이 과 설계된 것이라면 이는 수 백억 대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아하 생략.

철골 기초공사 역시 원 설계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빼먹고, 편법 부실 설계와 시공을 했다. —아하 생략.

## 설명:

항상 무지(無知) 그 자체보다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여객 터미널 기초 예 (F5)

이제는 건축 구조나 공사 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 이제는 이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명동의 미즈백화점, 그리고 원효로의 39소핑 건물은 기초 공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실 땅 파기와 상부 골조 공사를 동시에 시행한 수많은 건물들의 한 예이다. 필자가 이 Top-Down공법으로의 공사를 지원한 대형 건축물만도 이제는 40동이 넘는다.

아래 그림은 공항터미널 빌딩에 적용한 기초 공법이다.

물론 공항터미널의 최초 설계 당시부터 Top-Down공법으로 설계했던 것은 아니다. 실상은 이렇다. —한겨울 영종도의 바다 바람은 사람이 밖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섭다. 말뚝을 박고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할 시기에 겨울이 찾아왔다. 매스컴에서 소위 '양심선언'을 토대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악천후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1천 개 이상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 끝에 앞의 Top-Down 공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기존 말뚝 일부에다 H형 강을 얹어 역 T 형으로 가설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상부 골조를 진행하다가, 날이 풀리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본 공법을 택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이 다소 증가하지만, 공사 기일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유리하다. 물론 이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상(上) 충분한 사전 검토를 마쳤고, 각 단계 별 승인 절차도 밝아 시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기초의 설계와 구조계산은 오류도, 과설계도 아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는 원설계대로 정확히 설치되었으며, 아래 다시 언급하겠지만 영종도의 지반조건상 기초 침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백억 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은 기우(杞憂)에 불과함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 소문 내용 3:

...시공 잘못. 만성 적자... “애물단지 된 간사이 공항”—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없으면 인천 국제공항도 일본의 간사이(關西)국제공항 꼴이 날지도 모른다.

### 설명:

간사이 공항은 인천 국제공항과 비슷한 컨셉트로 계획되어 먼저 개항했고, 예상치보다 큰 지반 침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Made in Korea는 무조건 Made in Japan에 비해 떨어진다고 믿는 대다수 국민들의 경향을 생각할 때 인천 국제공항을 간사이 공항에 비추어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간사이 공항은 진흙탕 위에 겨우겨우 떠있는 뗏목에 비유할 수 있다. 현재의 간사이 공항 부지는 수심 18m의 바다였던 곳을 33m나 메워서 조성한 땅이고, 바다 밑 400m까지 파내려가도 단단한 지반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때문에 말뚝은 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매트 기초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으며, 차후 50년간 11m정도는 가라앉을 것을 애초부터 예상하고 시작한 모험이었다. 그들은 땅이 가라앉아 건물이 찌글찌글 바들바들하게 되면, 그 때 가서 더 많이 가라앉은 기둥을 자동차 바퀴 뺄 때처럼 유압 잭으로 들어올려 철판 썩기를 끼우도록 준비해 두었다. 문제는 기초의 침하량과 그 속도가 설계 당시에 예상했던 값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반면, 인천 국제공항 부지는 간사이 공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초 지반 상태는 극히 양호하며, 40m를 채 파지 않고도 경질 지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부지이다. 여기에 강관 말뚝을 경질 지반까지 박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것이므로, 간사이 공항의 기초 침하 상황을 인천 국제공항과 연관지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여기에 밝힌다. ㉮

## 사랑의 집짓기 운동 참관기

### An Essay on the 'HaBITAT' in Kwang-Yang

이정수 / 호서대학교 교수, 건축사  
by Lee Jeong-Soo

16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낙선운동'을 겪으면서 우리는 'NGO'라는 단어와 '시민운동'의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축을 생업의 수단으로 하고있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NGO'나 '시민운동'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인 양 그리고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서는 건축사들이 주변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NGO운동을 소개하고, 이번 여름 광양에서 개최된 '평화를 여는 마을' 행사를 참가한 후 느낀 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사랑의 집짓기(HABITAT) 운동이란

사실 해비타트(Habitat)는 말 그대로 거주지란 뜻이다. 즉,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운동이다. 1976년 밀라드 풀러(Millard Fuller) 부부에 의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65개국에 10만채가 넘는 집을 건축하였으며, 전세계 40여개국에서 매년 수만채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개인, 교회, 기업, 각종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희망의 지붕을 만들어주려는 운동이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전과정을 통하여 모두 자원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의해 건축되는 집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노동과 기부된 자재, 그리고 후원된 건축 기금이 사용되어 일반 건축비의 60% 정도로 건축된다. 이 집들은 집 없는 가정에게 무이자, 비영리의 원칙으로 저가 판매되며, 입주자정은 자신의 집이나 다른 이들의 집을 짓는데 최소한 500시간 이상 노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원가를 약 15년 정도의 정해진 기간 내에 무이자 분할 상환함으로써, 입주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조 주택 건축운동이다. 이 상환금은 '회전기금'으로 적립되어 또 다른 이웃의 집을 건축하는데 계속 사용된다.

현재 국제 해비타트는 전세계적으로 67개국에 1,700개의 지회가 있으며, 100,000여 채의 집을 이

웃들과 함께 건축되었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연합회 (<http://www.habitat.or.kr>)는 1995년 건설 교통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2000년 초 현재 국내에 39채(의정부 15채, 태백 8채, 진주 등), 해외(필리핀) 120채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의정부, 태백, 진주, 서울, 대구, 천안·아산, 울산에 지회가 있다.

## JCWP(Jimmy Carter Work Project)

“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로 있을 때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미 카터)

흔히들 사랑의 집짓기(HABITAT) 운동은 지미 카터(Jimmy Carter)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운동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지미 카터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한사람일 뿐이다. 국제 해비타트는 1984년이래 매년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자원봉사단장으로 하는 「Jimmy Carter Work Project (JCWP)」라는 대규모 단기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JCWP에서는 매년 세계각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 사랑의 집을 건축함으로써 봉사하고 있다.

이렇듯 사랑의 집짓기(HABITAT) 운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의 실천운동이다. ‘집짓기’ 운동이라고 하니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참가가 가능한 운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내가 흘린 땀방울 위에 한 채 두 채 집들이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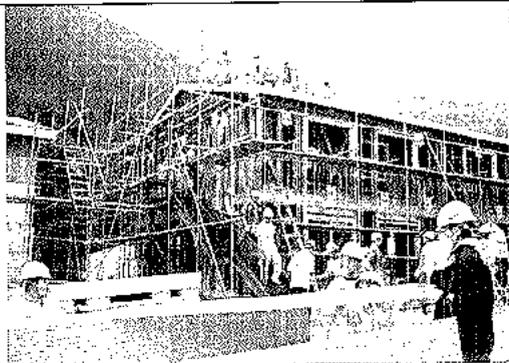
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000년도 ‘평화를 여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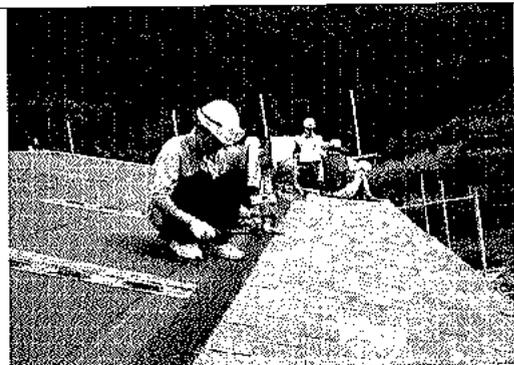
국내에서는 올 여름(2000년 8월 6일~12일), 섬진강변인 전남 광양시 다암면에서 ‘평화를 여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34채의 집이 건축되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4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운데에는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서 참가한 150여명의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1주일동안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일하는 가운데, ‘땀으로 하나되는’ 민족 대화합의 마당이 열린 것이다.

이 행사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1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 참가비(학생:150,000원, 일반:170,000원)와 함께, 자신이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 및 연장을 지참한 상태에서 현장에 모여들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많은 건축 전문가-건설업체, 건축사, 교수, 그리고 현장 근로자 등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함께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였다.

건축현장은 각 동(4세대)의 작업을 진행하는 빌딩 리더(building leader) 3명과 크루 리더(crew leader) 7명이 배정되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의 지시에 의해 매일 작업을 지시받아 함께 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 동별로 현장에 참가한 빌딩 리더나 크루 리더의 수는 태부족이었고,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작업을 지원하는데 돌발적인 난제가 대두되곤 하였다. 필자 역시 대학내 학생들과 함께 단순 자원봉사자로서 참가하였지만, 빌딩 및 크루 리더 부족으로 크루 리더(crew leader)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골조만 완성되어 있던 작업 첫째날



자원봉사자에 의한 자봉공사

실제적으로 국내에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스틸 하우스 공법과, 대규모로 처음 실시되는 집짓기 행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수행능력과 작업 완성도에 대한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의 모습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다. 사실, 집짓기는 '개미군단(자원봉사자)'의 승리이었다. 1,400여명에 달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모여서,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가지씩 물어가면서 정성과 열정으로 집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가능한 빨리 완성하고자하는 의욕이 앞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의적으로 시공하는 등, 그리고 이를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등 시행착오와 수정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건축자재 및 장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낭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건축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내년(2001년 8월 5일-12일)에는 HABITAT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JCWP(Jimmy Carter Work Project)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현장에는 전세계 35개국에서 10,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국제 자원봉사자도 2,00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하여 120채의 주택이 국내의 집 없는 가정을 위하여 제공될 것이다.

이번 평화를 여는 마을 행사를 지켜보면서, 「건축사 현장」에 새겨진 "건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선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사실 내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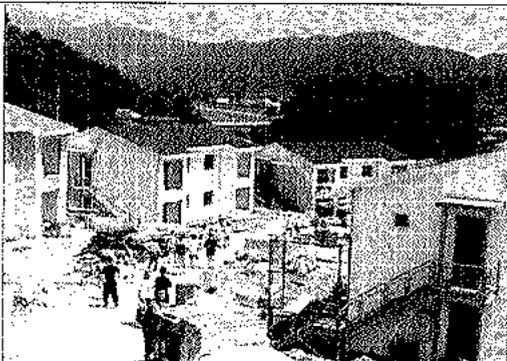
JCWP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많은 건축 전문가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원 봉사자에 의한 내부 안전공사



외국인 자원봉사자의 작업모습



완성단계의 단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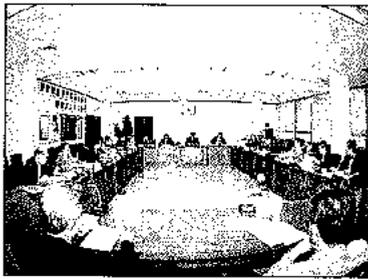
업씨안은 입주자의 자원봉사자(헌정식)

협회소식 / 75
건축계소식 / 77
해외잡지동향 / 81
법령 / 87
현상설계경기 / 9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0
회원현황 / 102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10회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9일(화)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
- 제2호의안 : 정책고문 위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협회의 위상 강화 및 건축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회의 대외교섭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상근 정책고문을 두기로 함. 김연관/43년생/조선대법학과졸)
- 제3호의안 : 특별대책위원회 건의 사항 처리에 관한 건  
-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다음 이사회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심의키로 의결함.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

10월 17일 합격예정자 발표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지난 9월 3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건축법규와 건축설계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는 건축법규에서 5,794명 중 5,033명이 응시해 86.9%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건축설계에서는 5,742명 중 5,020명이 응시해 87.4%의 응시율을 보였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오는 10월 17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근창회원, 아카시아 부회장으로 피선

제9차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우리협회 이근창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카시아(ARCASIA) 부회장으로 피선됐다. 「Asia: The State of The Architect」를 주제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제21차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돼 2년동안 C지역 아카시아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 설계도서신고 올 연말까지 존속

미신고 일부회원 행정처분 불이익

올 연말까지는 건축설계도서의 신고의  
무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  
들이 이를 오인, 협회 도서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방 건축사회에 따르면, 올  
들어 설계도서신고를 시행하지 않고있

는 회원들에게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  
을 발송하는 등 건축사법상 설계도서  
신고 의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의 강제를 통해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설계도서 미신고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회원 E-Mail계정 서비스 개시 및 신청접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에 한하여 협회 인터넷을 통한 회원  
의 무료 E-Mail계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대략 1,500  
명정도이며, 사용가능공간은 각 계정당 잠정적으로 5MB입니다.

일정기간까지 접수완료 후 서버의 저장공간을 환산하여 각 계정에 맞는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Mail활용 방법 및 범위는 점차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며  
많은 회원님들의 가입을 바랍니다. 현재 접수가능하며, 가입신청후 3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 신청회원에게 Mail로 가입완료 및 사용가능 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KIRA.OR.KR로 접속하신후 첫 번째  
접속 화면상의 "E-Mail 계정신청" 란을 Click 하신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  
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에  
문의바랍니다.

### 신청방법

- ▷ 먼저 HTTP://WWW.KIRA.OR.KR 로 접속합니다.
- ▷ 첫번째 화면에서 "E-Mail" 계정신청" 란을 선택합니다.
- ▷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난 후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귀하의 기본사항이 나타납니다.
- ▷ E-Mail ID 난에 원하시는 ID를 입력하시고 "E-Mail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접수 완료가 됩니다. 만약 지정하신 ID가 이미 사용중일 경우엔 다른 이름  
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 등 기타 위에 나열된  
사항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각 시도건축사회에 연락하여 수정토  
록 협조바랍니다.
- ▷ 신청을 완료하신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4)으로 문의  
바랍니다.

## 건축자재정보 회원가입 안내

### 목적

기존 CATALOG정보 중심의 자재정보  
를 탈피하여 건축사, 시공자 등 기술자  
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CATALOG정보 뿐만 아니라 시방서,상  
세도, 물성 등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INTERNET를 통하여  
SERVICE 함으로 건축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DB의 특징

- 기술정보 즉 제품의 시방서, 상세도, 물  
성 등을 데이터화하여 건축관련관계자  
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재업체, 설계자, 시공자간에 개별적  
인 정보교류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낙후성을 탈피함으로써 경쟁력  
을 제고함.
- 사업적 소득보다는 정례화를 통한 정  
보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  
서 참여 업체관리차원의 유지관리비만  
부담토록 할 계획임으로 업계의 부담  
을 최소화함.

### 비용(자재회사 부담)

- DB구축 : 협회가 전액 부담함으로 가  
입비용은 무료임.
- 유지보수비용 : 평균 월 1만원 정도(계  
재된 정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 제출용 자료(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 회사정보
- 자재일람표
- CATALOG, 시방서, 상세도 등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우선  
송부
- \* 자료를 검토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 문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  
55 대한건축사협회 (담당 / 허훈)
- 전화 : (02) 581-5711~4

## 「안토니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 1852 ~1926) 특별전시회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KBS, 주한스페인대사관 등이 후원하여 경기도와 스페인 까탈루냐주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은 물론 국내 건축 및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개막식에는 스페인 아스날연방수상과 가우디대학원의 바세고다 대학원장, 유럽상공회의소 네그레 부회장이 테이프커팅과 라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품은 스페인이 자랑하는 국보급 문화재로 총 180점이다. 특히 가우디성당 박물관의 작품 14점과 다나까 박사 개인 소장품 12여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된다. 또한 가우디대학원 제공작품 154점은 가우디 작품 원본 11점과 가우디와 함께 평생을 성가족성당(Sagrada Familia Temple) 조각가로 일한 후안 마따말라의 작품 26점, 가우디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구 및 세라믹 제품 28점, 기타 모형물 39점, 사진 50점으로 이루어졌다.

문의: 031-249-2532, 4712

## 건축가협회, 10월 금요토론회 개최

10월 6일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연구센터 강당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에서는 세계건축가의 날을 기념해서 「새로운 시대 '건축과 관광'」을 주제로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연구센터 강당에서 금요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부는 김정동 목원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남조(한양대 건축관광경영과)교수, 김봉건(문화재연구소)실장, 장현덕(문화재청)전문위원, 현영조(서울환경계획연구소)소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제2부는 김종현(배재대 건축공학과)교수의 사회로 김상태(한국관광연구원)연구위원, 양해운(한국건축가협회 역사문화위원회 부위원장)소장, 전택수(정신문화연구원 관광 전공)교수, 정보원 환경조각가, 한필원(한남대 건축공학과)교수, 조성남(중도일보 편집국장)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한옥문화원

개원기념 강좌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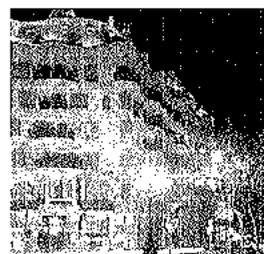
우리 민족이 지나온 사회적, 역사적 과정으로 인하여 무시되고 잊혀졌던 우리 문화와 한옥이 지니는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옥문화원' 이 목수 신영훈씨의 노력으로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원됐다.

최근 대영박물관 내에 한옥, '사랑방' 제작을 총지휘하기도 한 신영훈씨의 평생의 자료와 식견을 바탕으로 개원한 한옥문화원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강연을 유치, 본격적으로 우리 한옥을 연구 교육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한옥에 담긴 우리 기층문화 읽어내기부터 일반인 대상의 집짓기와 전문인 양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한옥문화원의 강좌 개설과목은 한국건축의 조형사상, 한국건축의 역사, 한국건축의 법식과 조형체계 등이며, 2년 과정의 전문인 양성반을 이수하고 문화원의 심사를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도 수여한다.(02-562-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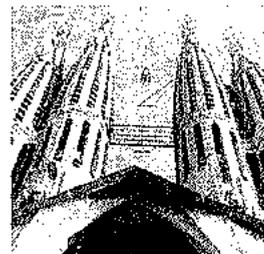
가우디성당



길리사덕



비프요 저택



사그라디 파밀리아 성당

안토니 가우디

## 「뉴욕 브루클린 하이츠 리버 공원」 국제 현상 설계

11월 20일 등록마감

USA 학회(도시 연구 및 건축 학회: Urban Studies and Architecture Institute)는 2000년도 국제 설계 현상 경기(건축, 도시계획, 조경계획 분야)를 실시한다. 이번 현상설계 경기는 뉴욕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3차원적 설계 현상 경기로, 뉴욕 베이와 맨해튼이 내려다보이는 강변을 대지로 하고 있다. 뉴욕 시에서 향후 개발 예정 중인 이 대지에 대해 새로운 도시 계획 개념을 제시하는 설계 경기이며, 뉴욕 스케일에 맞게 뉴욕 베이를 공공 광장으로 확립시킬 수 있도록 '도시벽'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수직적 공간 조직, 동선 체계, 수직 정원 개념들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 도시들의 강변 계획에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상: 건축가 부문, 학생 부문
- 제출 규격: 24"X36" 패널 3개 이하
  - 흑백 도면 및 사진 사용 가능, 영문 250 단어 이하의 개념 설명서
- 상금: 1등 \$3,000.  
총 상금 \$20,000.
- 등록비: \$150. 등록 원서와 함께 발송.
- 일정:
  - 등록 시작 - 2000년 7월 15일
  - 등록 마감 - 2000년 11월 20일
  -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응모안 제출
  - 응모안 제출 마감 - 2001년 1월 26일
  - 수상작 발표 및 전시 - 2001년 2월 9일
- 주소: USA Institute/Continuing Education: 10 West 15th Street, Suite 1126 NYC, NY 10011-6826, USA

##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

건교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양식 신설 등 일부 변경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 설치계획서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차로에 직각으로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할시 6m 이상의 차로를 당해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국제 인테리어디자인공모전

한샘 홈페이지 통해 행사진행

주방·인테리어 가구 주식회사 한샘이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Design beyond East & West)'을 주제로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대상 2만 달러를 비롯해 총5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펼쳐지는 이 공모전은 공동 주택 단위세대 평면설계 부문과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가구 및 가정용 소품 디자인 부문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2001년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한샘 측은 국내외 유명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5명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엄정한 심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입선작 실물 품평회를 거쳐 이의 제품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한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hanssem.co.kr, 02-590-3472)

## 승강기기술세미나

10월 13일 오후 1시 건설회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오는 10월 13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건설회관 2층에서 승강기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승강기관련 종사자, 승강기제조 및 보수업체를 대상으로 승강기신기술 및 신제품(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소개와 승강기검사 기준 개정부분 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esi.or.kr)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대 건축과·건축전문대학원 2학기 특강 및 세미나

11월 24일까지

경기대 건축과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건축가로서 건전한 의식과 실천을 위하여 이 시대 예술가, 건축가, 지식인과 함께하는 공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캠퍼스(지하 세미나실)와 수원캠퍼스(건축과 시청각실)에서 실시된다. 문의: 경기대 건축과(02-390-5150, 031-240-9705)  
▷SAK특강(서울 17:30, 수원 17:00)  
- 9/20(수원): 부르노 후레스키(건축가)/ 경기대마스터플랜 및 근작  
- 9/21(서울): 한충완(재즈 뮤지션)/ 애드립  
- 10/18(수원): 전인호(건축가)/ Context+Test  
- 10/19(서울): 김정란(시인)/ 비어있는 중심

- 11/16(서울): 김홍준(영화감독)/ 영  
화속의 다의성
- ▷GSAK특강(17:00~19:00)
- 9/15: 홍가이/ Digital World
- 10/27: 조성룡/ Recent Works
- 11/10: 황 두 진 / 건 축 남 녀  
Architecture and Gender
- 11/24: 조병수+Clar Llewellyn(몬  
타나대학)/ Recent Works
- ▷GSAK세미나(12:30~13:30)
- 9/27: 배병우/ 배병우의 사진세계
- 10/11: 서용구/ 진실의 순간
- 10/25: 이석연/ Film and Works
- 11/ 8: 이강현+이영범/ Nietzsche's  
Labyrinth

## 함성권, 전 건축학회장 별세

향년 82세

함성권(한양대 명예교수, 가협회 명예 이사) 전 건축학회 회장이 지난 9월 12일(화) 향년 82세로 운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함전회장은 지난 8월 4일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져 줄곧 의식불명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족은 미망인 이계옥 여사와 3남 2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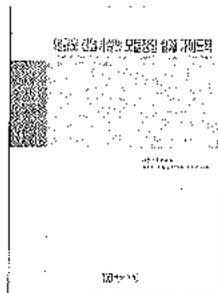
발인은 9월 16일(토) 오전 9시에 있었으며, 시신은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공원 묘원에 안장됐다.

한편,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장지에서 간단한 추모행사를 가졌다.(02-525-1841)

## 신간안내

대규모산업시설의 모듈정합설계 가이드북  
탈문맥  
구조의 구조  
OUT-8인의 도시·건축이야기  
유럽의 병원건축

### ▷대규모산업시설의 모듈정합설계 가이드북



이 책은 지난 99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관한 설계매뉴얼로써 본문(제1부~제5부)과 부록(1~4)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건축표준화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대규모 산업시설의 모듈정합 설계방법과 설계예시도를 수록하였고, 부록에서는 모듈정합설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별 국가기준과 규격 등을 종합하여 소개함으로써 실무 활용성을 적극 제고하였다. 특히, 이 책은 건축관련분야(업계-생산·설계·시공·유지관리,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건축모듈, 표준화, 부품화, 오픈빌딩, 개방형시스템 등에 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김수암·김홍용·박성환·박준영 공저/1만2천원/288페이지/도서출판 세림기획 펴냄 (02-2272-5068)

### ▷탈문맥



이 책은 한국 최초의 건축SF소설을 표방하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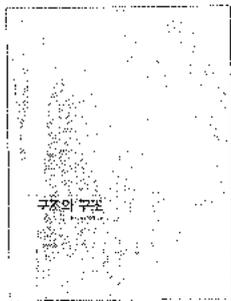
한국을 탈문맥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탈문맥의 야심과 이에 맞서는 THF, 이들은 세계의 거대한 투세력으로 한국지배를 위한 고도의 치밀한 공작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한국의 문맥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건축가 김돈근이 서울을 배경으로 한국의 맥을 차단하고 있는 중심건물을 찾아 폭파하는 과정이 영화처럼 스피디하게 전개된다. 건축인에게 친근한 언어들이 등장하고 실제지명과 한국의 맥을 끊는 건축물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해 볼 수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저자는 소설의 기획의도를 ·한국 최초의 건축소설에 도전한다. ·잘못된 건축이 국민의 정신세계마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SF적 요소를 가미하여 스풀릿고 흥미 효과를 높였다. ·결국 앞으로 세계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강한 암시를 담고자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 양용기는 건축학교수로서 “왜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진정한 건축언어가 없을까?” 뿌리도 근거도 사상도 철학도 없이 생겨나는 서양건축물이나 아파트들이 우리국민에게 얼마나 비참조적이고도 획일적인 사고를 가져오는지를, 잘못된 건축물이 국민의 정신세계조차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탈문맥”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양용기지음/8천원/416페이지/도서출판 달계 펴냄(02-537-0464)

▷건축가를 위한 건축구조 이야기  
구조의 구조



이 책은 건축구조에 대한 기초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까지 서양건축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해 시대마다 흘러온 양식의 변화를 기술이라는 잣대로 설명한다. 평상시 저자는 현대건축에서 공통언어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함인선의 건축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그림이 수록돼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그동안 수식으로 가득차서 어렵고 딱딱했던 구조에 대한 편견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한다.

함인선지음/1만6천원/246페이지/도서출판 발언 펴냄(02-929-3546)

▷OUT-8인의 도시·건축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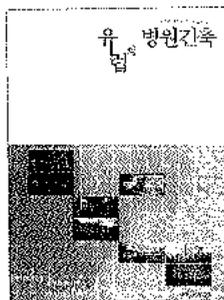


이 책은 강대화 등 8인의 전시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고민했던 건축과 도시에 대해 건축 이외의 다른 분야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OUT of site, studio, frame, rul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이 책에는 건축가들이 전시라는 형식을

택하게 된 배경과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들기까지 작가들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 책에는 전시회의 주제와 관한 철학, 사회학, 미술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담론을 함께 실어 건축가들과는 다른 눈으로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그들의 말들이 내부적으로는 건축, 미술, 인문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대중들에게 건축과는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 저자 8인은 이 책이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도시와 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강대화 외 지음/1만원/89페이지/도서출판 비온후 펴냄(051-464-4115)

▷유럽의 병원건축



병원건축물에 대한 답사 연구서가 발간됐다. 단순한 답사보고서가 아니라 연구와 병행된 것으로 그 내용이 병원건축계획과 설계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과 유럽의 병원들이 이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 관계자의 노력과 환경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책은 저자가 포스트다 연수과정 통해 1년동안 병원건축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유럽의 우수한 병원 50여 개를 연구 답사한 결과를 묶어낸 것으로서 일반적인 답사가 아닌 연구자의 시각에서, 건축계획을 하는 시각에서 체크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답사지는 벨기에,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선진국으로 각국의 의료체계에 따른 병원시설의 성격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 할 수 도 있으며, 특히 수록된 사진자료와 답사기의 꼼꼼한 내용은 책의 내실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사진자료는 전문가가 아닌 답사자로서의 분주함과 어수선했음이 느낄 수 없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저자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병원건축은 건립과정에서 건축가의 노력만으로는 우수한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 의사, 간호사, 기술직, 관리직 등의 높은 안목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책이 건축가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전문가들의 병원건축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적고 있다.

문창호 지음/2만원/239페이지/(주)이상건축 펴냄(02-549-5383)

Domus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a+u  
 건축문화  
 신건축

Domus

2000년 7/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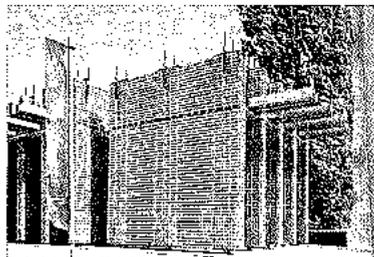
이번호의 주제는 Architecture, Design, Art, Event, Communication로서



건축뿐 아니라 다른 매체와 긴밀한 영향관계에 의해 생성된 작품들을 다루었다. 특히 음악과 연관되어 약 40년의 간격을 두고 지어진 르꼬르뷔제와 Peter Zumthor의 스위스 파빌리언이 집중적으로 다루졌다. 그리고 일본의 철저하게 인공적인 환경들을 소개하였다.

■ 신작소개

▶ Peter Zumthor의 하노버 엑스포 2000 스위스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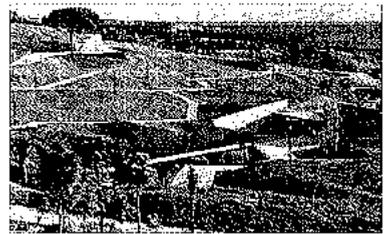
나라를 대표하는 파빌리언으로 지어졌지만, Zumthor는 이 곳을 방문자들이 그냥 잠시 지나가다 쉬어가는 곳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목재로 쌓아올림으로서 소리를 공명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내었다. 목재 사이의 틈은 최적의 소리울림을 위해 조정되었다. 그의 작품은 1958년 브뤼셀 세계 박람회에 세워진 르꼬르뷔제의 Phillips Pavilion과 비교가 된다. 그가 근대 건축의 원동력으로서 기술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세운 반면에 Zumthor에게 있어서는 근대 기술보다는 건축의 고

전적 주제인 기능과 장소에서 그의 디자인 개념을 찾는다.

▶ Berger+Parkkinen의 베를린 북유럽 대사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complex를 이룬 단지를 베를린에 세웠다. 외부 도로에 대해서는 하나의 매스를 이루지만 도시와 가로축을 반영한 6개의 축이 내부 가로를 형성하면서 5개의 대사관을 구분하고 있다. 각 나라의 왕은 해당 국가의 현상설계를 통하여 선정된 건축가들이 인테리어와 외부디자인을 담당하였다.

▶ Carlos Ferrater, Jos Luis Canosa의 바르셀로나 식물 공원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에게는 신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몬주익 산은 1929 World Expo와 1992 올림픽을 거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는 철거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들이 묻힌 언덕이 생겨났으며 이 프로젝트는 그 곳을 식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프랑스식 정원, 그리스의 미로, 아마존의 정글도 아닌 매우 논리적 접근으로 지형을 이용하여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내고 있다. ▶ Venturi, Scott Brown and Associates의 프랑스 Toulouse Haute Garonne Department 본사 ▶ Herzog de Meuron의 런던 Tate Modern

■ 기타

▶ 르꼬르뷔제의 Phillips Pavilion  
 1958년 브뤼셀 박람회에 세워진 Phillips pavilion은 그의 대단한 기대와 전기, 전자에 대한 그의 미래적 이

상이 담긴 건물이다. 박람회 기간동안 일시적인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이중 쉼로 근대적 기술을 상징하는 이 구조물은 내부의 곡면벽에 투사된 이미지의 변형과 왜곡이 표현적으로 의도되었다. 그리고 공간의 깊이는 비일상적인 색상효과와 비현실적 공간감을 만들어 내었다.

▶ 일본의 인공과 자연: 다실 (Teahouse)에서 스킵까지 ▶ Luciano Berio와의 인터뷰 등의 건축 관련기사와 ▶제품디자이너 Guixe의 정신을 위한 60가지 양식 ▶ DesignRAW의 Dialogs Machine ▶베니스 비엔날레 ▶ Issey Miyake의 Living Dresses ▶James Turrell의 보기위한 방 등 예술과 디자인분야의 글 등이 다채롭게 다루졌다.

##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8월

이 번 호 는  
Polshek &  
Partners의  
천문관 리노  
베이션으로  
새로이 주목  
을 받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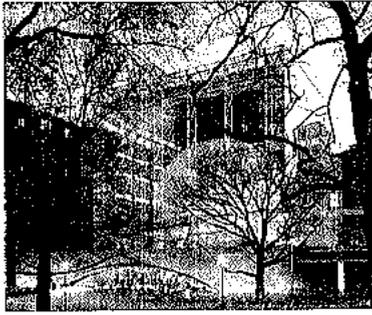


미국 자연사 박물관소식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Frank Gehry의 EMP, 그리고 시애틀 시민의 비난과 기대를 동시에 받았던 시립도서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건물 유형 연구로는 대학 캠퍼스 건물에 대해 다루었다.

###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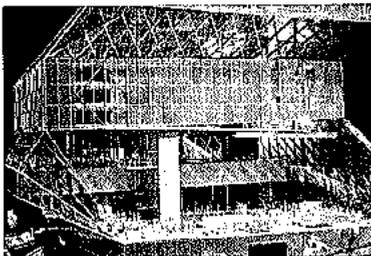
▶ Polshek & Partners의 Rose

## Center for Earth and Space



미국 자연사 박물관 군의 북서쪽 코너 핵심시설을 담당하는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Rose Center는 새로우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27m 반지름에 달하는 거대한 구는 천구, 기존의 Hayden Planetarium 또는 우주의 행성들을 연상시켰다. 루이 볼레의 뉴턴기념관을 은유적으로 차용하였으며 Wallace Harris의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 선보인 구형의 전망대 그리고 SF영화 "Things to Come"의 배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천문관을 디자인한 것이다. 구를 감싸고 있는 30m 높이의 유리 큐브는 Rose Center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다. 아주 맑은 "water-white"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실리콘에 의해서만 유리판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단열한 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Rem Koolhaas의 Seattle 중앙도서관



OMA의 전략은 335,000 square foot 면적을 기술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구획된 서로 침범하지 않는 공간들로 나누었다. 다양한 크기와 투명도를 가지는 볼륨들은 5개의 플랫폼에 의해 구성되며 각각 독특한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도시의 거실 역할을 하

게될 메인로비에는 폭신한 카페트가 바닥에 누운 전자 사인보드 위에 놓임으로써 안락함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 기술의 상징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 Dewey의 서지번호 0-999에 해당하는 모든 책들이 4개층에 걸쳐서 보관되어 있다. 각 층은 램프에 의해 연결되어 연속성을 잃지 않고 모든 책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고의 아래층 부분은 참고도서 열람 및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Mixing chamber"가 위치하며 서고의 위층은 경사진 유리천장을 가진 Reading room으로 계획되었다.

그 밖에 ▶ Frank O. Gehry의 Seattle Experience Music Project가 자세히 소개되었다.

### ■ 건물 유형연구- 대학

대학 건물은 상호 적극적인 교육을 증진시키며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지고 있다. 학생들과 교수가 만나는 공간을 더 이상 부가적인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인식되고 있다. "Flexibility"는 교육시설 계획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이다. 공간은 사람들과 가구들이 자유로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보기술은 laptop을 가진 교수와 학생들의 위치를 제한하며 전자적인 정보교환은 고정된 위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요구의 해결이 교육 시설계획의 핵심이 된다. 캠퍼스 전체의 중심을 잡으면서 오래된 양식의 캠퍼스 건물군들을 부각시키는 ▶ Robert A.M. Stern의 캘리포니아 Claremont Pomona College 학생회관, ▶사생활이 존중되면서 다양한 사회화를 위한 장소들이 고려된 Perkins & Will의 New Orleans Tulane University Mayer Residences ▶ Anshen + Allen의 Santa Monica College, Science Center ▶ William

Rawn의 영국 Bowdoin College, Howard and Stowe Halls 등이 사례로 분석되었다.

■ 기타

▶ Soviet Modernist 건물의 Photo Essay ▶ 부실 건축에 대한 원인 분석 ▶ 종이로 만들어진 건축의 기술적 정보 ▶ Rose Center 디자인에 이용된 컴퓨터를 등 각 방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

Architecture

2000년 8월호

이번호는 장관을 연출하는 비일상적 건축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건축 구조를 자체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비현실적 공간감을 제공하는 Frank Gehry의 EMP와 W.S. Atkins의 Jumeirah Beach Hotel은 그러한 건축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그 밖에 미국의 작은 주택들과 John Hejduk, Enric Miralles에 대한 추모의 글 등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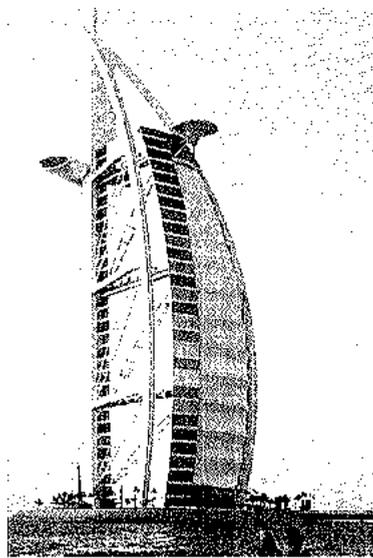
■ 건축과 스펙타클

▶ Frank Gehry의 Experience Music Project (EMP)



rock'n'roll 박물관에서 Gehry는 빌바오 구겐하임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반복하여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이 20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원천, 즉 14세기의 브르고뉴 지방의 아티스트인 Claus Sluter의 작품, 석조의 물결치는 페브릭에서 영감을 얻어 진화된 것이다. EMP는 빌바오 구겐하임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의 주된 모티브로 하지만 그 형태는 물결, 파도를 형상화 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와는 다소 고립된 스펙타클을 만들어낸다. 가로에 대해 대응하는 파사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5번가를 따라서 길게 누워있는 이 건물은 언덕을 오르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건물의 외관은 관습적인 내부 분할이나 층의 구분을 가린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최종의 메시지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음악 제작 경험으로부터 얻었던 자아의 탐험과 인식을 위한 도구이다.

▶ W.S. Atkins의 Jumeirah Beach Hotel



라스베이거스의 많은 호텔들과 같이 카지노, 쇼핑센터 등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체 자체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끈다. 인공섬에 300m높이의 이

타워는 풍압과 지진에 내성이 있는 V자형의 프레임 두 개가 겹쳐진 형태의 구조로 세워졌다. 180m높이의 중앙 아트리움은 듀플렉스형 객실의 복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의 분수대에서는 30m 높이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한다. 그밖에 ▶ "인류-자연-기술"이라는 진지한 주제 아래 열린 Expo2000 Hannover의 각 국가관을 가늠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였다.

■ 작은 주택에 깃든 큰 생각들

이번 호에 소개된 주택들은 1900 squarefeet 미만의 주택들로 일반적인 소규모 주택이다. 그러나 건축가의 철학적 실제적인 생각들이 작품에 펼쳐져 있다. 소개된 작품들은 ▶ Jerry Waters의 Oregon, Jeddalah Guest House ▶ Aaron Betsky의 Sanfrancisco, Stolz Residence ▶ McKay Architects의 일리노이주 Elmhurst, Carpenter's House. ▶ Toshiko Mori의 플로리다 Cohen House 등이다.

■ 기타

▶ 얼마전 세상을 뜬 John Hejduk, Enric Miralles에 대한 추모의 글, ▶ 2004년 올림픽을 대비해 영국이 보관 중인 판테온 조각 반환을 추진 중인 그리스 소식, ▶ 1960년대 새로운 유토피아 상을 제시했던 네덜란드 화가 Constant Nieuwenhuys의 작품들, ▶ ANY의 마지막 모임, ▶ 상업주의에 물든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Portland Art Museum의 Let's Entertain: Life's Guilty Pleasures 전시회 소식, ▶ Guy Debord의 Society of the Spectacle의 인공과 함께 라스베이거스 Venetian 호텔의 미국적 정서를 소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터키의 건축'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하지아 소피아 성당과 같은 문화유산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던 터키의 현대 건축들을 소개하면서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터키건축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 특집 - 터키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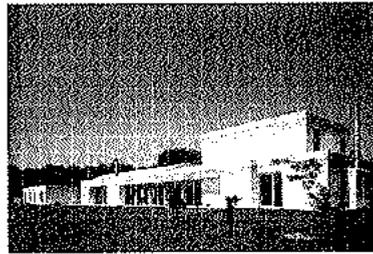
▶ 오늘날의 터키 건축 - 터키 건축물들의 실상은 작년에 일어난 지진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대부분이 열악한 건축물들이고, 90% 이상이 불법건축물들이었다. 그러나 터키의 건축은 그 자신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열악한 건축환경 속에서도 마치 산더미 같은 돌무더기에서 찾아낸 보석과 같은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터키의 건축은 이스탄불의 하지아 소피아 성당 혹은 오스만 제국의 거장건축가 미마르 시난(Mimar Sinan)의 예, 주택규모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여기에 소개된 터키의 현대건축물들은 지역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에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소박한 지방특유의 방법으로 지어지고 있지만 생태학적임과 동시에 구축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재료를 표현하고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건축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

▶ 철근콘크리트와 함께 다양한 석재



헤양고고학연구소본부



보이드(Void)로서의 백색 저택

쌓기로 이루어진 벽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터гут 잔세베르(Turgut Cansever)의 '헤양고고학연구소본부', 네브잔 사운(Nevzat Sayin)의 '보이드(Void)로서의 백색 저택'과 '에미레 세난(Emre Senan)저택', 아르다 인조르와 드니즈 아슬란(Arda Inceo lu & Deniz Aslan)의 '파무칼레(Pamukkale) 테니스 클럽', 세브키 페킨(Sevki Pekin)의 '썸머하우스' 등에서 터키의 전통적 축조방식과 철근 콘크리트의 혼합된 구조체의 구성을 볼 수 있다.

▶ 이 밖에도 건축물의 외벽을 모두 석재로 마감한 야틸라 유젤(Atilla Yücel)의 '우르귀프(Ürgüp) 핫산(Hadsan) 카펫 센터'를 비롯해서 석재의 사용은 괴칸 아브루(Gökhan Avciog lu)의 '젠켈괴이(Cengenköy)의 주택 개수', 네브잔 사운의 '건축가의 스튜디오', 세브키 페킨의 '6동의 주거' 등에서 사용된 목재와 함께 번함없는 터키건축의 애용되는 재

료로 보여진다. 이러한 재료들의 사용은 이들 터키의 현대건축들이 근대건축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이들만이 지니고 있는 터키건축의 감성을 지닐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의 사용은 독특한 공간구성과 디테일, 전통적 형태요소 등과 어우러져 터키건축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롬익 미술관

▶ 네브잔 사운의 '건축가의 스튜디오', 괴칸 아브루의 '창가(Chan-ga) 식당' 등은 건축된 지 1세기 가까이된 건물의 외관을 살리면서 리노베이션된 것들이다. 또한 터гут 잔세베르의 '헤양고고학연구소본부', 아이세이 오르베이(Aye Orbay)의 '칼믹(Kalmik) 미술관', 네브잔 사운의 '보이드로서의 백색 저택' 등에서 보여지는 볼트구조는 원형장과 함께 터키의 현대건축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통적 형태요소중의 하나로 보인다.

▶ 터키의 현대건축은 전통적 재료와 형태요소, 그리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자연을 끌어안으려는 공간구성 등은 터키건축의 고유한 감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근대건축의 많은 부분들을 흡수하고 있다. 비록 그 규모나 정도에 있어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혹은 센세이셔널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들만의 매력 때문이며, 우리가 이들의 매력에 주목하게 된 것은 본문의 블렌트 탄쥬(B lent Tanju)의 에세이 "타키-변환기의 건축 (Architecture in Transition: Turkey)"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시야가 중심에서 벗어나 변두리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좋은 건축물과 저속한 건축물로 구분짓는 이분법의 사고방식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건축문화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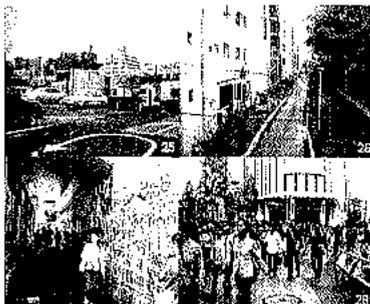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도시 '동경'이다.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동경과 같은 메갈로폴리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거대한 도시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고정된 시점과 주제가 아닌 다각도의 시점과 주제를 통해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법론을 택하며 이 특집은 이루어져 있다.

### ■ 특집: 동경(東京)

▶ 동경의 해석 - 메갈로폴리탄 시티인 동경은 현대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여러면에서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거대하고 복잡 다양한 도시 동경을 논할 때에는 결코 한가지 관점에서 그 리얼리티를 언급할 수 없으며, 또한 단 한가지 주제로는 그 핵심을 지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동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여러 화자와 여러 테마들이 얽히면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동경이 갖는 복합적인 리얼리티를 그 구체성을 추상화시키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시도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20개의 시점'이라 명명된 20개의 에세이들이며, 다른 하나는 '동경건축 10×20'으로 지난 20년간 동경 건축의 기록들을 10명의 작가가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술하는 형식으로 조금 산만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동경의 면모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다. 추상화되고 하나의 깔끔한 담론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담론들의 혼성이 동경이라는 도시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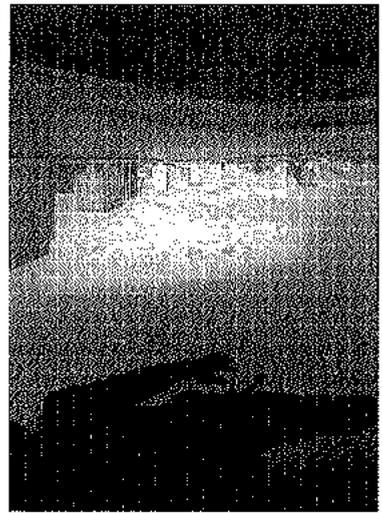


Tokyo Walking

▶ 이에 덧붙여 'Tokyo Walking'에서는 걸어가면서 실제로 체험하게되는 동경의 모습들을 사진과 함께 짙막한 글로 담고 있다. 현장감 넘치는 사진과 생생한 글들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세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동경의 한 모습들을 전달해 준다. 또한 3명의 좌담자가 참여하는 좌담회 기록 두 편은 각각 '동경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온/오프, 表/裏, 觀察/定着'이라는 주제로 정리되었는데, 서로 연령대가 다른 두 좌담회 그룹이 주목하는 주제들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In Tokyo 2000



핀홀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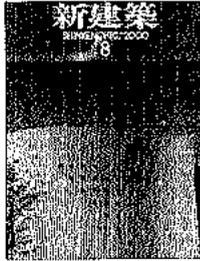
▶ 또한 동경을 주제로 한 사진작가들의 일련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나 에이지마의 'In Tokyo 2000'와 미야모토 류이찌의 '핀홀의 집 (Pinhole House)'이 그것이며, 미야모토 류이찌와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동경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서로 다른 감수성과 시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이들 에세이들과 좌담회 그리고 사진들과 기록들은 동경의 여러 모습들을 담아내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현대 도시를 해석해 가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특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경이라는 도시의 조직과 그 속의 건축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동경이라는 도시 조직 속에 녹아있는 인간 삶의 커뮤니티를 파악해내기 위한 작업들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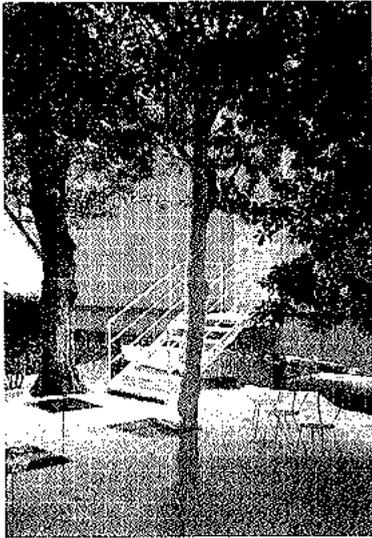
## 신건축

8월호

이번 호의 작품 소개는 하노버 국제박람회장의 건물들과 소특집 작은 공공건축으로 묶여 소개된 소규모의 공공건축물들, 그리고 최근작들로서 요코가와 켄(横河健)의 사이타마현 환경과학국제센터,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와 3인의 쿠마모토(熊本)현립 농업대학교학생관 등이 소개되었다.



### ■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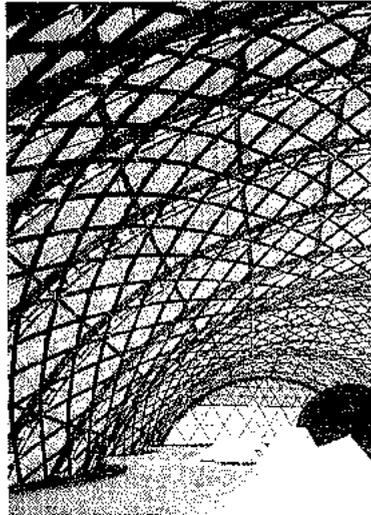
소녀도시

▶ 베니스 비엔날레 제7회 국제건축전 일본관 '소녀도시':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가 커미셔너(Commissioner)로, 코이케 카즈코(小池一子)가 큐레이터로 활동한 이번 전시의 전시장 기획은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와 니시자와 류에(西澤立衛), 그리고 SANNAA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녀도시'는 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일본관 회장계획의 명칭으로, 풍부한 감수성과 넘쳐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기를 상징하고 있다.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시관 주변과 전시장 내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시장 외부와 내부 모두에 흰색 조약들을 깔고, 기존의 전시장을 모두 흰색으로 도색하였으며, 주변의 식재도 흰색 천으로 감싸 순수한 소녀적 감성과 몽환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전시장에 작가 세 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전시장의 기획자는 이 전시장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공간, 건축과 자연환경,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이라는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건강관(Health Futuers)



하노버국제박람회 일본관

▶ 하노버국제박람회에 관한 2개의 작품과 박람회장 그 모습을 드러낸 세계의 여러 전시장들에 대한 소개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먼저 작품으로는 박람회장 테마파크안에 설치된 이토오 토오(伊東豊雄)의 '건강관(Health Futuers)', 반타원형의 실내 수공간(水空間)을 둘러싸고 인락의자가 배치

된 메인홀은 매끄러운 바닥면과 스크린으로 작용하는 벽면에 영상을 투상함으로써 비현실적 공간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소개된 또 다른 작품은 반 시게루(坂茂)건축설계의 하노버국제박람회 일본관. 커다란 반원형의 단면을 지닌 터널형상의 일본관은 원형단면의 목조골재를 밴드로 접합시켜나가며 엮어낸 골조를 갖고 있다. 이를 반투명의 막으로 된 외피가 덮고 있는 형태이다.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장에서 자국의 전시관으로 꾸준히 목조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주목할 만한 전시관들을 사진과 함께 짚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 ■ 소특집 - 작은 공공건축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공공건축물들은 흔히 거대한 규모와 그 기능상 많은 대표성과 인지도를 갖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공건물들을 건축을 만들어가는 건축가의 작업보다는 그 공간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희망에 의해 그것이 환영받고 논의되어 오기도 했다. 여기 소개된 작은 공공건축물들-도예 학습실, 어스워크센터(Earth Work Center), 숲속의 확장실, 공동모지 등은 작가의 건축물은 이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건축가의 작업과정 속에서의 모티베이션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 도시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내
  -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나. 지구단위계획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시기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지역 또는 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지역 또는 지구로 변경되는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배 이내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별표 2 내지 별표 17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제30

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
2. 도로
3. 주차장
4. 광장
5. 공원(모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
6. 녹지
7. 공공공지
8. 수도
9. 공동구
10. 학교(대학을 제외한다)
11. 공공청사
12. 문화시설
13. 도서관
14. 연구시설
15. 사회복지시설
16. 공공직업훈련시설
17. 청소년수련시설
18. 하수도
19. 종합의료시설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한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 바깥

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4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제46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20분의 1 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작물의 설치
  - 가.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

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48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정무투자기관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인에서의 행위제한**

**제51조(지역인에서의 건축제한)**

-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5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5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공시설보호지구 및 향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공시설 또는 향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②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60조(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 내지 제59조에 규정된 지구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61조(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① 지역·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 17. 기타 지역: 2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기타 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

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4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곱한 비율

④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운동장 및 공원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65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축사
2. 퇴비사
3. 잡실
4.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5.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6. 관리용건축물(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양어장

②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2.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3.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4.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5.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나.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취사용가스판매점, 일반음식점, 다과점, 다방, 이용원, 미

용원, 세탁소, 목욕탕, 사진관, 목공소, 의원, 약국, 점골기술소, 안마기술소, 침구기술소, 조산소, 동물병원, 기원, 당구장, 장의사, 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8.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을 시가화조정구역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제66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

정에 의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1. 제46조제1항 각호 및 제47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제65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 잡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 다만, 감골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수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0조의 규정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허가신청서 등)

①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68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69조(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허가증 등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인가·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 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0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제71조(서류의 공람 등)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연월일의 변경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72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8.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4조(공사완료공고)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장 비용

**제75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2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 제7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8조(보조 또는 용자비용)

-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조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②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제7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분야별,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 등 계획유형별, 안건별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8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한성대학교 도서관 및 연구동

Hansung Univ. Library and Research Center

### ▶ 당선작 / 공간건축

(이상림+오섭훈)

프로젝트를 만날 때 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장소의 조직과 거기서 일어나는 이벤트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장소로서, 공간으로서 조직되고, 변환될 수 밖에 없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때 장소의 구조적 조직 못지 않게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이벤트

에 대한 해석에서 항상 단서를 포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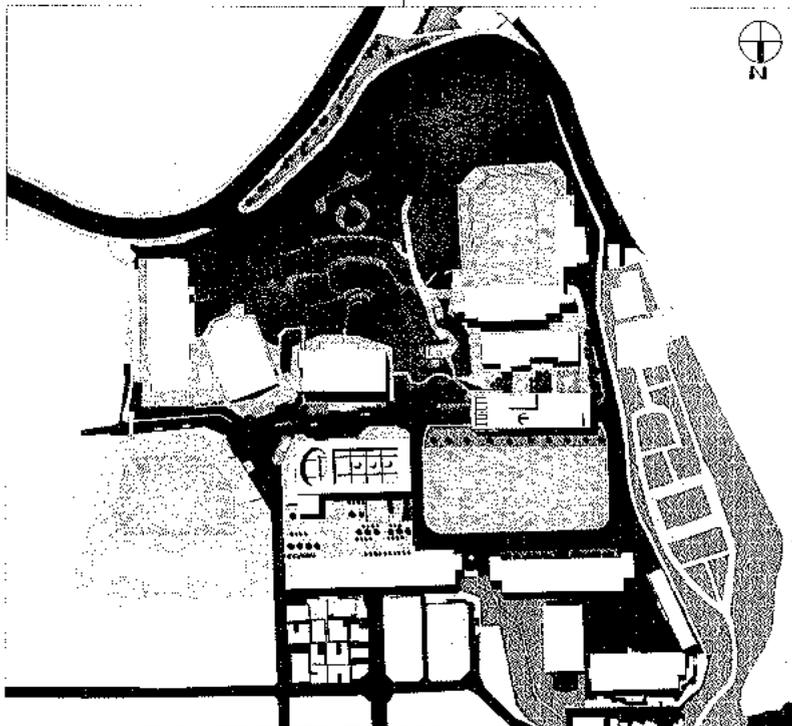
몸을 감싸는 옷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겠으나 몸과 공간적으로 맞는 정도의 관점에서의 차이는 미묘할 수 있으나 몸이 느끼는 편함은 제법 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공간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의 종류도 다를 수 있고 그것들이 엮이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종류나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공간의 구조적 조직은 어느 정도나 실현 가능하고, 느낌은 어느 정도 차이날까? 이런 문제가 이번 도서관에서도 여전히 주요 이슈가 되었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학문을 하는 자리로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저 깊은 곳에 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영감이 우러나오는 그 무엇과 비슷한 환경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대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런 장소로서, 즉 깊은 느낌의 장소로서, 일상적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냈으로써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단서, 통로를 제공해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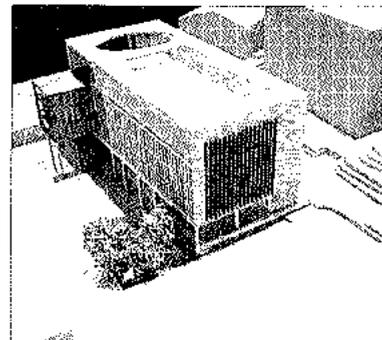
곳, "창조적 사고의 통로로서 도서관" 이러한 느낌을 위해서 어떤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나냐가 중요했다.

앞으로 학교측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학교에서 바라는 바와 처음부터 지녔던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잘 맞아 떨어져 위치적 중심의 역할 못지 않게 젊은 대학인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좋은 장소로서 기억되길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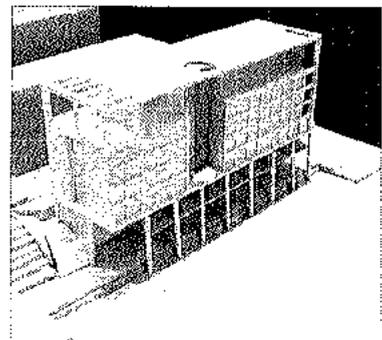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번지 한성대학교 캠퍼스내
규모	도서관 : 지하2층, 지상6층 연구동 : 지상8층
건축면적	도서관 : 1,367.6m <sup>2</sup> 연구동 : 960.6m <sup>2</sup>
연면적	도서관 : 13,315.1m <sup>2</sup> 연구동 : 6,771.2m <sup>2</sup>
주차대수	도서관 : 67대 연구동 : 11대
구조	도서관 : SC+RC 연구동 : RC
주요외장재	도서관 : THK24 복층유리, 확장석, 불소수지 도장 연구동 : THK24 복층유리, 불소수지도장
설계참여	한승호, 한준일, 김지형, 김준수, 이현우, 권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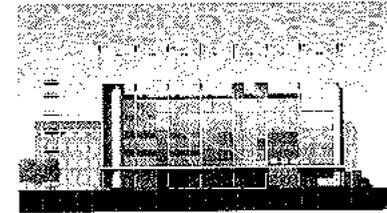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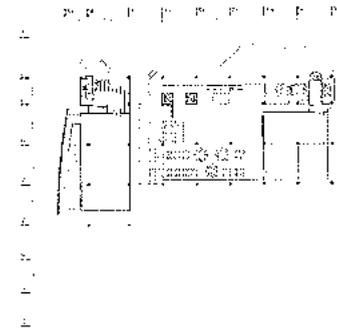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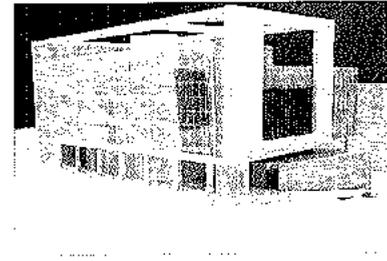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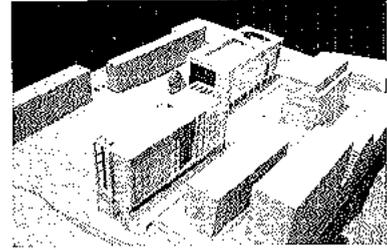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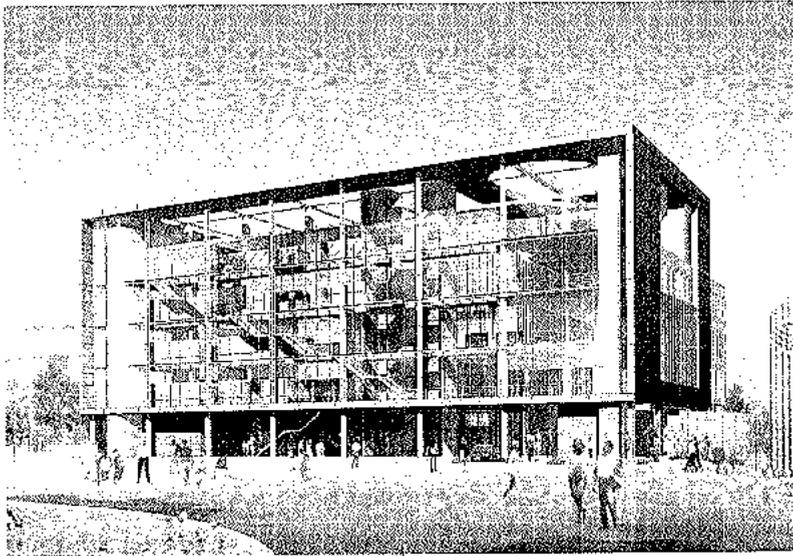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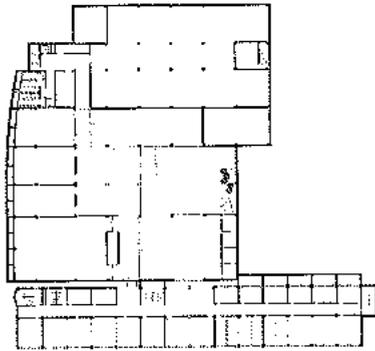
도서관 모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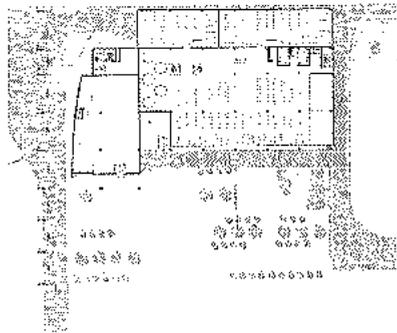
연구동 모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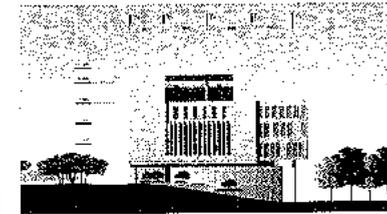
장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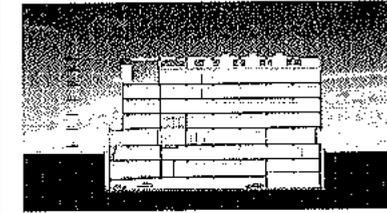
6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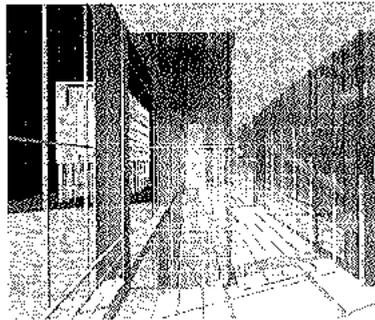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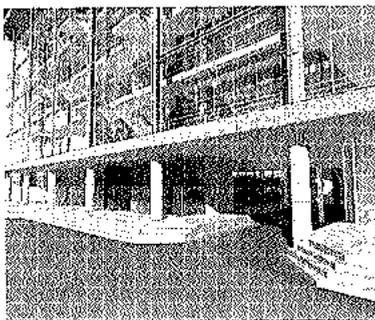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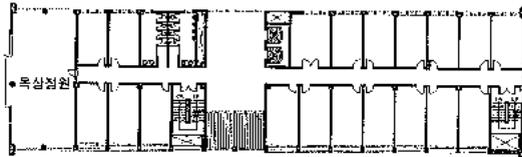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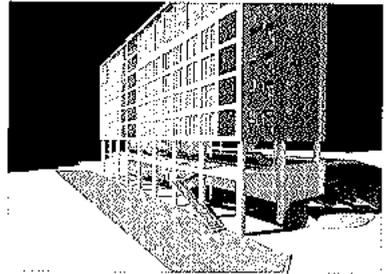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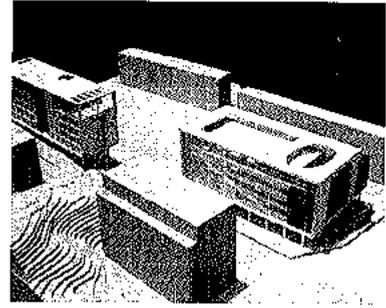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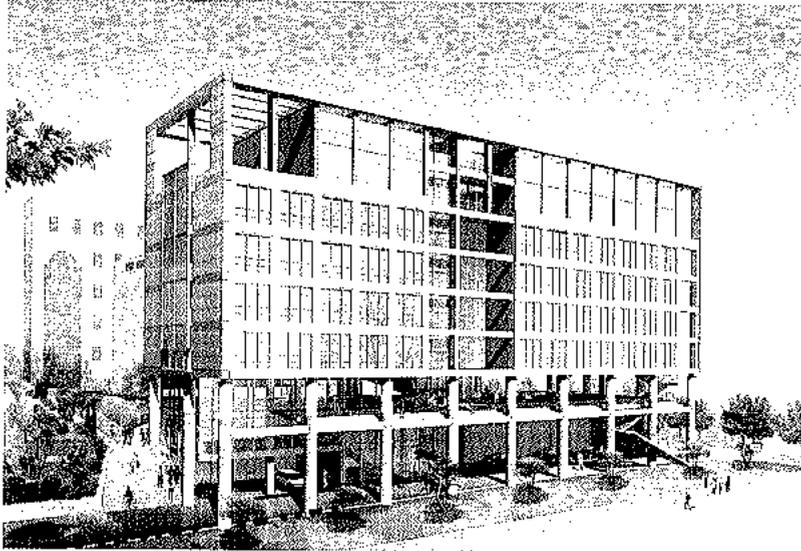
지하1층평면도

1층평면도



좌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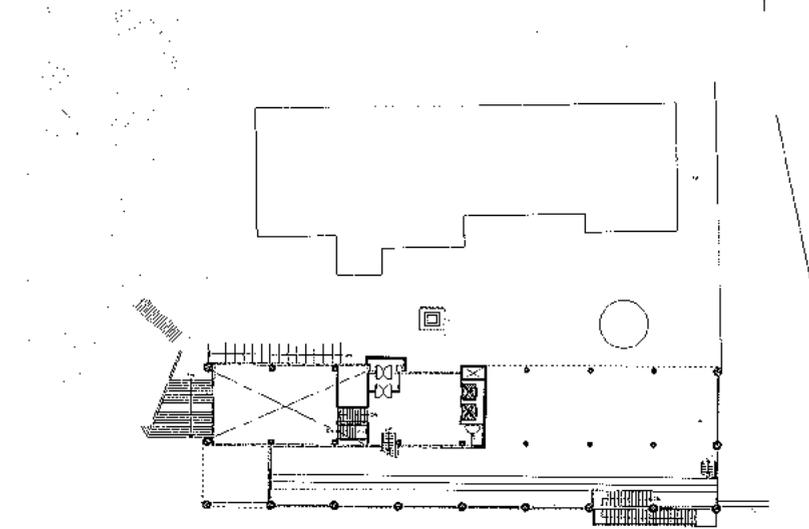




7-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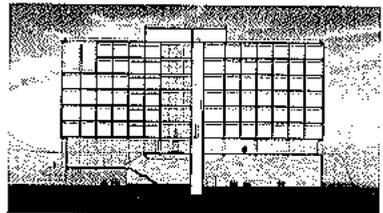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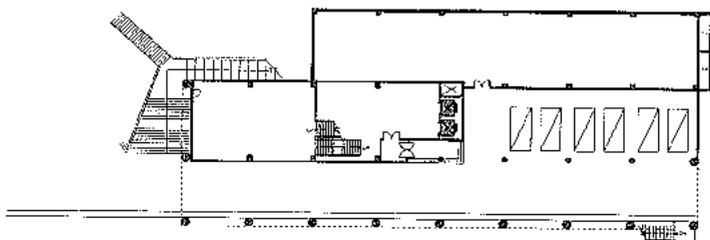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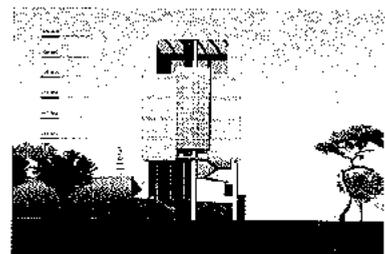
세면도



중면도



1층 평면도



좌측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7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99.7) 5백9십8만2천2백26㎡ 보다 7.1%(4십2만5천6백14) 증가한 6백4십만7천8백40㎡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7월 누계 3천2백8십8만8천5백92㎡ 보다 22.7%(7백4십5만6천3백50) 증가한 4천3십4만4천9백42㎡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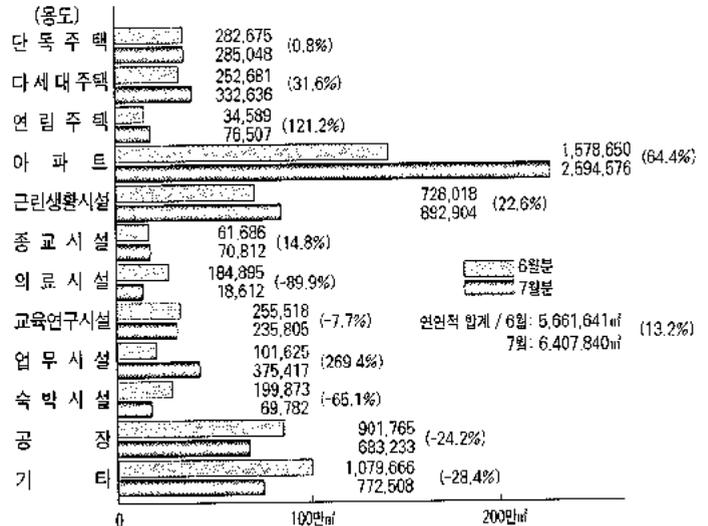
다. 전월비

전월 6월분(2000.6) 5백6십6만1천6백41㎡ 보다 13.2% (7십4만6천1백99) 증가한 6백4십만7천8백40㎡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분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2,957,897	3,639,180	681,283	23.0
	대전	56,103	197,404	141,301	251.9
	울산	43,571	79,330	35,759	82.1
	충남	95,472	143,103	47,631	49.9
	경북	126,008	221,728	95,720	76.0
	경남	163,687	463,829	300,142	183.4
	제주	42,362	112,405	70,043	165.3
감소지역	부산	173,749	77,211	(96,538)	-55.6
	대구	217,699	37,666	(180,033)	-82.7
	인천	685,799	322,968	(362,831)	-52.9
	광주	108,839	38,962	(69,877)	-64.2
	경기	802,695	758,034	(44,661)	-5.6
	강원	106,467	61,669	(44,798)	-42.1
	충북	155,888	98,361	(57,527)	-36.9
	전북	122,628	73,769	(48,859)	-39.8
	전남	123,362	82,221	(41,141)	-33.3
	합계	5,982,226	6,407,840	425,614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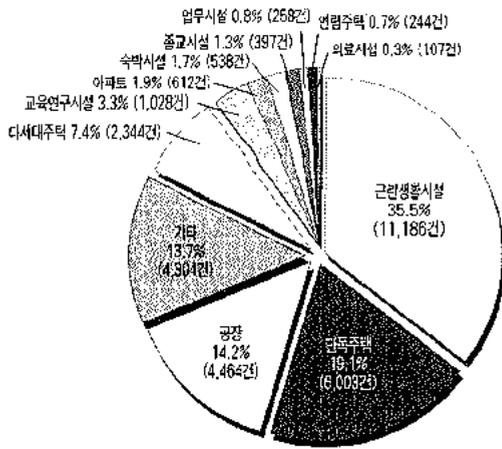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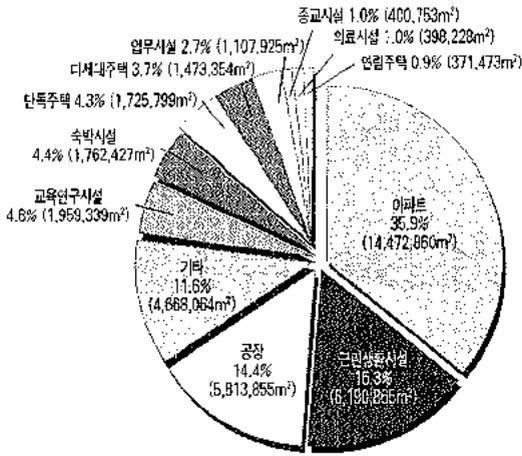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7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637	699	151,540	911	952	285,048	274	253	133,508	88.1	
다세대주택	152	162	91,450	550	554	332,636	398	392	241,186	263.7	
연립주택	35	37	57,896	38	51	76,507	3	14	18,611	32.1	
아파트	68	146	2,996,151	106	136	2,594,576	38	(10)	(401,575)	-13.4	
근린생활시설	1,537	1,607	656,294	1,549	1,583	892,904	12	(24)	236,610	36.1	
종교시설	65	71	49,821	71	84	70,812	6	13	20,991	42.1	
의료시설	17	19	37,807	14	17	18,612	(3)	(2)	(19,195)	-50.8	
교육연구시설	152	173	270,529	182	202	235,805	30	29	(34,724)	-12.8	
업무시설	37	39	110,853	58	59	375,417	21	20	264,564	238.7	
숙박시설	66	71	53,425	63	66	69,782	(3)	(5)	16,357	30.6	
공장	570	686	661,358	504	641	683,233	(66)	(45)	21,875	3.3	
기타	552	648	845,102	573	695	772,508	21	47	(72,594)	-8.6	
합계	3,888	4,358	5,982,226	4,619	5,040	6,407,840	731	682	425,614	7.1	( )=미야나스

용도별 구성비 (2000년 7월 누계분)



건수 (총 31,485건)



연면적 (총 40,344,942m²)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7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06	407	2,957,897	962	971	3,639,180	556	564	681,283	23.0	
부산	270	372	173,749	65	67	77,211	(205)	(305)	(96,538)	-55.6	
대구	217	217	217,699	86	86	37,666	(131)	(131)	(180,033)	-82.7	
인천	119	137	685,799	254	254	322,968	135	117	(362,831)	-52.9	
광주	99	125	108,839	88	96	38,962	(11)	(29)	(69,877)	-64.2	
대전	107	107	56,103	306	306	197,404	199	199	141,301	251.9	
울산	94	94	43,571	126	126	79,330	32	32	35,759	82.1	
경기	967	1,123	802,695	1,141	1,299	758,034	174	176	(44,661)	-5.6	
강원	221	240	106,487	164	174	61,669	(57)	(66)	(44,798)	-42.1	
충북	290	342	155,888	244	273	98,361	(46)	(69)	(57,527)	-36.9	
충남	176	176	95,472	226	226	143,103	50	50	47,631	49.9	
전북	138	143	122,628	136	136	73,769	(2)	(7)	(48,859)	-39.8	
전남	184	191	123,382	147	148	82,221	(37)	(43)	(41,141)	-33.3	
경북	223	245	126,008	253	340	221,728	30	95	95,720	76.0	
경남	278	324	163,687	262	345	463,829	(16)	21	300,142	183.4	
제주	99	115	42,362	159	193	112,405	60	78	70,043	165.3	
합계	3,888	4,358	5,982,226	4,619	5,040	6,407,840	731	682	425,614	7.1	(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7월 누계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554	2,560	17,751,699	3,909	3,953	15,903,476	1,355	1,393	(1,848,223)	-10.4	
부산	1,109	1,532	985,993	1,065	1,517	1,518,904	(54)	(15)	532,911	54.0	
대구	1,070	1,070	836,429	1,220	1,220	1,361,599	150	150	525,170	62.8	
인천	796	833	1,909,538	1,838	1,838	1,974,259	1,042	1,005	64,721	3.4	
광주	835	986	608,901	743	922	601,030	(92)	(64)	(7,871)	-1.3	
대전	606	606	350,543	1,081	1,080	874,364	475	474	523,821	149.4	
울산	697	710	455,766	778	778	529,368	81	68	73,602	16.1	
경기	4,983	6,081	4,559,948	9,057	10,931	9,615,791	4,074	4,850	5,055,843	110.9	
강원	1,201	1,317	461,048	1,231	1,331	587,977	30	14	126,929	27.5	
충북	1,481	1,710	938,436	1,926	2,199	1,292,534	445	489	354,098	37.7	
충남	1,275	1,275	700,746	1,420	1,420	817,750	145	145	117,004	16.7	
전북	894	913	507,353	1,128	1,132	831,181	234	219	323,828	63.8	
전남	1,279	1,327	622,981	1,300	1,336	828,432	21	9	205,451	33.0	
경북	1,337	1,543	927,179	1,620	2,014	1,181,725	283	471	254,546	27.5	
경남	1,765	2,030	1,050,752	2,381	2,892	1,975,938	616	862	925,186	88.0	
제주	576	651	221,260	798	893	450,614	222	242	229,334	103.6	
합계	22,458	25,144	32,888,592	31,485	35,456	40,344,942	9,027	10,312	7,456,350	22.7	( )=마이너스